

어사매

於

新

鳥

(제 12호)



황성문화원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을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횡성의 상징



군 기

군민의 평화와 맑은 정기를 상징하며 장엄한 군은 의지를 말한다. 중앙의 반달형은 옥토와 맑은 자원이 성장과 자원의 개발로 이어져 무궁한 번영을 상징한다.



군의새/백로

군을 상징하는 군조는 해오라기과에 속하며 천연기념물 24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은백의 눈부신 자태는 군민의 순결함을 뜻하며 서원면 압곡리일대에 무리지어 여름을 난다.



군의꽃/함박꽃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말하며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밝은 미래를 뜻한다. 강한 번식력은 군민의 강인한 정신력을 나타낸다.



군의나무/느티나무

군목의 느티나무는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람하며 재질도 좋다. 한여름에 넓은 그림자를 드리워 농부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느티나무는 무한히 성장하는 횡성군을 뜻한다.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이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근원적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대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날의 새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서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的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正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형성군 노래

방 직 현 작사
노 명 석 작곡



1. 태 기 - 산 뻗 은 즐 기 덕 고 - 의 정 기 모 아
2. 운 암 - 정 청 란 아 래 형 성 - 교 빛 겨 있 고
3. 교 통 - 의 심 장 부 로 사 방 뻗 은 동 맥 의 길



앞 들 - 의 넓 은 옥 토 부 강 을 자 랑 하 고
태 풍 - 루 반 송 터 는 옛 일 을 아 뉘 는 듯
경 향 으 로 사 통 오 달 거 마 가 즐 비 하 고



동 서 로 - 구 비 친 강 꾸 준 히 - 흐 르 는 곳
낙 낙 장 송 넓 은 숲 에 흥 익 정 신 가 득 한 곳
전 통 의 - 산 업 정 신 부 흥 을 - 꾀 하 는 곳



아 름 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 리 형 성

대한민국서예대전 대상 수상

宿歸鶴亭 숙귀학정
대상수상작품

강원도민 최초
횡성출신서예가



可山 정복순

약력

횡성읍 읍상리 288번지 출생(46세)
구당 여원구선생 사사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
동아미술대전 입선
전국 휘호대회 특선
한국청년작가전 출품
강원도 서예대전 추천작가



發 刊 辭



심진황

황성문화원 원장

지역문화의 獨創性을 살리고 鄉土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해 1982년 創刊된 鄉土文藝誌 『어사매』가 군민여러분과 出鄉人士님들께 愛鄉의 消息誌로 『제1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황성은 愛國과 愛鄉의 고장으로 學文을 연마하고 文化를 推究하는 열망이 남달리 드높은 고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려4처사의 한분인 耘谷 元天錫선생을 비롯한 文臣이며 名將인 趙冲장군등 우리고장 선인들의 哲學과 학문은 累卵之勢에 처한 亂國을 극복하는 原動力이 되었으며 우리고장의 表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연히 이어져온 문화의 뿌리는 오늘에 이르러 향토출신 서예가 이신 可山 鄭福順 선생이 강원도민 최초로 대한민국 서예대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로 우리고장 문화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鄉土文藝誌인 『어사매』는 우리문화의 뿌리를 이어가고 鄉土文化의 繼承發展과 文化暢達에 따른 所任과 召命을 妄覺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鄉土文藝誌가 되기 위해서 가일층 最善의 勞力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先後輩 諸位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本誌 『어사매 제12호』발간에 玉稿를 보내주신 文學人과 出鄉人士님들께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祝 辭



조 태 진

횡 성 군 수

우리고장 횡성의 문화, 예술의 큰 마당인 어사매 제12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사매는 그동안 우리고장의 숨겨진 향토사를 찾아서 재조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애乡심을 일깨워 주는데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자질이 뛰어나거나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작품을 발표할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때에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발간된 어사매 12호에도 향토사랑이 듬뿍 담긴 글, 서정과 문학적 향취가 가득한 주옥같은 작품들이 실려 있어 우리군민의 높은 문학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문학적 유대를 돈독히 하는 한편, 현대생활에서 메말라 가는 군민의 정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방문화발전과 어사매 발간에 정성을 다 해주신 심진황 원장님과 문화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어사매 편집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사매가 향토문학을 대표하는 문예지로써 자리매김 함은 물론, 지방자치 최고의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이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의 충족임을 잊지마시고 문화원이 문학, 예술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의 전당으로 더욱 발전하여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원 용 식

황성군의회 의장

향토문화를 꽃 피워온 어사매 12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심진황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과 함께 양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가슴속에 허전함을 느낀은 물질문명의 발전만큼 정신문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없는 문명은 그 어느 시대에도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보아왔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밀려오는 서구문화를 피해 갈 수 없는 시점에 있어 우리를 지키는 길은 문화의 자주성을 찾는 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사매 12호의 발간은 정신문화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의 문화적 욕구해소와 문화의 열린광장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사매의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祝 辭



김 순 렬

황성교육청 교육장

황성문화의 뿌리는 멀리 마한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한은 기원전 3~4세기에 걸쳐 전라, 충청, 경기, 강원도의 일부에 걸쳐 50여개 부족국가로 형성되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을 주로 하였고, 토지는 부락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경작과 공동분배가 행하여 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한시대의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 황성지역에 살았던 선조들은 공동체 의식 확립으로 풍요로운 삶과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황성군이 『21세기를 앞두고 삶의질이 향상되고 있는 군』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마한 시대에 형성된 황성문화에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문화적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질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문화사적 측면에서는 교육을 통한 협동체 의식고취와 진취적 기상을 길러 미래사회에 다양하게 적응하는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열린교육』은 바로 미래의 황성문화를 형성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5월 우리교장 출신인 아동문학가 고 이연승 동시비 제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가진 동시비 제막식이란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신인 문학도가 많이 배출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황성문화원』은 황성문화의 산실이며 문화적 유산을 정리, 기록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유익한 양식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 문화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어사매』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1 부

횡성의 어원 ----- 정 호 완 ----- 17

제 2 부

애국의 고장 횡성과 3·1운동 ----- 편 집 실 ----- 25

제 3 부

횡성댐 수몰지역을 찾아 ----- 강원대학교 ----- 57

제 4 부 - 어사매 문화마당

내고향 ----- 김 병 준 • 139
 고향 친구 도시 ----- 박 영 래 • 140
 4월의 산행 ----- 조 규 영 • 142
 夏蘭을 바라보며 ----- 박 정 래 • 143
 멩애 ----- 권 용 환 • 144
 금연 망년회 ----- 조 상 현 • 155
 횡성원의 앞뜰자랑 ----- 김 승 기 • 158
 친정어머니 ----- 임 옥 회 • 161
 겨울의 길목에서 ----- 김 흥 기 • 163
 만추의 산행 ----- 김 은 숙 • 165
 전세살이 ----- 곽 영 기 • 167
 직분, 자리, 제몫을 다할때 ---- 이 광 수 • 170
 강원도의 도자문화 ----- 장 송 모 • 173
 우리농업, 농촌에 사랑을 ---- 허 남 렬 • 176
 하늘이 내려준 벌레 ----- 최 지 형 • 178

— 제5회 여성백일장 작품모음 —

회상 ----- 박 상 회 • 181
 회상 ----- 권 연 회 • 182
 딸 ----- 박 주 현 • 184
 우리고장 ----- 정 혜 경 • 185
 우리고장 ----- 정 란 화 • 186
 회상 ----- 이 효 자 • 187
 우리고장 ----- 이 정 예 • 189
 회상 ----- 김 정 옥 • 191
 회상 ----- 백 영 호 • 193
 딸 ----- 이 옥 순 • 195
 회상 ----- 김 순 성 • 197
 회상 ----- 원 영 순 • 199
 횡성문화원 신규회원명단 ----- • 201

아동문학가

이연승 동시비건립



해를 따는 가게

이연승

거울가게에는
거울 수만큼
하늘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파랗게 쥐어넣고
해를 팝니다.

손님들은
하늘 속에 비친
얼굴을 보고

해가 담긴
거울을
사 가지고 갑니다.

(4-1 국어교과서 수록 작품)

황성이 낳은 아동문학가인 향토시인 이연승은 <해를 따는 가게> <햇살이 사는 동네> 등의 동시집을 발간하여 이 나라 어린이의 「밝은 마음」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연승 시인은 일찍이 1991년 53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우리들 마음을 안타까이 하던터에 황성문화원 심진황(故 이연승동시비 건립추진위원장)원장등이 주축이 되어 동시비 제막을 추진하게 되었다.

황성의 문학동호인을 비롯한 각계로부터 성금을 모아 고인의 뜻을 기리고 교육의 자산을 어린이들에게 길이 전하고자 1997년 5월 25일 황성도서관 정원에서 이연승 동시비를 건립 제막하였다.

어사매 (제12호)

제1부 ---- 어사매 그 가로지름의 속내

횡성의 어원을 찾아

— 정 호 완 —



「제 1부」 — 형성의 어원

어사매, 그 가로지름의 속내

대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갑천면출신) 정 호 완

무르녹는 봄언덕을 말 놓아 동쪽 들녘 가네
여름지이를 재촉하는구나. 열성으로 지어 보세
올해 남쪽 들은 얼마나 농사가 되려노
간밤에 흠뻑 내린 비는 나라님의 은덕일레
— 흥귀달의 한시에서

산이 있는 곳에 언덕이 있고 물이 흐른다. 때로 내는 굽돌아 흐르며 고이다가 곧게 내려 크고 작은 사람의 삶터를 빗어 낸다. 남으로는 치악산이 구름처럼 드리워 있고 동으로는 태기산이, 북으로는 어담산이 병풍을 치듯 둘러 있는 곳, 이 중에 벌을 가로 지르는 남천을 따라 꽃피듯 펼쳐진 데가 형성이다.

역사란 사람과 자연환경의 걸림이요, 사람과 사람의 걸림에 뿌리 내린 내력이질 않는다. 본디는 고구려의 땅으로 어사매(於斯買)라 하였으며 신라 35대 경덕왕 16년에 황천(潢川)으로 고쳐 부르게 된다. 고려 현종 9년 춘천에 속했다가 뒤에 원주로 바뀐다. 공양왕 원년에 현감을 두었으며 조선왕조 태종 때에 이르러 형성이라 했다. 까닭인즉 홍천(洪川)과 횡천은 소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 이를테면 같은 소리로 이어 있는 곳을 부르는 것은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땅이름으로 보아 천(川) 계열의 땅이름은 거의가 고구려계로 보면 된다. 물론 고구려 이전, 삼한 적에는 진한의 땅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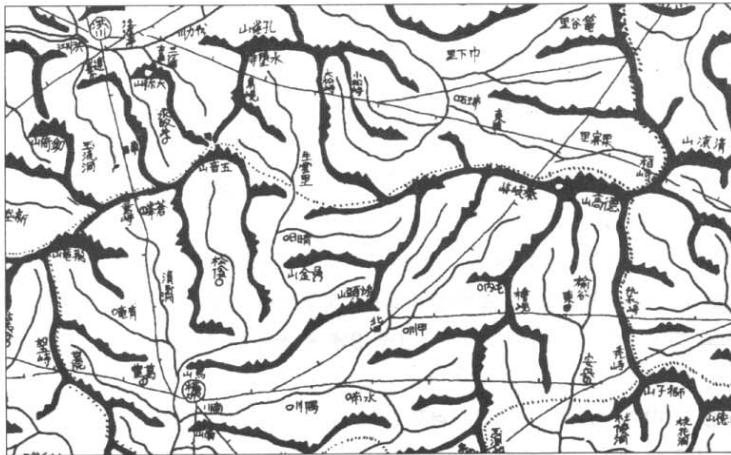
조선조 태종은 친히 횡성을 찾아 군사훈련 [講武] 을 가진 바 있어 지금도 치악산 쪽

에는 태종대라 불리는 곳이 있다. 《대동지지》 전고부분을 보면 나라가 어지러운 때 정의를 부르짖고 민중봉기를 꾀한 기록이 나온다.

인조 5년(1627) 병자호란이 일어난 때이다. 인조가 왕의 자리에 올라 서인이 정권을 장악해서 청나라를 배척한 결과 빚어진 난리. 임진왜란의 포성이 멎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전쟁이 나니 백성들은 살 길이 묘연했다. 생불여사라, 죽지 못해 사는게 아니었을까.

때에 횡성 땅의 이인거(李仁居)는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워 사회개혁을 부르짖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별이 내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인거는 뜻을 함께 하는 수백명의 동지를 모아 동헌을 쳐들어갔다. 현감 이탁남(李擢男)을 묶은 채 무기를 빼앗고 군사들의 진을 치고 높은 언덕에서 서울로 쳐들어갈 꾀를 내고 있었다. 임금은 계엄의 명을 내리고 주위에 있는 군사들로 하여금 군사 요충지를 지키게 하였다. 한편 삼남의 병사들로 횡성 주위에 대기를 명하고 때를 기다렸다.

마침 원주 목사 홍보라는 이가 군사를 이끌고 이인거를 붙잡아 난리를 가라앉혔다.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는 안 따져 보고 사람만 죽이면 뭐가 되는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닌가.



「횡성의 옛지도」

‘어사매와 횡천(橫川)

횡천은 본디 어사매(於斯買)라 했다. 고구려 계열의 땅이름에 매홀(買忽) 등과 같이 ‘매’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물 [川·水·江] 을 이른다. 하면 ‘어사’는 무엇인가. ‘엇간다·비껴 간다’는 뜻의 한자소리를 빌려 쓴 말쑤으로 풀이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사—엇 [橫]’이란 말로 간추릴 수 있다. 횡성이 남쪽 벌을 흐르는 남천(南川)의 말미암음에서 ‘횡천—엇매’가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천은 현의 남쪽 5리쯤에 흐르는데 뿌리샘은 원주 치악산에서 시작된다. 산음(山陰) 즉 산의 북쪽으로 흘러 회현(檜峴)을 지나 우무골 [井谷] 의 북에 이른다. 갑천의 서류를 지나 흘러 서천과 함께 만나 원주의 섬강으로 든다.

간추리면 치악산을 북쪽으로 해 거꾸로 흘러 다시 꺾어져 현의 남쪽을 가로 지나는 특성을 떠올려 ‘엇매—횡천’이라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횡성으로 바뀌었지만 마을이 이루어지는 곳에 물이란 가장 결정적인 알맹이가 되는 법. 하긴 물과 땅은 먹거리 생산과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말이다. 이르자면 우리 삶이란 물과 땅의 맞걸림이라 하겠다.

엇먹는다든가 빗나감은 좀 뼈딱한 느낌을 준다. 요즈음 텔레비전에도 횡성장이 소개 되거니와 왜인들이 강제로 점령, 마구잡이로 빼앗아 갈 때 안성·개성과 함께 횡성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장사를 해 재미 본 일이 없다고 한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물건을 팔아 줌이 마땅했기 때문. 일본인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을 게 뻔한 노릇이다. 수입 농산물, 걸핏하면 외제 상품이 머리를 들고 어린이 옷가지부터 외국 말이 버섯이 눈에 띄는 건 참말로 부끄러워 해야 될 일이다.

태기의 뭇 이룬 꿈

산이 높으면 골짜기 또한 그윽하게 마련. 횡성의 산 하면 태기산이요, 어답산이다. 한국의 허리뼈 태백의 용틀임이 서남쪽으로 물결치다 오대산(1,563m)이, 계방산(1,571m)이, 다시 태기산(1,261m)의 서기 어린 매듭으로 솟아 오른다.

진한 무렵 마지막 왕이던 태기왕이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와 삼랑진에서 자웅을 겨루다 쫓기고 물리어 마침내 오늘날의 태기산에 배수의 진을 쳤다. 해서 아예 산이름조차 태기산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허리에서 일어나 고조선의 대통이라 할 예(濊)와 맥(貊)의 얼을 굳게 지키고 마한·변한을 어우러 이르러 삼한 통일의 불같은 꿈이 있었는데.

끝내 박혁거세의 세에 몰려 태기산에 쌓았던 성이며 모든 살림을 던져 버리고 심지어

임금의 신표인 옥쇄도 던지고 도망하여 버린다. 해서 태기산 동쪽에는 옥산대(玉散台)란 곳이 있기도 하다. 싸움에 쓰던 칼이며 갑옷을 씻었다 하여 산의 서쪽으로 흐르는 내를 갑천(甲川)이라 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러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갑천 내 들레에는 아기장수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져 온다.

갑내라 하는 곳에 가면 소따배기와 강신터라는 데가 있다. 소따배기 위에서 뛰어난 장수가 나오므로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는 일에 큰 구실을 했다는 것. 해서 일본의 강점기에는 소따배기 어름쪼에 혈맥을 끊는다 해서 큰 쇠말뚝을 박아 놓았다고 전한다. 그럼 강신터는 무얼 하는 데인가. 다름 아닌 성황터, 흔히 서낭터라 이르는 곳이다. 옛부터 성황목으로 소나무가 많이 늘어서 숲을 이루었다가 뒤에 사람들이 배어 내 버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기독교의 교회가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는 종을 울린다. 예나 지금이나 귀신을 모시기는 마찬가지요, 한국 귀신이 서양 귀신으로 바뀐 것 뿐이다.

하필이면 교회뿐이라. 한다 하는 산의 쓸만한 자리이며 산천에 제사지내던 곳은 거의 절터가 되고 만 것도 그러한 보지요, 절 없애고 백운동 서원 같은 유교의 배움터를 지은 것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절에 가면 크고 오래 된 절간일수록 국사당이나 칠성각이 있다. 이 모두가 전통신앙의 종교 공간이었으니 여기에 외래 종교가 들어와 함께 어울리는 믿음의 어울림터를 인정한 셈.

갑천은 증앙을 흐르는 내

횡성 지역에 가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강신터에 와서 태기산의 산신에게 이바지를 드렸을 게 분명하다. 그로 말미암아 농사는 뜻대로 풍년이 들고 나라는 평안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키워 나아갔던 것일 게다. 옛적의 여름지이 시대로 올라 가면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으며 이런 일이 거듭되어 세시풍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한 마디로 신 본위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살았던 터. 갑천이란 땅이름도 무슨 걸림이 있는 듯하다. 본 바탕은 물의 이름이나 땅의 그것으로 아예 굳어진 보기이다.

옛부터 불러 오는 갑천의 땅이름은 '갑내'이다. '갑'은 가운데·증앙을 뜻한다. 한가위의 경우만 해도 그러하다. 가운데의 '갑'에 접미사 '애'가 붙어 이루어진 '가배'에서 소리가 바뀌어 '가위'가 되며 여기에 '좋다·크다·제일가다'의 뜻을 보인 '한'이 어울려 '한가위'가 되기에 이른다.

갑내의 '갑'은 신(神)을 뜻하는 갑(검)에서 비롯하여 '갑(검)-갑-값'과 같은 말의 겨레

들을 이룬다. 신이라면 무슨 신인가. 그건 물신이요, 땅신을 속으로 하는 지모신(地母神)의 개념이다. 갑내 —갑천은 횡성에만 있는 게 아니다. 금강의 지류인 대전의 갑천을 비롯하여 강원도 평강에도 갑천이, 지리산에도 갑천이 있는바, 모두 중앙천이란 뜻이 된다. 평강의 갑천에 걸립을 둔 얘기는 횡성의 그것과 비슷하다. 후 고구려의 궁예가 갑작스런 침략에 도망할 때, 내 위에 갑옷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에 갑천이라 불렀다는 것.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말, 특히 땅이름에 사회언어학적인 풀이가 될 수 있다는 불모에서라면 역시 중앙을 흐르는 큰 내, 더 올라가서 지모신 숭배의 소리상징이 아닌가를 상정할 수 있다는 줄거리. 우리 삶에 물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태기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갑내는 골에 골물이 어우러져 원주의 섬강으로 들어 남한강의 또 다른 큰 흐름을 만들어 낸다. 이듬하여 횡성강 댐의 자리가 갑내의 물로 이루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옛 조상들의 뛰어난 슬기가 있었다고. 잠시 횡성강 댐과 관련하여 갑내 주변의 땅이름을 보자.

화전·갑내·금대는 댐을 암시하고

먼저 강물이 모여 담기는 곳에 가마골이 있다. 물이 담기는 가마라면 것처럼 큰 가마솥이 있을까. 물론 땅의 모양이 가마처럼 생길 수도 있다. 이 곳이 갑내 주변의 들로서는 가장 큰 벌판이다. 이 곳에서 나는 쌀이며 누에고치는 고치와 쌀농사에 있어 단연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감은 바로 크고 넓은 분지형 평야 때문이리라.

횡성의 또 다른 이름을 화전(花田)이라고도 하는바, 이는 바로 가마골에 이르는 물돌 굽이에 지금도 화전이 있다. 물에 잠기면 꿈 꾸는 전설 속의 마을이 되고 말겠지만. 꽃 화(花)라 꽃송이가 특 튀어나온 모양으로 물이 돌아 흐르는 곳에 물에 떠내려온 흙이 모이다 보니 코의 모양으로 특 튀어나온 논밭이 되었다는 풀이를 하면 어떨까. 다시 거슬러 오르면 마무리라 하는 물굽이 마을이 있다. 여기에 뜻 있는 이가 있어 독을 막고 논밭을 일구어 많은 쌀을 생산하였다. 가마골에 물이 고이면 마무리 와서 댐의 물이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전해 왔던 터라. 댐이 서는 쪽은 수백(水白)이라는 곳. 물이 회고 잡맛이 없어서인가. 갑내의 물이 물 중에 으뜸이라 갑천으로 불렀다는 이름과 같이 수백의 경우도 그럴지 모른다. 횡성강 댐이 막히고 물이 고이면 횡성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이요 원주 시민들이 마시는 물, 경공업 단지에서 쓰이는 물이 모두 이 댐 물로 채워진다. 낮이면 낮대로 호수처럼 맑고 푸른 물 위에 하이얀

낮달이 뜨고 많은 황새며 청둥오리떼 들이, 밤이면 흐르는 별과 달님이 물 위에 떠올라 잠들었던 태기왕의 전설을 말 없이 미소 짓는 물줄기로 밤을 지새울 것이다.

갑내는 본디 '갑내'라 이르는 이름에서 말미암는다고 했다. 지형으로는 중앙을 흐르는 물이지만 지모신 상징으로라면 물신이요 땅신이라할 섬김의 대상이 된다. 농경사회에서는 지모신 이상 가는 주요한 숭배의 대상이 달리 있을까. 결국 땅과 물을 잘 받들고 보존하라는 조상의 숨은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겨레의 번영이 될 테니 말이다.

'금대'는 비파를 연주하는 무대

큰 바람이 불면 많은 곳에 영향이 가듯 땅이름도 그렇다고 본다. '갑내-갑내'의 경우 물신(水神)상징의 '갑(검)'은 가마골이나 한 지류인 금대천(琴臺川) 흔히 이르는 검두마을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갑·검·금'은 모두 물신이며 조상신을 뜻하는 물신양에서 말미암는다. 일종의 같은 뜻을 밑으로 하는 표기적인 변이형들이 되는 셈이다. '금대'하면 글자 그대로 비파를 연주하는 무대란 말. 신에게 제사를 모시려면 무당의 노래와 기원이 있게 마련. 여기에 바람과 구름의 노래가 어울린 자연의 교향악이라면 어떠하리.

방위로 보아 '검(갑)'의 물신은 북쪽상징으로 드러난다. 갑내(갑내)야말로 중앙천이자 횡성의 동북을 돌아 서북으로 이어지는 북쪽의 강이 된다. 집단무의식으로 보면 우리 겨레들은 두고 온 조상들의 땅이 시베리아며 만주 벌판, 더 거스르면 중앙 아시아의 빛나던 초원(草原)의 영광에 대한 짙은 향수가 있어 그러할지도 모른다. 임금도, 조상신도, 별신양도 모두가 북녘지향성이 강하다. 고려나 고구려가 보기에 값하는 왕조들이었다. 실제로 뜻을 펴 보진 못했을지라도.

해서 북으로 모진 바람이 막히고 따스한 남쪽 들판 어디쯤에 해 밝은 동녘으로 문을 내고 아들딸 낳아 오손도손 살기를 원하는 흐름이 생겼는가. 어답산이 그러하고 가장 깊은 산골로 치는 병지방도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 적어도 왕으로서 태기는 병지방과 어답산에 군사를 놓아 지키게 하고 둔내(屯內) 쪽에 병사의 진영을 주둔케 했던 것도 갑내로 빛어지는 농업생산과 싸움할 때 지리상의 긴 점을 샅기 때문일 것이다. 바르고 깨끗한 어사매-횡성의 정기가 태기산이듯 갑내이듯 굽어져 길이 흐를 일이다.

어사매 (제12호)

제2부 ---- 국난 극복사

애국의 고장 횡성과 3·1운동

— 어사매 편집실 —



「제 2 부」 - 심층기획

에국의 고장 橫城과 3·1運動

第1節 日帝 初期의 橫城

— 3.1운동의 원인—

3·1운동은 우리 겨레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일제의 통치사황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파악한 후에 일제에 항거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분석하여야 하는데 민족적 역량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과 직접 연결된 황성지방의 종교와 교육상태를 살펴보는데 그치겠다.

또 3·1운동은 당초 서울에서 일어난 것이 황성을 비롯하여 전국 모든 지방에 전파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교통과 통신사정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것들을 알게되면 3·1운동의 원인을 자연 파악하게 될 것이다.

1. 일제의 헌병통치

일제는 구한말부터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 우리를 여러 방면에서 괴롭히며 행패를 부리더니 1910년 우리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이후부터는 고을마다 헌병을 배치하여 무단정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행정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지방에서는 道長官(도지사), 그리고 그 밑에 郡守와 面長으로 연결되는 행정체제 그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사법기관이 總督의 지배하에 있어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구실 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사법기관인 法院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하여 뒤틀다는 의미

를 부인하지 못하는 제국주의의 체제일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체제가 더욱 가혹하게 나타나 무단정치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총독부와 별도의 경찰기관으로 조선헌병사령부가 있었고, 지방에는 조선헌병사령관의 산하기관으로서 도에는 헌병대장이 있었으며, 군에는 헌병분견소장 그리고 면에는 헌병파견소장이 있어서 이들이 경찰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때는 경찰서가 따로 없었다. 경찰업무는 조선총독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헌병사령관이 전담하고 있었는데 조선헌병사령관을 警務總監에 임명하여 헌병과 경찰의 두 가지 일을 맡게 했으며 각도에 있던 헌병대장은 警務部長에 겸임하여 지방의 경찰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군과 면에서 헌병분견소장 혹은 파견소장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지, 경무총감이나 경무부장처럼 별도로 경찰업무를 표시하는 명칭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경찰업무는 헌병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그것도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조선총독과 독립된 헌병사령관이 맡았으며 경찰조직의 체계 자체를 총독부에서 독립시켜 놓았던 점은 일제의 무단정치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행정부인 총독부 안에 두고, 행정기관인 경찰은 헌병이 맡게 했던 그 의도는 우리 겨레에 대한 일제의 계획적인 탄압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3.1운동 때 황성에서도 행정기관으로서의 군청이 있고, 헌병분견소가 있었는데 당시 군수는 沈棺俊이고, 헌병분견소장은 渡邊慶三郎이었다.

우선 군수는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실권이 헌병에게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황성군의 당시 재판 관할은 京城地方法院 原州支廳에서 맡고 있었는데 3.1운동 관계 재판서류를 검토하니 당시 원주지청에서는 대개 豫審정도에 그쳤던 것 같다.

여기에서 하나 붙여 둘 말은 이때는 朝鮮苔形令(태형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3개월분의 징역은 90대의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었고, 이 태형은 경찰서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 헌병 분견소장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분견소장도 명목상 가벼운 범죄는 재판하였고, 또 마음대로 때릴 수 있게끔 법령으로 규정해 뒀던 것이다.

즉, 犯罪即決例라는 규정에 의하여 헌병소장(경찰서장)이 법원의 재판에 넘기지 않고 3개월까지 구류를 살게 할 수도 있고, 90대의 태형을 때릴 수도 있었는데 3.1운동 때 특히 태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우리 나라 고을마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2. 종교실태

종교를 검토하는 것은 황성지방의 민족적 역량을 사상적인 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3.1운동 전에 종교라면 모두가 우리 겨레의 편이었고, 우리의 민족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된 것이 없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을 계획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그 임무는 자연 종교기관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황성의 종교는 天道敎, 儒敎, 佛敎, 天主敎, 監理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유교가 종교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으나 편의상 종교 안에 포함시켰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천주교의 문제인데 천주교는 3.1운동때 프랑스 선교단의 지시를 받고 있어서 천주교가 교회조직을 통해서는 3.1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황성에는 서원면에 豐水院성당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성당으로 어느 곳 보다 천주교가 일찍 전래하여 많은 殉敎者를 냈던 곳이다.

황성의 3.1운동에서 그 몫을 담당했던 종교는 天道敎와 監理敎와 儒敎로서 다른 지방에 비하면 佛敎의 활동이 거의 없었다.

天道敎의 활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황성에서는 거의 천도교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당시 황성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大敎區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주방면과 주창방면도 황성교구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내에는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황성면과 隅川面, 甲川面, 安興面 그리고 원주의 소초면과 평창의 大和, 芳林面에 보다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때에 대교구장은 황성면 泳泳浦里에 살고 있던 최종하였는데 황성에는 신재근, 장도훈, 김인경 등 유능한 인사가 교회 운영에 직접 가담하고 있었지만, 李采一, 李東九 등 중앙천도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어서 어디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다는 것이 다른 곳과 비교된다.

이렇게 천도교회가 대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일으키는 훌륭한 배경이 되었으며 서울에서 천도교회가 주동하여 3·1운동을 일으켰으니 그 영향으로 황성 3·1운동도 천도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성천도교회가 황성읍에서나 농촌에서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천도교인의 모임이 아닌 橫城青年會(會長: 趙喆九)가 천도교회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황성천도교회는 현재의 邑下里 天主敎會 근방에 있었다.

다음은 감리교회로 당시 감리교회는 설치된지 얼마 안되어 수십명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는데 불과했다. 그러기에 감리교회가 황성의 3·1운동에 참여는 했어도 대중적

으로 발전시키는 것에는 큰 몫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감리교회의 지도자인 황성면 奈之里의 鄭海環과 邑下里의 卓英才가 참여한 것으로 보아 얼마 안되는 교인이었지만 모두 동원한 흔적이 역력하다.

다음에 儒敎에 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유학자가 없다는 이유로 3·1운동과 유교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3·1운동을 왜 3월 1일로 정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그것은 3월 3일 당시 高宗황제 因山(인산 : 장례식)에 참례하러 지방에서 모여든 유학자의 집회에 힘을 입자는 것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니 말이다. 또 서원면 分1리(구 原城郡 梅湖里)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천도교인도, 감리교인도 아닌 유학자에 의해서 전개되었음을 보면 알 것이다. 또 그해 3월 16일 황성보통학교(現 : 橫城初等學校) 학생들은 고종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가슴에 삼베천을 달고 다녔다는 당시 헌병사령부 기록도 유교적인 풍토를 의미하는 것이겠다. 고종황제가 일본 여자의 독약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니 옛 임금에 대한 충성심인 유교 윤리적 충동은 3·1운동을 전국적으로 전파시키는 사상적 배경으로 중요한 몫이 됐던 것이다. 3·1운동 당시 곳곳에서 書堂訓導가 앞장섰던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 황성 3·1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인경, 金允培, 朴英夏 등은 한문을 가르치던 서당의 교사였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라가 망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마을마다 글방을 차려 놓고 선생을 모셔다가 자녀의 공부를 시켰으니 황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였고, 이 글방에서 배운 유교 철학은 3·1운동때 특히 시골에서 큰 빛을 발휘했던 것이다.

3. 학교교육

3·1운동때 황성에 있었던 학교는 橫城 普通學校가 대표적이었다.

황성보통학교는 원래 황성 客舍에 있었던 花城學校가 변천한 것인데, 3·1운동 당시 4년제 학교였다. 보통학교라면 오늘날 초등학교를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초등학교의 교육수준 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것이었다. 그것은 보통학교 학생이면 대개 가정에서 한문 공부는 마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음악, 미술 등 예능과목은 아니더라도 일반 학술과목은 자연히 높은 수준에서 교육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의 학생도 20세에 가까운 사람이 많았던 관계로 오늘날의 초등학교 아동보다 교육 수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높았던 것이다.

횡성에서는 이와 같은 보통학교 졸업생이 천도교회에 횡성청년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청년회 회장은 趙喆九가 맡고 있었다.

횡성보통학교는 사립학교였던 화성학교를 인수하여 공립으로 발전한 것인데, 이 밖에도 군내에는 사립학교로서 聖心書院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서원초등학교 광동분교의 전신이다. 원래 豐水院聖堂의 부속학교로 세워진 것이나, 이 성심학원은 우리나라 종교계 및 신문화운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횡성보통학교나 성심학교는 신문화의 조류와 함께 생겨난 근대적 교육기관인데 여기서 근대적 민주주의의 사상이 발달하고 있었음은 물론, 그것이 3·1운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외에 마을마다 거의 설치되어 있던 글방이나 書堂도 3·1운동을 일으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중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 3·1운동의 사상적 원인은 근대적 민주주의사상이 월슨의 民族自決主義에 호응하였다는 점도 있으나 지방에서는 봉건적 충성심이 고종황제의 죽음에 자극되어 일어났다는 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시골에 있었던 서당교육은 3·1운동의 원동력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당시 시골에서 근대적 사상인 민족자결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판단일 것이며, 그러한 시골에서도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이니 시골의 사상적 배경은 역시 전통적 서당식 교육에서 많이 찾아야 할 것이다.

4. 농촌의 생활

시골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주요 원인은

- (1) 일제의 헌병정치
- (2)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농민의 착취
- (3) 종교와 학교를 통한 민족사상의 발달
- (4) 高宗황제의 別世에 대한 민족적 감정의 폭발
- (5) 서울의 3·1운동에 자극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것은 3·1운동 당시에 상황을 놓고 검토하여 풀어 낸 원인들인데 보다 큰 것은 우리 겨레가 오랜 역사를 지녀오면서 간직하게 된 민족정신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 민족정신은 구한말에는 의병항쟁으로 나타났고, 일제시대에는 3·1운동으로 연결되어 나타났고, 계속하여 여러 모양의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겨레에게 일본제국주의가 가하는 무참한 탄압과 착취를 참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日本의 착취양상은 농촌에서도 가혹하였다.

당시 농촌의 실태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3·1운동이 일어나기 그 전해인 1918년에 土地調査事業을 끝내고, 일본은 한국 농촌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도 소위 細部測量을 할 때, 일본의 관리나 친일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선량한 농민을 괴롭혔지만, 토지조사사업을 끝내고, 그들은 통계적 숫자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수탈하였다.

예를 들면 東洋拓殖會社를 통해서 農土를 독점한다든지, 혹은 農地稅로서 농작물을 착취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일제는 농토뿐만 아니라 林野도 빼앗고 있었는데 1911년 9월에 森林法을 정해 놓고 소위 國有林區分調査 및 林野調査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산을 수없이 빼앗았다. 특히 私所有林은 제출신고케 했는데 신고서류에 측량도면을 첨부하게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붙여, 실제로 산을 가진 사람도 일본의 관리나 친일파 혹은 특별히 유식한 사람이 아니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것은 산에 대한 측량도면을 만들자면 오늘날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농촌 사람들의 수준으로 더욱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판단이 갈 줄 안다. 그리고 사유림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계측량을 할 때, 좋은 산은 국유림에 편입시키는 등의 착취행위를 예사로이 했으니 농민의 항일의식은 점점 높아만 갔다.

그렇게 대부분의 임야는 국유림으로 만들어 놓거나, 친일파의 소유로 확정시켜 놓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共同墓地制, 화전경작의 제한, 임산물 채취의 제한 등의 조치를 엄격히 실천하니 농민의 생활은 한없이 구속을 받았다. 위의 것들은 표면상으로 보면 좋은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국유림이나 친일파의 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당시 농민의 일상생활에서 써야 할 나무는 어디에서 구하여야 한 단 말인가.

결국 친일파나 일제의 관공서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얼마간의 나무를 구할 수 있었고 아니면 일본관리의 눈을 피하여 나무를 훔치다시피 해야만 했다. 이렇게 억울한 농민이 3·1운동 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면 쌓인 울분을 한 번 터뜨려 보지도 못했을 것이 아닌가.

농민을 착취하는 것은 酒稅와 煙草稅 등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3·1운동 당시의 道稅(당시는 新作路라고 불렀다) 공사에서도 나타났다. 값싼 품삯으로 일을 시키거나 부역으로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3·1운동 무렵 황성에서는 江陵으로 가는 문재와 전재를

넘는 길과, 隅川面 牛項里에서 원주 소초면 平庄里를 통하여 경기도로 가는 길을 닦아 1918년부터 개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原州에서 鎭성으로 오는 길은 春川으로 통하는 길로서 原州~橫城간의 도로는 거의 지방농민들의 부역에 의해서 닦은 길이다. 이러한 것 외에도 농민들이 받은 고통은 많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만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농촌생활을 영위하던 우리 농민들은 곳곳에서 測量技手나 일제의 관리들과 싸움을 벌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3·1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던 것이다.

5. 교통과 통신

3·1운동의 분위기는 鎭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성숙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高宗황제가 毒殺되었다는 소문에 의하여 촉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디서나 꽃터질 것 같았다. 이때에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터져 나오니 전국적으로 번져 온 거레가 일어나 항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鎭성의 교통과 통신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통신으로서는 당시에 橫城邑에 郵便所가 있었고 전화는 행정전화로서 헌병분견소에만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교통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편면을 통과하여 강릉으로 가는 길이 막 개통되었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길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으나 아직 자동차는 다니지 않았다. 해서 鎭성에서의 서울과의 교통은 걸어서 양평을 거쳐가지 않으면, 원주의 文幕을 지나 문막에서 약 20리쯤의 富論面의 관할인 고려때부터 유명한 서울로 가는 배터가 있었으니 배를 타고 가기도 했다.

원래 그 배터는 고려와 근세조선 때 정부가 설치한 교통으로서 주로 조세를 거두어 나르는데 많이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배터에는 정부의 창고인 漕倉을 지어 두었는데 부른 것을 興元倉이라 하였다.

第2節 3·1運動의 발발

鎭성에서는 3월 12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여 3월 27일에 첫 번째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고, 뒤 따라서 4월 1일 2일 3차에 걸쳐서 鎭성읍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시장 철폐운동이 있었고 4월 12일에는 서원면 分1리 (현 梅湖里 : 82年 원성군에 편입됨)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져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 정면으로 항쟁하였다.

그러느라 수 명의 독립지사가 피살되고 수십명이 부상하였으며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 일제헌병에게 잡혀 모진 고문과 태형을 받았다.

혹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죄없는 죄수로서 고통을 겪었다. 그 중에서 姜萬馨지사처럼 옥중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황성의 운동은 곧 이웃 고을로 번져나갔으니 그것들 중에서 황성의 운동과 직접 연결된 것이 두곳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 중, 소초면의 운동은 4월 5일이었는데 4월 1일의 황성 장터의 운동이 연장된 것이고 평창의 운동은 4월 4일과 5일에 전개하려던 것으로 4월 3일 비밀이 탄로되어 관계자가 모두 잡혀 성공치는 못했으나 이것이 3월 12일부터 황성에서 독립선언서를 배부할 때 평창까지 배부한 결과이니 역시 황성 운동의 연장이었다.

황성의 3·1운동은 당초 천도교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서울의 3·1운동은 곧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졌는데 황성의 경우는 황성 천도교의 출신으로 道訓이었던 李采一과 議事員 李東求는 서울 천도교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동구는 서울에서 3·1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3·1운동과 천도교회의 활약에 대해 소식을 비교적 자세히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전국 각지방에 독립선언서를 우편으로 보냈었는데 그것이 어떤 곳에서는 미리 발각되기도 했으나 어떤 곳에서는 발각되지 않고 전달되기도 했다. 대개 지방의 천도교인이나 기독교인 혹은 그곳 청년회 대표에게 보냈는데 황성에서도 그런 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

그것은 황성읍 반곡리에 거주하던 朴淳紀 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는 당시에 橫城邑에 회계서기로 있으면서 황성청년의 총무로 있었는데 자기에게도 독립선언서 한 통이 보내왔더라는 증언으로도 알 수 있다.

1.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배포

당시 황성 천도교회는 대교구로 교구장은 崔宗河였으며, 천도교의 지도층 인사는 奉訓이던 申在根, 張道勳, 金麟卿, 姜達會, 姜萬馨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강달회와 강만형은 원주 소초면 둔둔리의 사람이나 당시 황성 천도교회가 원주·원성을 통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회가 주도한 황성의 3·1운동에 가담하였던 것이며 또 둔둔리는

원주땅이라하여도 특히 과거에는 횡성 생활권에 속해 있어서 장날도 횡성장날을 이용했기 때문에 횡성 3·1운동에 가담했던 것이다.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고 3·1운동을 추진하던 곳은 횡성읍 읍하리에 있던 천도교회 敎區室과 永永浦里 441번지 신재근의 집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玉洞理에 있던 황소아줌마가 경영하는 주막으로 자주 옮겨 한적한 곳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처음에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기 위하여 최중하, 신재근, 장도훈이 협의하여 3월초에 당시의 돈 3원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그리하여 장도훈은 서울에서 의사원으로 활약하던 이동구를 만나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3월 11일 횡성에 돌아왔다.

당초 독립선언서를 가져 온 것은 장도훈이 재판석에서 말한대로라면 40매였고, 태극기는 20매였다.

그리하여 3월 12일과 13일부터 독립선언서를 여러곳으로 배부하였으며 동시에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 독립선언서와 태극기의 배부, 그리고 만세운동의 추진은 약 10일간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는 자체 제작으로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났을 것이다. 실제 公根面 梅湖里 李東九같은 사람은 태극기를 만들어 面民에게 돌리며 4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토록 했다.

첫 번째의 만세운동은 3월 27일(음력 2월 26일) 전개되었다.

원래 운동의 추진은 읍하리 천도교회 교구실과 영영포리 신재근의 집을 중심으로 일제관헌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순조롭게 추진되었는데, 3월 16일 횡성 보통학교의 학생 일부가 가슴에 喪章을 달고 일제에 대하여 무언의 시위를 벌인 일이 생겨 좀 늦어진 듯 한다.

당시 조선 헌병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보낸 보고문에 보면 「3월 16일 횡성 보통학교의 학생이 高宗의 죽음에 弔意를 표시하는 뜻으로 삼베천을 달고 다녔다.」고 나타나 있으며 이것 때문에 조선군 사령관은 3월 12일 이후 춘천에 주둔해 있던 步兵 79연대의 병력 일부를 원주로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횡성군내에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고, 따라서 만세운동의 추진도 더욱 신중을 기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3월 12일부터 약 10일간 각 지방에 연락하고 계획을 추진할 때 당시 영영포리 區長 魏昌來가 신재근의 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세운동의 비밀을 보장해 줬다는 점은 고마운 이야기 일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할 때 각 지방에서 참가하고 있던 사람은 다음과 같다.

황성읍 읍상리 崔宗河(43세) 천도교 교구장

" 읍하리 尹泰煥(22세) 청년회원

" " 卓英才(?) 감리교인

" 읍상리 全聖洙(34세) 천도교인

" " 崔東壽(?) 청년회원

" 영영포리 申在根(64세) 천도교인

" 내지리 鄭海環(43세) 감리교인

우천면 두곡리 金明起(?) 유학자

" " 金振大(?) 유학자

갑천면 매일리 金允培(56세) 천도교인

안흥면 안흥리 千善在(78세) "

" 상안흥리 張道勳(49세) "

" " 金麟卿(38세) "

" " 安敬春(20세) "

" 가좌곡리 金演儀(21세) "

우천면 하산전리 趙常烈(49세) "

" 법주리 姜勝文(?) 천도교인

소초면 둔둔리 姜達會(51세) "

" " 姜萬馨(28세) "

" " 河永賢(?) "

" 교항리 秋秉學(47세) "

" " 秋秉倫(45세) "

갑천면 추동리 崔養玉(26세) 천도교인 재경인사

" 매일리 金治正(?) 유학자

위의 분 중에서 강달희(士文)와 하영현(돌림) 그리고 강승문(사윤) 또한 김치정은 4월 1일 만세 운동때 피살되었고, 최종하·신재근·장도훈은 2년의 징역을 살았고, 정혜경은 1년 6개월, 김인경·조상열·전성수·김윤배·김연의·안경춘·강만형은 8개월, 윤태환·추병륜은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 강만형은 옥사했다. 그리고 최양옥은 상경하여 扶韓青年團長·共鳴團長 등을 거치며 독립운동에 투신 눈부신 활약을 한다. 또한 탁영제·최동수·김명기(사극), 추병학은 만세운동 후에 숨어버렸다. 앞에 말한

사람들의 조직은 최종하·신재근·장도훈을 중심으로 세갈래의 계통이 뚜렷하다. 그 하나는 천도교 계통이며 이 천도교 계통은 김인경, 김윤배등 천도교인이면서 한문 학자로서 서당 訓導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통 사극씨로 알려지고 있는 김명기같은 유학자를 포섭하였다. 김명기는 두곡리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천면에서 명망이 높은 인사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해경·탁영제 등의 감리교 계통이었고, 또 하나는 윤태환등 청년회 계통이었다.

지역적으로는 다섯갈래로 분류된다. 황성읍이 하나이고, 우천면과 안흥면 서부(하산 전리-가좌곡리등) 그리고 안흥면 동부(전재동부), 또 갑천면이 그 하나이며 마지막으로 원주 소초면이 하나였다. 소초면은 거의 둔둔리 한 마을에 국한되나 둔둔리의 중심인물 강만형의 매부이며 강달희의 從孫婿가 되는 교항리의 추병학과 그의 동생 추병륜이 포섭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인경은 원래 평창 大和면 雲橋里(당시는 芳林面이었고 모두 대화면에 합쳐 있었다) 사람인데 안흥에서 書堂(글방) 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기록을 검토하니 독립선언서 12매를 평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선언서는 평창 운교리에 살던 李麟榮에게 전달하여 이것을 계기로 평창의 만세운동이 추진되었다.

황성의 만세운동은 이와 같이 평창 만세운동을 유발시켰고 또 4월 5일 소초면에서 따로 운동을 일으키게끔 하였으니 평창과 소초면의 운동은 황성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황성운동은 앞에서 말한 운동 외에 서원면 分一里(현 梅湖里)에서 단독으로 일으킨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원주 地正面 建登面(현 문막읍) 방면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유학자 혹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分一里 운동의 중심 인물은 다음과 같다.

- 257번지(향산) 宋秉箕(28세) 정역 10월
- 247번지(향산) 成泰鉉(29세) " 8월
- " (") 朴民喜(41세) "
- 359번지(상촌) 柳定根(40세) " 7월
- 492번지(수동) 李正憲(26세) " 6월
- 158번지(상촌) 李斗淵(39세) " 6월
- 499번지(수동) 李種禹(40세) "
- 119번지(") 金玉鳳(40세) "

이상이 分一里에서 만세운동을 추진하는데 중심인물이었다. 그 중에서 김옥봉은 그 곳에서 술집을 하던 사람으로서 합의장소를 제공했다는 죄목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2. 3월 27일의 운동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표 33인에 의하여 주도된 3·1운동의 독립선언서는 崔南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를 탄압하고 착취하던 것에 비하면 너무 온건적이었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것이다. 독립선언서가 그와 같이 온화한 문구로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을 어떤 사람은 非暴力에 의한 평화적 민족운동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규정일 것이다. 33인은 평화적 운동을 계획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지방에서는 폭력운동을 계획했었고, 힘으로 맞서 싸운 것이 틀림없다. 독립선언서가 너무 온화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으로 지방에서 너무 과격하게 전개 될 운동도 어느 한계에서 머물렀던 것이다. 만일 독립선언서가 과격한 것이 었더라면 3·1운동은 보다 더 활발한 민족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횡성에서도 처음에는 독립선언서가 밝히고 있던 것과 같이 평화적 시위 운동에서 출발하였는데, 처음의 만세운동은 3월 27일에 있었다. 이 날은 음력 2월 26일로서 횡성 장날이었다.

그런데 우선 당시 일제측에서 기록으로 남겨둔 보고문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당시 일본 헌병사령관(경무총감)의 비밀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27일 횡성시장에서 12명이 옛날 한국기를 흔들며 운동을 개시하기에 관계자 8명을 검거하였는데 시장의 각 상점은 문을 닫고 있다. 원주에서 헌병 3, 보병 4명이 응원차 왔다.」

그리고 3월 27일 당시 강원도 장관이 총독에게 보낸 전신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오후 한시 횡성읍내 시장에 약 300명이 집회하여, 천도교도 8명과 그 외 4명이 옛 한국 국기를 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르기에 천도교도 8명을 포박하다」

위의 보고문을 보면 이 날 만세운동의 선두에 섰던 사람은 12명이었던 모양이며 오랜 시간동안 운동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 날 선두자들의 판결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3월 27일 관계자의 판결문은 다섯 사람것 밖에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신재근(2년), 장도훈(2년), 안경춘(8개월), 강만형(8개월), 윤태환(6개월)의 판결문인데 원주지청에서 豫審을 거쳐 그해 5월 1일에 京城地方法院에서 위에 명시한 대로 징역을 선고 받고

復審법원과 高等法院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서류심사로서 기각되었던 것이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10일경 영영포리 신재근의 집에서 신재근과 장도훈이 협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펴기로 결정한 후,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서울에서 구입하기로 합의하여, 신재근은 구입자금 3원을 부담하고, 장도훈은 서울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구입하여 오기로 했다. 그리하여 장도훈은 3원을 가지고 선언서 40매와 태극기 20매를 가져 와서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에서 강만형과 안경춘이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다음에 윤태환이 동의하여 같이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렇게하여 3월 27일 횡성 장날 윤태환이 큰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나섰으며 그 외 모두가 군중을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위의 몇가지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한 두가지의 해석을 하며 또 문제를 제기해 둔다.

(1) 3월 27일의 운동은 독립선언서에 밝혀 있는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만세를 부르는 정도의 범위를 못벗어 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헌병사령관의 보고문에 장터의 상점은 모두 폐쇄하고 있다는 구절도 있고, 또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상점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은화하게 만세를 부르는 정도로 그칠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고, 민중의 준비태세도 상점의 문을 닫고 덤벼들은 그 인원이 3백여명에 이르렀다면 지도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어떠한 시위 행동으로 변할지 알수 없었던 급박한 분위기가 있었음이 사실이었다.

(2) 그러나 상점 문을 닫으며 준비에 들어 갈 때가 거의 점심때였고, 이것을 눈치 챈 횡성 헌병분견소에서는 원주에 급히 연락하여 헌병 3, 보병 4명을 불러들여 그들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중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3) 이러한 때 오후 한시경 윤태환이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높이 세워들고, 따라서 지도급 인사가 같이 군중 앞에 나타났고, 신재근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했다. 이것은 우선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서울에서 있었던 모양을 모방한 절차이기도 했다.

(4) 그런 때에 일제 헌병이 몰려 왔다. 그러니 모두들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게 됐고 선언서는 읽을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되니 앞에 나섰던 지도급은 잡혀가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만세운동에 경험이 없던 군중도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우선 해산하여 다음 계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5) 이날 독립선언서도 읽지 못하고 만세운동도 치열하게 전개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에 헌병분견소는 지금의 군청 뒤 3·1공원에 옛날 횡성현감, 그리고 1895년부터는 橫城郡守가 사무를 보던 東軒에 있었고, 만세군중은 장터(지금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거리가 좀 멀다는 것만 생각하고 독립선언서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 줄 판단하여 선언서를 읽어서 군중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을 충분히 알리고 격려하려던 것이 뜻밖에 일제 헌병이 빨리 몰려 왔기 때문이다.

(6) 그러나 이 날의 운동은 장시간 계속하지 못하였어도 이것이 횡성군내 마을에 전해져서 만세운동을 더욱 발전하게 됐고, 또 이것을 주동하던 천도교인도 보다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 감리교인과 연합하여 4월 1일의 큰 규모의 치열한 운동을 가져오게 한다.

(7) 여기에서 3월 27일의 주동급의 사람 중에서 2년에서 6개월까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을 소개해 둔다.

申在根은 당시 64세의 노인으로서 횡성읍 영영포리 441번지에 살았는데, 횡성 천도교회의 奉訓으로서 천도교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3·1운동때도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

長道勳은 당시 49세로 안흥면 상안흥리 240번지(물안골)에 살았는데 장도훈은 원래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안리 사람으로 1907년에 안흥에 이사왔다. 평안도에서 을사 보호조약에 반대한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당시 평안도 지방에서 의병대장으로 이름 높았던 柳麟錫의 고향인 강원도에 찾아와 안흥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는 2년간의 징역으로 고생한 후 안흥에 돌아와 있다가 1937년 2월 8일 작고하였다. 후손들이 안흥면 月峴里 「등자치」에 아들 張基乙과 張基丙이 살았다.

安敬春은 일명 承勳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20세로 역시 상안흥리 641번지 「배나무골」에 살았다. 그는 장도훈과 김인경에게 글을 배운 청년으로서 3·1운동에 참가했는데 8개월의 징역을 마친 후, 고향에 돌아와서 살다가 1968년에 작고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는 심하고 공연한 간섭으로 사람을 괴롭히니 안경춘은 그들의 눈을 벗어나기 위하여 四柱 같은 것을 보며 세월을 보냈다. 다른 경우에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더러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여 「점장이」 「술장사」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흑간 철 없는 사람들이 욕하는 수가 있으나 그것은 친일파가 아니면 무식한 탓이 아닐 수 없다. 후손으로서 그의 아들 安成晩이 상안흥리 「버리소골」에서 살았다.

姜萬嚮은 당시 28세로 원주 소초면 둔둔리 223번지에 살았었다. 그는 구한말 의병으

로 청일면 춘당리 「春堂고개」에서 왜경과 싸우다가 전사한 姜道永의 아들이며, 4월 1일 만세운동때 피살당한 姜達會(士文)의 증손자이다. 그들의 집안이 모두 천도교 가문으로서 특히 강만형은 아버지가 일본군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반일감정은 누구보다 더했다. 그러한 관계로 횡성 현병분견소에서도 심한 고문을 받아 병중에 8개월의 징역을 살다가 1920년 2월 28일 서대문 옥중에서 작고하였으니 29세의 젊은 나이였다. 그의 후손으로 아들 姜伯先이 원주시 학생동에 살고 있었다.

尹泰煥은 당시 22세로 횡성읍 읍하리 68번지에 살고 있었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최종하, 탁영제와 더불어 여러차례 협의 후 3월 27일 제일 먼저 만세운동에 몸을 던졌다. 혹간 윤태환이 4월 1일의 운동에 활동한 것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있으나 판결문을 봐도 3월 27일이며 그의 부인 金聖培 할머니가 횡성읍 갈풍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증언도 분명히 음력 2월 26일 (3월 27일)로 기억하고 있으니 4월 1일 운동때로 아는 것은 착각인 것 같다. 4월 1일은 그의 형 尹錫煥의 활약이 배후에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김성배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윤태환은 3월 28일 아침에 잡혔고, 재판기록에 따르면 6개월의 징역형을 겪어야 했다.

3. 4월 1일의 운동

4월 1일의 운동은 3월 27일의 운동이 발전하여 전개된 운동이다.

3월 27일의 운동에서 횡성 천도교회의 지도급이 체포되어 현병들에게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남은 교인들은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시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아직도 배후에서 조정하던 횡성 천도교회 대교구장 최종하가 있어서 보다 조직적인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감리교회 지도자 鄭海環과 卓英才가 연락하여 더욱 규모가 넓혀졌으며, 천도교회에서도 우천면 법주리의 姜勝文, 안흥리의 김인경, 가좌곡리의 金演儀, 하산전리의 趙常烈, 감천면 매일리의 金允培, 횡성읍 읍상리의 全聖洙, 원주 소초면 둔둔리의 姜達會, 河永賢, 그리고 교항리의 秋秉倫형제 등이 죽음을 각오하고 4월1일 장날 만세 군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밤낮 산을 넘으며 활동했다. 특히 3월 27일 장사 하러 횡성장에 왔던 당시 영월군 양변면 주천리 金聖西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金允信은 모두 천도교인이기에 장사도 버리고 4월 1일 만세운동을 위하여 장사를 가장하고 마을을 다니며 활약했으니 그들의 공적도 컸던 것이다.

또 감천면 매일리 잔골에서 「잔골서당을 열고 있던 金治正은 제자 신건순 등 문학생을 대동하여 나서기도 하였고, 공근면 매곡리에 살던 李東九는 면민에게 태극기를 만

들어 돌리며 참가를 유도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이번 장날 구경거리가 많다」고 민중에게 호기심을 불러 넣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만세 운동에 참가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놓을 것이라」고 협박도 하며 4월 1일 장날에 많은 인원을 모으기에 천도교인이나 감리교인 모두가 힘을 쏟았다.

이리하여 4월 1일 (음력 3월 1일) 멀고 가까운 곳에서 대목장 같은 군중이 모여 들었다.

당시 강원도 장관의 보고에 만세군중만 1천3백명으로 추산하니 만세군중 외에 장사꾼도 있었을 것이고 구경꾼도 있었을 터이니 수천명의 장꾼들이 모였을 것이다. 우선 당시의 보고에 나타난 인원은 국제적 체면관계로 인원을 줄여 보고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니 강원도 장관이 보고한 1천 3백명보다 훨씬 많은 만세 군중이 모였을 것이다. 아무튼 천도교회가 감리교회와 연합하였고, 3월 27일의 운동을 교훈으로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보람은 수천 군중을 동원했다는 사실에서 일단계 성공하였다.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모여드는 나라 잃은 백성, 일본의 말발굽에 밟힌지 10년, 그동안 갖은 고생을 겪으며 참아왔던 백의민족의 행진이 횡성 장터로 모이기 시작했다.

일본 군대에 끌려가기 위함도 아니고, 징용이나 징발에 끌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함이고, 횡성에 주둔하여 갖은 행패를 부리는 일제 헌병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였다.

군중이 온 장터에 가득 찰 때까지 모두들 기다렸다.

그리고 장터로 들어오는 길목과 장터 요소 요소에는 주로 천도교인들이 파견되어 이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혹간에는 얼빠진 수작으로 만세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민족의 이름으로 질책도 하였다. 여러곳의 술집에서는 돈이 아까우랴, 술을 받아 너도 주고 나도 마신다. 당시 修路工夫였던 전한국은 장터 「한농옥」 술집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술을 받아 준다. 횡성읍 玉洞里 한치고개에서 술을 팔던 여자 황소아줌마(황소갈보)도 술판에 어울려 만세운동을 역설한다. 지금의 3.1광장 부근에 있던 黃龍九의 술집에서도 만세 운동을 역설하는 소리가 높다.

이리하여 만세 분위기는 익어 갔고 따라서 원주에서는 일제 군대가 증강되었다. 점심 때가 지나도 군중은 갈 생각을 안하고 저녁때를 기다린다.

날이 약간 저물기를 기다렸던 것은 군중의 심리나 일제 헌병들의 심리나 같았다.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3.1운동이 일제의 극악한 무력시위로 이미 폭력화 되어

가던터이라, 군중은 총을 피하기 좋다는 생각에서 저녁때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헌병은 이 평화적 시위행렬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좋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바로 4월 1일은 조선군사령관이 「강력히 무기를 사용해서 폭동을 조속히 진압하라」는 특별명령을 발표한 날이었으니 헌병들의 태세도 그들대로 비상한 것이었다.

낮에 군중의 동향을 본 일제헌병은 잔인하게도 총을 쏘는 계획 등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과 대처의 한도막을 보면 우선 일본 민간인과 헌병들의 가족은 당시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李珪和의 집에 숨겨 놓았다. 이것은 이규화노인의 직접 증언에 의한 것인데 당시 그의 집은 지금의 군청 뒷편 언덕에 있었던 관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에 황성면 회계서기로 있던 朴淳紀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면사무소의 중요서류는 이미 낮에 비상 반출하여 숨겼으며 낮에 면서기를 소집하여 당시 沈相俊군수와 金錫煥면장이 앞에 나서 심상준군수가 「오늘 총소리가 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몸조심 하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또 최양옥은 이미 일본경찰이 낮부터 사격준비를 갖추고 3.1공원 숲속에 배치되었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낮부터 무기도 없는 백성을 상대로 전쟁과 같은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무기는 없더라도 침략자를 몰아 내려고 했던 것이며 그들에게 동정을 구하고자 한 것도 아니니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인 군수와 면장의 태도는 다른 곳의 군수와 면장에 비하여 너무 친일적이었다.

당시 伊川군수 李文夏같은 사람은 군중이 만세를 부르려고 모여들 때 그 앞에 나가 울면서 하소연 했는데, 그것은 만세운동의 제지라는 이유보다 이문하군수의 말대로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억울한 백성의 죽음을 예상하여 군중앞에 나와서 울었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 군수는 형식적으로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 군중에게 위협을 알려 줬던 것이다. 그런것에 비하면 황성군수는 너무 냉담했던 것이 주목된다.

하여튼 4월 1일 때는 접어들어 네시를 넘어섰을 때다. 군중은 집단을 만들고 장터에서 쌀가게를 하던 조홍열은 집을 고치려고 준비했던 석가래 나무를 잘라서 군중에게 나누어줬고, 윤석환은 장작을 배급하였으며 몽둥이를 못된 사람은 아무집에서라도 적당한 끈봉을 쥐고 여기 저기 모였다.

10년동안 참아온 군중의 분노를 머금은 눈동자는 뒷산 헌병분전소를 응시했고, 군청을 살폈다. 골목마다 꿈틀거리는 무거운 행렬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참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 누가 먼저 외쳤던가, 탁영재라고도 말하고, 조홍열이라고도, 혹 鄭斗澈이라고

도 한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와도 좋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 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그리고 군중은 장터에 있던 게시판을 물론이요, 군청과 면사무소에 있던 게시판을 부수면서 군청쪽으로 몰려갔다.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았다. 술집도 문을 닫았다. 횡성에서 유일하게 있던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인 「角田」도 만세 군중에 의해 불타고, 현병보조원 감독으로 있던 이규화는 군중에게 매를 맞고 도망쳤으며 말을 달리며 군중을 해산시키려던 소도로(小島)상등병은 崔東壽에게 잡혀 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金振大노인은 담뱃대로 현병을 때리며 호령하였다. 김진대는 김명기의 아버지로 당시 우천면 두곡리에 살았다.

군중은 군청앞에 있던 泰豊樓 앞에 모여 길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이때 뒷산(현 3.1공원)에 잠복해 있던 현병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군중의 움직임은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분노와 울분에 찬 10년 동안의 한이었기에 총소리에 멈출 수는 없었다. 군중은 다시 일어났다. 황용구의 술집에서는 총소리에 놀라 들어 앉아 술이나 먹던 몇몇 남자들이 옥동에서 온 황소아줌마가 소리치는 바람에 다시 뛰쳐나왔다. 이날 황소아줌마는 칼을 들고 다니며 운동을 재촉했다고 한다. 앞에 말한 천도교인과 감리교인은 물론 시장의 상인도 시골의 농민도 모두 나서서 만세를 부르는데 점점 날이 저물어 갔다.

이 때 또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그리하여 선두에 섰던 당시 수로공부 전한국이 쓰러졌다. 그리고 여기 저기서 피를 쏟으며 쓰러진다. 범주리의 강승문(사윤)을 비롯하여 둔둔리의 하영현(돌림) 강달회(사문)등이 곳곳에서 쓰러진다. 그리고 매일리의 김치정도 쓰러졌다.

이러한 아수라장을 기회로 현병과 보조원은 장터로 내려와 군중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당시 일제측 기록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현병사령의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오후 일곱시경 횡성읍내에서 약 1천명의 폭민이 봉기하여 곤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관공서와 상점을 파괴하기에 보병과 협력하여 발포 해산시켰다.」

강원도장관의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횡성읍내에서 어제 오후 다섯시부터 여덟시까지 사이에 전후하여 2회에 걸쳐 약 1천3백명의 폭민이 집합하여 손에 곤봉을 들고, 돌을 던지며 시장의 상점문을 파괴하고 관공서를 습격하여 폭행함으로써 처음에는 주도자를 체포 해산시켰으나 다시 같은 방법

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무기를 사용하여 해산시켰는데 폭민에게 사상자가 있다。」

위의 보고문에서 상점을 파괴했다는 것은 만세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고 군중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부 상점은 친일파라고 공격한 것을 말하며 관공서를 습격했다는 것은 면사무소에 돌을 던진것, 그리고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돌을 던지며 군중이 공격하였던 것을 말한다. 아무튼 날은 이미 어두웠고 여기 저기에서 총에 맞아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속에 탁영재, 김명기, 최동수 같은 사람은 멀리 도망쳐 나타나지 않았고 부상자는 피를 흘리며 그래도 왜놈에게 잡히기 싫어서 몰래 집으로 갔다. 한편 사망자 4명은 면사무소(지금의 면사무소 앞에 있었다) 마당에 운반되어 거지의 시체마냥 거적으로 덮여 있고 중상자는 당시 朴寅春과 동업하던 沈容求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심용구의 병원은 지금 양조장 자리에 있었다.

이 날 피살자 5명 중 4명은 즉사했고, 1명은 집에 돌아가서 죽었다. 그리고 심용구의 병원에 입원했던 인원은 그해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의 정곡면(안흥면) 안흥리 千善在의 판결문(판결문 책 제13책)을 보니 8명이었다고 하니 부상자가 그외에 얼마나 더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부상자 중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집으로 도강쳐 버렸고, 그 후에 헌병의 감시가 심해서 부상 된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우천면 추동리에 살고 있던 윤동선은 당시 영영포리에 살면서 이날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목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잡혀가서 매를 맞고 나왔다고 증언하는 것을 봐도 알 만한 일이다.

피살자도 이날 밤에 모두 그 마을 사람들이 시체를 모셔갔는데 둔둔리. 사람들은 하영현과 강달희의 시체를 안고 밤길을 촛불로 밝히며 돌아가 사흘간을 지냈으며, 원통한 울음도 제대로 울지 못하고 장사를 지내야 하는 억울한 울분은 드디어 이를 뒤에 다시 만세운동으로 전개되었으니, 그것이 4월 5일 소초면 만세운동이다.

그리고 갑천면 매일리 김치정의 시체도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잔골 사람들에 의하여 운구되어 매일리 마을 뒷산에 비분속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4월 1일 만세운동으로 잡혀가서 태형을 받고 나온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 3·1운동때 태형으로 90대를 맞아서 일그러져 1년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무 일도 못했던 것은 물론, 오늘날과 같이 소독약이 없어서 여름철이 되면서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를 했다. 태형은 거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대에서 처리했는데, 이날 잡혀서 징역을 산 사람은 천선재(1년), 정해경(1년6월), 김성서(1년6월), 조상열(8월), 김윤신(8월), 전성수(8월), 김윤배(8월), 김연의(순서·8월) 등이다.

그런데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경찰이 괴롭혀 모두 가난한 살림에 고생하였고, 다른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후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좌곡리(현 상하거리) 「구렁마을」에 살던 김연의 같은 인물은 감옥에서 나와 가족과 더불어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에 남은 삶을 바쳤으나 아무도 그후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

또한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귀향하였던 崔養玉은 이날밤 일경의 추적을 피하여 상경하여 임시정부와 연결하여 전국각지와 만주 등에서 부한청년단 공병단장 등으로 활약한다.

4. 4월 2일의 운동

어제 장날 밤까지 만세운동을 벌였던 군중은 잡혀가기도 하고 횡성 장터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날이 새자 2일에는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 달라는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날 시위에 대하여 강원도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오늘 아침 횡성읍 사람 약 2백명이 현병분견소에 몰려와서 독립운동의 허가를 요구하며 또 지금까지의 체포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제 운동하던 사람도 섞여 있을 것임.」

이날은 만세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당시 현병분견소장 度邊慶三郎과 군중대표 鄭鎬鳳, 趙興烈과의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던 이규화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약 한시간 옥신각신하다가 분견소장의 강경한 태도로 군중은 돌아 갔으나, 이때 군중은 대부분 횡성장터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상점의 문을 열지 않기로 합의하고 모두 폐쇄하였다.

그리고 7일에 가서 군수와 분견소장의 간청에 의하여 문을 열었으니 이것은 일제에 대한 무언의 항쟁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강원도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횡성읍내에서는 4월 1일 소요사건이 발생한 이래 조선인 상점은 모두 폐점하였는데, 군수와 현병분견소장의 간곡한 설유에 의하여 7일에 이르러 개점하다.」

그리고 4월 7일 열두시 경에는 장터에 있던 게시판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인다. 체포한 사람을 석방하라.」는 전단이 붙었다는 역시 강원도장관의 보고문이 있는데, 이것을 보아 만세운동의 뒤가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의 상황을 봐서도 알 것이다.

5. 민중의 각성

3월 27일과 4월 1일 그리고 4월 2일의 운동이 있는 뒤, 횡성군내 각 마을은 물론 원주, 평창, 영월에 이르기까지 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집집마다 퍼져 나갔다.

그리고 마을마다 만세운동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었다.

이러던 중 만세운동을 극렬히 변호하고 시국을 이야기하던 사람 가운데는 일본의 앞잡이에게 발각되어 잡혀가기도 했다.

그중에서 더욱 열렬했던 사람은 감옥살이도 했고, 당시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 속에서 횡성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다가 재판받은 사람의 것이 발견된다.

그 하나는 둔내면 자포곡리에서 잡혀와 5월 9일 재판을 받고 8개월의 징역을 산 李奇順의 것이고 하나는 공근면 하갈마곡리(현 매곡리)의 李容泰의 것이다.(판결문 책 제5책)

그리고 마을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었기에 횡성군수와 헌병분견소장은 다음과 같은 비밀 공문을 각 면장과 구장에게 하달하였다.

「비 제15호

대정 8년 4월 15일

횡성군수

횡성헌병분견소장

각 면장
각 구장 앞(殿)

소요사건에 관한 건 內牒」

近時 소요 전파의 상황을 査察한 즉, 읍내는 경비가 삼엄하여 놀아날 여지가 없음을 보고, 경비가 비교적 허술한 지방에 미치려고 하는 영향이 짙다.

그의 주요한 원인은 타군 타도에서 들어오는 나쁜 무리의 선동과 협박에 의한 것이 많다니 유감스럽다.

그들 나쁜 무리가 귀면내에 들어와 선동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곧 힘을 모아 포박하여 헌병에 넘길 것이며, 이것을 관하 일반인에게도 급히 주지시켜 좋은 성과를 올리기를 특별 내첩 함.

위의 공문은 당시 영영포리 구장이던 魏昌來의 아들 魏聖鉉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

6. 4월 12일 분일리의 운동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세운동의 분위기가 군내 마을로 번져가게 됐던 때 서원면 分一里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분일리는 지금의 매호리로 1982년 2월 15일 원성군에 편입되었으나 당시 횡성군의 관할이었으므로 여기에 다룬다.

이 마을에서 시위가 있었던 것은 특히 원주방면의 영향을 크게 입은 듯 하다. 원주는 지금의 원주시와 구원성군을 합쳐 原州郡이라 불렀는데 만세운동의 면에서는 좀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원주읍에서 계획하던 만세운동은 당시 원주감리교회의 미국인 선교사가 헌병과 내통하여 사사건건이 사전에 탄로되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은 당시 각 도 헌병대장 회의서류를 수록하여 간행한 조선헌병사령부의 「조선소요사건」 33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비밀이 번번이 탄로된 뒤에 원주읍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끝까지 한번의 운동도 못일으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원주 사람들은 읍을 벗어나 대개 마을단위로 운동을 일으켜 강원도내에서 가장 많은 회수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또 마을단위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규모의 것들이었다.

그러한 마을단위의 운동은 4월 8일과 9일에 지정면, 건등면(문막읍), 부론면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 서원면 분일리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양의 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조사된다.

분일리는 「鳥項」, 「上村」, 「水洞」, 「香山」 등 네 개의 작은 마을이 합쳐서 이루어진 부락으로 섬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북편에 작은 동산이 있다.

맨처음 만세운동을 계획한 것은 향산에 살던 宋秉箕, 成泰鉉, 朴民禧와 수동에 살던 李正憲이 송병기의 從兄 宋秉昌의 집에 모여 협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위의 네 사람은 향산에 살던 약 50명을 거느리고 향산과 수동 사이의 동산 위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에 상촌에 살던 柳定根, 李斗淵과 수동에 살던 李種禹는 수동 느티나무 옆 金玉鳳의 주막(술집)에서 김옥봉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동산에서 만세소리가 들리니 뛰쳐나가 수동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올라가 같이 만세를 부르니 저녁 아홉시경의 일이었다.

이쯤되니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이들은 산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내려와, 네 개의 마을을 순회하며 밤새도록 만세를 불렀는데 상촌 어느집에서는 마을돌이에 참가

안했기 때문에 군중은 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리하여 군중은 수동에서 상촌, 상촌에서 조항으로, 조항에서 섬강 건너 원주 지정면 무장마을을 향해 만세를 외치고, 다시 조항에서 향산으로 마을돌이를 하면서 만세를 부르다가 날셀 무렵에 해산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밤새도록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강원도장관의 보고에는 4월 12일로 되어 있고, 헌병사령관의 보고에는 13일로 되어 있다.

또 여기는 일본의 관권이 단시간 내에 미칠 수 없는 곳이기에 하루나마 독립된 기분에서 흥겨웠다고 마을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잡혀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은 주동급이 8명인데, 8명 중 김옥봉은 그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성태현, 박민회, 이정현은 후손이 없으며, 송병기의 아들 郭憲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유정근의 아들 陸圭는 서울에, 이두연의 아들 秉文은 상촌에, 이종의 아들 昇浩는 수동에 각각 살고 있다.

여덟 사람 중 송병기는 10월, 성태현과 박민회는 8월, 유정근은 7월, 그리고 이정현, 이두연, 이종우, 김옥봉은 6월의 징역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살았다.

이상으로 횡성군내에서 전개된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는데 이와 같은 3·1 운동은 평창군과 원주시 소초면에 번져 더욱 뜻을 깊게 하였다.

그리고 3·1운동은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게 되어 그후 강력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까지 국내 국외에서 꾸준히 일제의 지배를 공격하였다.

횡성에서도 앞서 말한 최양옥의 활동이외에도, 탁영재 등 감리교인이 중심하여 철원에국단에 가담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활동을 폈고, 신간회, 농민조합, 청년회 활동에도 가담하였다.

횡성읍 학곡리에 살던 貞英儀, 貞雲燁은 해방전 만주로 망명하여 土橋隊(보충대)의 일원으로 해방때까지 활약한다.

그리고 광주학생사건과 상록회 사건때는 당시 횡성출신으로 춘천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白興起는 졸업후 체포되어 옥사하였고, 元厚楨, 沈在瑛, 申鉉彬과 강릉농업고등학교에 다니던 鄭馨澈 등 학생이 가담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퇴학된 일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은 해방 후 명예 졸업장을 받았지만, 일제하에서 이밖에도 허다한 독립운동 관계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많으나 여기서 전부를 밝힐 수 없다.

第3節 獨立宣言書와 33人

3·1 독립운동에서 선포된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표 33인은 다음과 같다.

독립선언서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세계만방에 告하여 인류평등에 大義를 克明하여 此로서 자손만대에 誥하여 民族自尊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반만년역사의 權威를 仗하여 此를 선언함이며 2천만 民衆의 誠忠을 合하여 此를 佈明함이며 민족의 恒久如一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此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氣運에 順應竝進하기 위하여 此를 제기함이니 是天의 明命이며 시대의 大勢이며 전인류 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強權主義의 희생을 作하여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箝制의 苦痛을 嘗한지 今에 십년을 過한지라 我生存權이 剝奪됨이 무릇 幾何이며, 心靈上 發展의 장애 됨이 무릇 幾何이며, 민족적 尊榮이 毀損됨이 무릇 幾何이노 新銳와 獨創으로써 세계 문화의 大潮流에 기여 補裨할 기연을 遺失함은 무릇 幾何이노, 噫라! 舊來의 억울을 선양하려 하면 時下의 高 통을 耀脫하려 하면 將來의 威脅을 芟除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廉義의 압축 銷殘을 흥분 伸張하려 하면, 各個 인격의 正當한 발달을 遂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 게 羞恥의 재산을 遺興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永久 완전한 慶福을 導迎하려 하면, 최대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2천만 各個가 人마다 方村의 刀를 懷하고 人類通性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인도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今, 吾人은 進하여 取함에 何強을 挫치 못하랴. 退하여 作함에 何志를 展치 못하랴. 병자수호조규 이래 時時種種 金石盟約을 食하였다 하여 일본의 無信을 罪하러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我祖宗世業을 식민지시 하고 我 文化민족을 土昧人遇하여 한갓 정보자의 快를 貪할 뿐이요, 我的 久遠한 사회기초와 卓犖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하여, 일본의 小養함을 責하러 아니하노라. 자기의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에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현재를 網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辨을 暇치 못하노라. 今, 吾人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有할 뿐이요, 결코 他的 파괴에 在차 아니하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新運命을 개척함은, 결코 舊怨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아니로다. 구사상 구세력에 기미된 일본 위정가의 功名的 희생이 된 不自然,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여 자연 又합리한 正經

大原으로 귀환케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서 出치아니한 兩國併합의 결과가, 僻境 姑息의 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수자상 虛飾의 下에서 이해상반한 양민족간에 영원히 和同할 수 없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績을 觀하라.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적인 우호적 新局面을 타개함이 피차간 遠禍 召福하는 첩경임을 明知할 것 아닌가. 또 2천만 含憤蓄怨의 民을 위력으로써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所以가 아닐 뿐 아니라, 此로 인하여 東洋安危의 主軸인 4억 支那人의 일본에 대한 危懼와 猜疑를 갈수록 농후케 하여 그 결과로 동양 全局이 共倒同亡의 비운을 招致할 것이 明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正當한 生榮을 逐케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邪路로서 出하여 東洋 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여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 중요한 一部를 삼는 세계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어찌 區區한 감정상 문제리요. 아 아 신천지가 眼前에 전개 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來하도다! 과거 전세기에 鍊磨長養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세계에 來하여 만물의 回蘇를 催促하는 도다! 凍永寒雪에 호흠을 閉蟄한 것이 彼一時의 세이라하면, 和風暖陽에 기맥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세이니 천지의 復運에 際하고 세계의 變潮를 乘한 吾人は 아모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 할 것 없도다. 我의 고유한 자유권을 護全하여 生旺의 樂을 飽亨할 것이며, 我의 自足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春滿한 大界에 민족적 精華를 結紐할 지로다. 吾等이 茲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我와 동존하여, 진리가 我와 竝進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古巢로서 활발히 起來하여 萬彙群象으로 더불어 欣快한 부활을 成遂케 하도다. 千百世祖靈이 五等を 陰祐하며, 전세계 기운이 吾等を 外護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奮進할 따름인저.

공약삼장

- 一. 今日 吾人의 此舉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逸走하지 말라.
- 一. 최후의 一人까지 최후의 一角까지 민족의 正當한 의사를 快히 발표하라.
- 一.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吾人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때까지든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

朝鮮 民族 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羅龍煥 羅仁協 梁甸佰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이상은 趙東杰교수의 「橫城 3·1운동」을 근간으로 하였고 새로이 발굴된 사료를 보완하여 재정리하였다.

趙교수가 집필한 「橫城 3·1운동」을 보면 의혹이 가는 점이 한가지 있다. 즉 횡성의 만세 운동의 희생자는 모두 5명이라고 되어 있고, 3·1운동 기념비에도 다섯분의 지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강만형 의사는 3월 27일 운동으로 피포되어 옥고를 치루던 중 옥사하였고, 4월 1일 운동에서 이날 5명의 피살자중 4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1명은 집에 가서 죽었다고 하였다. 이것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모두 순국한 사람은 3월 27일 운동에서 1명, 4월1일 운동에서 5명등 6명이란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국자로 강만형, 전한국, 강승문, 하영현, 강달회 5명만 적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순국자가 5명이었느냐 6명이었느냐가 문제가 되고 본책의 내용상으로 보아 착오로 인해 5명을 6명으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本誌 편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甲川面 梅日里에 살고 있던 金治正氏가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고 보고 되고 있다. 인물편에서도 소개한 바 있지만 당시 김지사는 유학자로서 향리에서 書堂을 열고 있었으며 이 날 제자들을 데리고 운동에 참가하였고 또 순국했다고 제자들과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다. 물론 이 증언에는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추리를 해 볼 수 있다.

4월 1일 운동에 제자들과 함께 참가했던 김지사는 일제의 무차별 총격에 의하여 쓸어들고 半死상태에서 제자들에 의하여 몰래 집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주민들에 의하여 일경의 눈을 피해 장례지내졌다. 이렇게 보면 조교수가 기술한 1명 집에 가서 죽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횡성의 3·1운동 순국자는 강만형, 전한국, 하영현, 강승문, 강달회 그리고 김치정 6명이라는 새로운 사실에 접하게 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더욱 신중히 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김치정씨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第4節 3·1운동 記念物

○ 3·1운동 기념

橫城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3·1운동 기념비」는 橫城邑 邑下里 3·1공원 내에 있다.

이 비는 1972년 8월 15일에 제막된 것으로 東亞日報社가 창간 60주년기념 사업으로 3·1운동 기념비 횡성군협찬회와 공동으로 건립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春川教育大學 조동걸교수가 「橫城과 3·1운동」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횡성의 3·1운동사를 소개하였다.

이 기념비는 비석 1기와 햇불을 든 조각 1기로 되어 있으며 글은 李熙承 글씨는 徐喜煥 그리고 조각은 金泳仲 선생이 각각 맡았다.

東亞日報社가 횡성에 이 비를 세우게 된 것은 앞서 말한 창간 60주년 사업으로 1개, 도에 1개의 기념비 건립계획에 따라 도내에서 가장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을 우선함에 따라 결정 되었다.

(1) 비문(동아일보사)

<비 문>

一九一九년의 三·一만세는 한일합방에 항거하는 통분한 합성이요. 자유와 독립을 되찾으려는 비상한 절규요,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국권을 유지 계승하려는 당당한 주장이었다.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의 구별없이 한덩어리로 뭉쳐진 거대한 불길의 폭발이었다. 그러므로 삼시간 三千里 방방곡곡에 번져 하늘이 빼개지고 땅이 흔들릴듯한 맹렬한 기세였다. 이러한 정당한 평화적인 쟁기에 대하여 왜적의 탄압은 어떠한가, 잔인하고 악독한 살육과 형벌이 이었다. 이 해 三月 二十七日 우리 橫城에서는 수천 군민이 읍내 장터에 모여 장렬한 태극기의 물결을 이루었고, 잇따라 四月 十二일까지 사이에 각 면마다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던 중 河永賢, 姜達會, 全漢國, 姜勝文의 사는 현장에서 姜萬馨의사는 옥중에서 왜적의 총칼아래 순국의 명령이 되고 말았다. 이 숭고한 三·一정신을 이어 받아 창간한 東亞日報는 유서 깊은 이 곳에 이 기념비를 세워 그 거룩한 정신을 만대의 후손까지 길이 받들어 드높이려 한다.

一九七二年 八月 一五일

東亞日報社

2)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는 「3·1운동 기념비」 바로 옆에 건립되어 있다.

이 비는 화강석 기단 위에 오석으로 된 높이 3m의 아담한 비석모양으로 1984년 11월 22에 세웠다.

「3·1운동 기념비」가 東亞日報社와 횡성군협찬회 등 민간주도형이었다면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는 문화공보부의 독립운동유적지 보존 계획에 따라 文化財管理局이 대상지를 엄선하여 건립토록 한 것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횡성군수가 주관인 뒤 政府가 공인하는 3·1운동 유적지를 기린다는데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385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비문의 글은 金承基 글씨는 尹春植씨가 썼으며 유의할 점은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비가 같은 의미와 각기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 문>

기미년 3·4월 민족의 자존을 짓밟으려는 일제에 항거하여 이 고을 모든 백성들은 일어섰다. 성난 분노는 노도와 같았고 거룩한 함성은 뇌성과도 같았다. 태극기는 하늘을 뒤덮고 의기는 하늘을 찔렀다. 1919년 3월 27일, 4월 1일과 2일 그리고 12일까지 횡성 장터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고을 만세운동은 총칼의 탄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향해 달려가는 뜨거운 여정의 시작이요 햇불이었다. 일제의 잔학한 살육에도 쓸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겨레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 운동으로 河永賢, 姜達會, 全漢國, 姜勝文, 姜萬馨의사가 순국하고 많은 사람이 붙잡혀서 옥고를 치루고 더 많은 사람이 뜨거운 피를 흘리며 오로지 광복과 영광을 위한 씨알로 희생하였다. 그 숭고한 얼과 넋을 기리며 이 비를 세워 영원히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1984년 11월 22일

횡성군수

○ 講林 義兵塚

안흥면 강림리 강림중학교 부지내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講林 義兵塚」은 1900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강점에 항거하여 일어나 독립운동을 벌이던 의병의 묘역으로서, 안흥면 강림·월현·부곡지역과 원성군, 영월군 등 치악산을 중심으로 활약하다가 1908년 2월 29일 전후 의롭게 순국하신 분들을 모셨다.

이들 의병총은 본래 안흥면 강림·부곡·월현리의 곳곳에 산재하였고 당시 일본의 감시를 피하여 애국주민들에 의해 몰래 장례 지내어져 분묘가 보잘 것 없는 데다가 모두가 이름없이 쓰러져간 연유로 연고없는 무연고 분묘로 피해를 있었다.

이에 황성군은 이 지역(강림출장소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1984년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여러곳에 산재해 있던 10개소의 분묘를 발굴 수습하여 후세가 배움을 닦고 있는 이곳 강림중학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 170만원을 들여 안장하고 묘비석을 세웠으며 성역화 하였고 앞으로 민족사의 산 교육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비문은 金承基씨가 글씨는 尹春植씨가 각각 썼다.

<비 문>

이곳 강림의 의병총은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하면서 1907년 구 한국군대를 강제 해산하자 이에 격분한 병사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선 백성들이 의병장 閔背鎬의 지도하에 모여 봉기하였다. 이들 의병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눈부시게 활동하며 조국의 수호신으로 자신들을 불살랐다.

1908년 2월 29일을 전후하여 이곳 안흥면 강림 월현에서 일제와 큰 싸움을 벌였다.

이 의병총은 그 당시 이곳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무연고 의병 열분의 묘를 한 곳에 모아塚을 만들고 묘역을 정화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

1984년 11월

황 성 군 수

어사매 (제12호)

제3부 ---- 수몰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횡성댐 수몰지역을 찾아

— 한국수자원공사 —
강원대학교



『제 3부』 - 수몰지역을 찾아

황성군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계천(桂川)을 막아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황성과 원주지역의 식수문제를 해결하려고 황성댐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갑천(甲川)은 태기산 (1,261m)에서 발원하며, 유동천(柳洞川)은 수리봉(960m)에서 발원한다. 이 두강이 초현리에서 합류하여 서쪽으로 휘어 흐르는 강이 桂川이다. 황성댐이 축조되는 곳은 황성군 갑천면 대관대리와 황성군 송전리를 흐르는 계천이 휘돌아 계곡을 이루는 자리이다. 이 댐이 완공되면 수몰되는 지역은 하류부터 퍼져서 橫城邑 송전리(松田里), 甲川面 대관대리(大官垔里), 중금리(中金里), 부동리(釜洞里), 구방리(舊坊里), 화전리(花田里), 포동리(浦洞里), 매일리(梅日里)등 강을 끼고 형성된 일대이다.

특히 이 곳은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한 흔적이 있어 정든 땅을 떠나야 하는 수몰민들을 안타까워한다. 수몰민이나 이 고장의 후손들에 삶의 터와 역사를 길이 남기고자 수몰지역 문화재와 생태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보고서를 여기 수록한다.

- 편집자 -

횡성댐 수몰지역의 유적조사

최 복 규(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 승 엽(강원대학교 대학원)

이 해 용(강원대학교 대학원)

1. 조사경위 및 조사단 구성

횡성군 갑천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계천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댐 공사가 계획되기 전 부터 강원대학교 사학과 유적조사단에 의하여 실시 되었다. 1990년 이전에 횡성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계천유역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흔적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계천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인류문화 발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조사작업을 진행 하였다.

특히 1991년 3월 4일에는 중금리에서 고인돌 1기를 발견, 조사 하였다. 같은날 중금리 계천 강변의 농경지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간석기 조각, 큰 화강암 자갈들의 한 모서리를 깨내어 밭을 갈 때 쓰는 보습, 그물추 따위를 채집할 수 있었다.

1993년 5월, 계천 일대를 조사하던 중 부동리에서 구석기시대의 팔매돌, 찌개, 굽개 따위를 채집 하였다. 이곳 부동리에서 발견된 구석기들은 제작솜씨나 형태가 중기 혹은 전기 구석기시대의 산물로 추정되는 것이었다. 이때의 조사로 구석기시대인 수십만년전, 계천유역에 이미 구석기사람과 그들이 소유 하였던 문화가 있었음을 입증 하게 되었다. 그밖에 화전리에서도 혈암(頁岩)으로 만든 구석기시대의 찌개를 발견하였다. 앞으로 설명 하겠으나 매우 우수한 솜씨로 만든 것이었다. 이같은 결과로 화전리 일대도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지역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1994년 6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아 지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94년 6-10월에 실시한 고고학 분야 지표조사 과정에서 중금리에서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 산포지를 찾아 청동기 사람들의 집자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중금리에서 새로 고인돌 2기, 화전리에서 고인돌 2기, 구방리에서 간돌화살촉 출토지점을 확인 하였다. 화전리에서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 산포지를 찾아내면서 계천 유역은 어느곳 보다도 선사시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같이 선사시대인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사시대인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한국 고고·역사학계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얼마후에 횡성댐의 건설로 대부분의 유적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여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횡성댐 건설계획 이전부터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원대 유적조사단(단장:최복규 교수)을 구성하여 계천유역을 조사하던 학자들은 수몰지역이 된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수몰되기전에 전 유적에 대한 발굴이 실시되거나 보존조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고분야 지표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책임연구원 : 최 복 규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최 승 업 (강원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생)

김 상 태 (")

이 해 용 (")

홍 영 호 (")

보 조 원 : 최 성 수 · 김 태 형 · 유 순 회 (이상 사학과 3년)

신 윤 주 · 이 은 회 · 최 영 석 · 홍 성 학 (이상 사학과 2년)

안 혜 원 (사학과 1년)

2. 중금리 빗살무늬 · 민무늬토기 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①, 사진 1)

횡성읍에서 441번 지방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개팔고개'를 넘기전에 중금상회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중금리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어귀에는 수령이 많아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으며, 마을 어귀에서 계천(桂川)으로 들어가는 지역 좌우에는 150-200m 되는 얇은 산들이 자리잡고 있다. 비교적 낮은 산 끝자락은 대부분이 논으로 경지정리 되어 있으며, 강가쪽으로 들어갈수록 마을이 넓어진다.

유적은 중금리에서 '능머루'라 불리는 지역으로, 정일화씨 댁 앞에 계천을 따라 길게 펼쳐진 밭 일대이다. 유적의 앞으로는 계천이 흘러가고, 그 건너에는 거문포(319m)를 중심

으로 하여 200-300m 정도의 크고 작은 능선들이 둘러쳐져 있어 아늑함을 더해준다. 강을 낀 주변에는 능선과 어울려 비옥한 넓은 농경지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논으로 경지정리 되었지만, 이곳은 비교적 지형이 변경되지 않은 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선사인들이 삶을 꾸리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적 앞을 흐르는 계천은 여름철 장마를 제외하면 수심이 별로 깊지 않은편이다. 계천으로부터 약 4-5m 높이에 있는 강가둔덕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조각과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조각을 찾았다. 그밖에 그물추, 보습, 펜석기, 간석기조각 등의 석제유물도 채집 하였으며, 밭 한켠에 남아있는 고인돌 1기도 확인 하였다.

2) 유 물

(1) 빗살무늬토기

이 곳에서는 모두 3점의 빗살무늬 토기조각이 채집되었다. 입술부분 1점, 몸체부분 2점이다.

① 입술부분 (그림 2-①, 사진 3-①)

토기의 겉면은 연한 갈색을 띠고, 안쪽면은 짙은 갈색이다. 안과 밖의 토기 빛깔은 깨진면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토기의 안쪽면과 겉면은 끝손질을 잘하여 매끈한 편이며, 운모가 섞여 반짝거리고 있다. 바탕흙은 상당히 고운 편이어서 다른 혼입물은 잘 관찰되지 않는데, 깨진면을 살펴보면 약 2mm 정도의 석영알갱이가 1-2개 눈에 띈다.

토기 겉면에는 얇게 빗금을 새겨 넣었다. 빗금은 왼쪽위에서 오른쪽아래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 기울기는 약 40° 정도이다.

그은 빗금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18-20mm이며, 입술끝에서부터 무늬가 시작되는 부분사이의 거리는 약 4-5mm이다.

입술은 홀입술이며, 약간 바라진 형태이다. 입술끝으로 가면서 두께가 얇아지고, 입술끝은 평평하다.

깨어진진 했지만 입술 가까운데 구멍을 뚫은 흔적이 남아 있다.

구멍은 안과 밖에서 맞닿았는데, 바깥쪽(토기겉면)에서 많이 뚫고, 안쪽면에서는 그보다 덜 뚫은 듯하다. 이는 잘린면에 나타난 구멍의 최소지름이 그릇살 두께의 바깥보다는 안쪽가까이에 위치하며, 구멍의 최대지름도 바깥면이 더 넓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구멍은 굽기전에 뚫은 듯하다.

두께는 입술 끝으로 가면서 얇아져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3.5-9.0mm사이에 든다.

② 몸체부분(그림 2-②, 사진 3-②)

겉면은 짙은 갈색, 안쪽은 연한 갈색을 띠며, 속심은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이다.

토기의 안팎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지만, 속심에서는 바탕흙에 섞인 아주 작은 석영알갱이가 고르게 박혀 있는 것이 보인다. 운모가 토기 안팎면 모두에게 나타난다.

겉면에는 길이 약 11.5-12.5mm정도의 얇은 빗금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아래 방향으로 새겨 넣었다. 빗금의 기울기는 약 30° 정도이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윗단과 아랫단 무늬사이의 거리는 약 4-5mm이다.

두께는 약 7.7mm이다.

③ 몸체부분 (그림 2-③, 사진 3-③)

겉면과 안쪽면이 모두 연한 갈색을 띠는데, 겉면에는 부분부분 짙은 갈색을 보이기도 한다.

속심을 살펴보면, 바탕흙에 비교적 많은 양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토기 겉면의 무늬는 알개 새긴 두 선이 서로 만나는 '물고기뼈무늬'이다.

두께 약 9.7mm

(2) 민무늬토기

이 곳에서 찾은 민무늬토기조각은 모두 12점인데, 입술과 밑부분은 없고 전부 몸체 부분이다.

① 몸체부분 (그림 1-①, 사진 4-①)

겉면은 연한 갈색, 안쪽면은 짙은 갈색을 띤다. 토기의 안팎면과 자름면 모두에서 1-3mm정도의 석영알갱이가 관찰된다. 겉면은 매끈하지 못하며, 터진 금들이 보인다. 안쪽 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두께 7.9mm

② 몸체부분 (그림 1-②, 사진 4-②)

겉면은 갈색, 검은색, 붉은색의 세가지 빛깔이 나며, 안쪽면은 갈색빛을 띤다.

안쪽면에는 운모가 섞여 반짝거리고 있으며, 겉면과 속심에서는 4-5mm의 비교적 굵은 석영알갱이도 보인다.

토기의 두께와 휘임새로 볼 때 밑부분으로도 생각되나 정확하지는 않다.

두께 9.0-11.0mm

③ 몸체부분 (그림 1-③, 사진 4-③)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띠며, 바탕흙에는 1mm정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토기 겉면 일부와 안쪽면 거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두께 6.0mm

④ 몸체부분 (그림 1-④, 사진 5-①)

겉면은 검은빛을 띠고, 안쪽면은 갈색이다. 안쪽면과 속심에서는 운모와 1-2mm의 석영알갱이가 관찰된다. 안쪽면은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토기 겉면이 비교적 매끈하고 검은빛이 고르기 때문에 '검은 간토기'는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작은 조각이라 확신은 서지 않는다. 앞으로의 발굴에서 검은 간토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두께 6.6-7.0mm

⑤ 몸체부분 (그림 1-⑤, 사진 5-②)

안팎면이 모두 갈색빛을 띠지만, 속심 일부에는 붉은빛이 들기도 한다. 바탕흙에 운모와 1-2mm정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두께 7.7mm

⑥ 몸체부분 (그림 1-⑥, 사진 5-③)

겉면은 연한 갈색, 안쪽면은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토기 안쪽면에는 바탕흙에 섞인 석영알갱이가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데, 1mm이하의 작은 것부터 4-5mm정도의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박혀 있다.

토기 겉면에는 폭이 약 8-9mm 정도되는 도구로 여러 방향에서 빗질정면한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두께 9.5mm

⑦ 몸체부분 (그림 1-⑦, 사진 5-④)

토기의 빗깔이나 두께, 바탕흙 등에서 앞의 것과 동일한 계통으로 생각된다. 겉면은 연한 갈색과 검은빛이 도는 진한 갈색의 두 빗깔을 띠며, 안쪽면은 전체적으로 검은 빛이 도는 갈색이다.

안쪽면에서는 빗질정면하는 과정에서, 박혀 있던 석영알갱이가 빠져 나간 자국이 보인다. 겉면에서는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빗질정면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두께 8.0-10.0mm

⑧ 몸체부분 (그림 1-⑧, 사진 6-①)

안팎면 모두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속심에서는 1mm 이하의 비교적 가는 모래알갱이가 박혀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가끔 1-2mm 정도의 석영알갱이도 눈에 띈다. 두께 9.3mm

⑨ 몸체부분 (그림 1-⑨, 사진 6-②)

겉면은 짙은 갈색, 안쪽은 연한 갈색을 띤다.

안팎면 모두에서 1mm이하의 고운 모래알갱이가 비교적 촘촘히 박혀 있는 모습이 관찰되며, 속심에서는 4mm정도의 알갱이도 보인다.

비교적 많은 양의 비짐을 섞은 듯하며, 반죽을 잘 치대어 한쪽에 몰린 곳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안팎면을 비교적 매끈하게 끝손질하였다. 두께 9.1mm

⑩ 몸체부분 (그림 1-⑩, 사진 6-③)

안팎면, 속심 모두 짙은 갈색이다. 속심과 토기 안쪽면에서는 바탕흙에 섞인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관찰된다. 토기 겉면을 비교적 매끈하게 끝손질하였다.

두께 7.8-8.4mm

⑪ 몸체부분 (그림 1-⑪, 사진 6-④)

겉면은 세 단으로 박리된 면이 나타나는데, 그에 따라 빛깔도 검은색, 짙은갈색, 연한 갈색으로 드러난다. 안쪽면은 검은 빛을 띤다.

속심과 겉면의 박리된 곳에서 석영알갱이가 간간이 관찰된다. 두께 7.0mm

⑫ 몸체부분 (그림 1-⑫, 사진 6-⑤)

겉면은 연한갈색, 안쪽면은 짙은갈색이다. 속심에서는 1-3mm정도의 석영알갱이가 박혀 있는 것이 보인다. 두께 7.6mm

(3) 간석기조각 (그림 2-④, 사진 7-①)

39.2 × 25.6 × 3.2 mm, 4g (93중금-0-5)

적색 점판암의 간석기조각으로서, 정확한 형태나 용도는 알 수 없다.

평평한 양쪽면에는 갈면서 생긴 줄자국이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남아 있으며,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부분도 갈아서 무디게 하였다.

한쪽면은 부러져 나간면이 날카롭게 남아 있다.

(4) 간석기조각 (그림 2-⑤, 사진 7-②)

50.6 × 25.7 × 8.1 mm, 11g (94중금-0-16)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간석기조각이다.

양쪽면에서는 갈면서 생긴 줄자국이 일정한 방향으로 남아 있다.

(5) 돌 그물추 (그림 2-⑥, 사진 8)

54.6 × 51.3 × 14.1 mm, 54g (93중금-0-6)

비교적 판판한 형태의 반암 자갈돌 양쪽면을 깨내어 만든 그물추이다. 양쪽면에서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끝부분을 떼내어 서로 대칭이 되는 오목한 홈을 만들었다. 무게는 54g이다.

(6) 펜 석 기 (그림 2-⑦, 사진 9-①)

39.4 × 32.2 × 9.9 mm, 13g (94중금-0-15)

윗면의 둘레에는 상당히 많은 잔손질이 가해졌고, 아랫면에는 한차례의 떼기가 가해져 오목한 면을 이루었다. 가장자리에는 비스듬하게 날이 마련되었다.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정성들여 만든 석기임이 분명하다.

(7) 펜석기조각 (그림 2-⑧, 사진 9-②)

52.3 × 36.0 × 9.1 mm, 22g (93중금-0-3)

부러진 조각이라 정확히 어떤 형태와 기능을 갖는 석기인지는 알 수 없다. 양쪽면을 상당히 많이 떼내어 형태를 잡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8) 보 습 (그림 3, 사진 10)

135.4 × 93.9 × 16.1 mm, 246g (94중금-0-13)

커다란 자갈들의 제일 가장자리에 타격을 가하여 얇고 넓게 떼어진 격지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굽은 때린 면이 없는 선모양이다. 격지의 평면형태는 역삼각형이며, 등면을 상당히 여러차례 다듬어 턱진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형태가 오늘날의 삼날과 비슷하다. 땅을 일구는데 사용한 원시 농경도구중의 하나로 보인다.

(9) 석 재 (그림 4-①, 사진 11)

101.0 × 84.1 × 38.7 mm, 433g (94중금-0-14)

비교적 굵은 석영알갱이가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 앞의 보습과 같은 종류의 암질이다. 등면에는 여러차례 떼낸 흔적이 남아 있다.

(10) 석 재 (그림 4-③, 사진 12-①)

70.3 × 47.1 × 30.3 mm, 99g (93중금-0-2)

앞의 것과 같은 종류의 암질로서 석재이다.

(11) 격 지 (그림 4-②, 사진 12-②)

43.4 × 20.7 × 8.5 mm, 6g (93중금-0-4)

앞에서 설명한 맨석기조각(그림 2-⑧, 사진 9-②)과 같은 종류의 암질이다. 굽은 사다리꼴모양이며, 긴격지에 해당된다.

(12) 격 지 (그림 4-④, 사진 12-③)

69.8 × 56.9 × 19.4 mm, 76g (93중금-0-7)

양쪽면이 모두 평평한 격지면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한면에는 다시 타격을 가하여 격지를 때낸 흔적이 남아 있다.

3) 유적의 성격 및 대책

지금까지 걸출 위에서 찾은 유물들을 살펴볼 때, 이 유적에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두 문화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조각은 단지 3점 뿐이지만, 이 지역에 신석기 문화층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방, 특히 태백산맥 서쪽의 영서지방에서의 신석기유적 조사나 발굴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유적 분포범위는 해안을 따라 넓고, 조밀하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중금리 신석기유적의 발견과 앞으로 이어질 발굴은 이제껏 불분명했던 이 지역 신석기문화의 성격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은 고인돌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민무늬 토기조각이 여러점 채집된 것을 볼 때 주변에 청동기시대의 집자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고인돌무덤과 당시 사람들의 실제 생활지역과의 관련성을 살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신석기층과 청동기층과의 관계도 주목할만하다.

따라서 황성댐 건설로 수몰되기 이전에 중금리의 신석기·청동기시대 유적이 체계적으로 발굴 된다면, 우리나라 신석기·청동기문화의 체계를 세우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3. 중금리 고인돌 유적

1) 유적의 위치 (지도 1-②, 사진 2)

중금리에서는 모두 3기의 고인돌을 찾았다.

중금리에서 '능머루'라 불리는 곳의 정일화씨 소유 밭 한켠에 1기의 고인돌(1호 고인돌)이 있으며, 중금리 1반 105번지 이계환씨댁 축사(대 368번지)내에 2기의 고인돌(2,3호 고인돌)이 남아 있다. 1호 고인돌은 앞서 설명한 빗살무늬·민무늬토기 산포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주변에 1-2기의 고인돌이 더 있었다고 한다.

1967년 4월에 중금리에서 간돌검, 간돌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강원도편>)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로부터 확인하여 본 결과, 경작에 방해가 된다하여 1호 고인돌 주변에 있던 고인돌을 깨내는 과정에서 나온것이라 한다.

2) 고인돌의 형태

(1) 1호 고인돌 (그림 5, 사진 13)

덧개들은 평면형태가 긴 네모꼴(長方形)이며, 장축이 북동-남서방향(N 30° E)으로 놓여 있다. 이는 유적앞으로 흐르는 계천(桂川)의 방향과 나란한 것이다. 덧개들의 크기는 길이 212cm, 너비 87cm, 두께 33cm이다. 덧개들은 화강암을 판자꼴로 다듬어 만든 것이며, 성형이나 채석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땅에 묻혀 있어 하부구조는 알 수 없다.

(2) 2호 고인돌 (그림 6, 사진 14)

덧개들은 평면형태가 네모꼴이며, 장축이 북서-남동방향(N 40° W)으로 놓여 있다. 덧개들은 편마암으로서, 크기는 125 × 98 × 40cm이다. 받침돌과 같은 하부구조는 드러나지 않은채 덧개들만이 곁에 드러나 있다.

(3) 3호 고인돌 (그림 7, 사진 15·16)

3호 고인돌은 2호 고인돌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덧개들은 평면형태가 긴 네모꼴이며, 장축이 거의 동-서방향(N 80° W)으로 놓여 있다. 덧개들은 편마암으로서, 크기는 170 × 103 × 42cm이다. 받침돌 및 하부구조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덧개들만이 관찰대상이다. 덧개들 윗면의 동쪽하단에는 크고 작은 성형 7개가 동서-남북방향으로 직교하며 'T'자 형태로 파여져 있다. 이 구멍이 파여

진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파여진 성혈의 크기는 아래와 같다.

번호	크기(가로 × 세로) cm	깊이(cm)
1	4.2 × 4.2	2
2	6 × 3	3.5
3	3 × 3	1
4	4 × 3	3
5	4 × 4	4
6	2 × 2	1
7	1 × 1	0.5

3) 유적의 성격 및 대책

중금리에서 발견된 3기의 고인들은 이 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3기의 고인들은 모두 받침돌과 같은, 다른 시설없이 덮개돌만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형식이다. 덮개돌은 비교적 잘 다듬었으며, 네모꼴 혹은 긴 네모꼴 형태를 하고 있다.

1967년에 1호 고인들 주변에 있던 1-2기의 고인들을 파괴하면서 간돌검·간돌 화살촉 등이 출토된 예가 있지만, 그 하부구조나 유물 출토상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1호 고인들 주변에서는 민무늬 토기조각이 여러점 채집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층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2,3호 고인들 주변에서는 채집된 유물이 없지만, 앞으로 이어질 발굴에서는 고인들무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활지역(집자리 따위)을 찾는 노력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4. 부동리 구석기시대 유적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1-③, 사진 17·18)

부동리 구석기시대 유적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계천의 남쪽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으로 흘러드는 계천은 동쪽의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매일리의 구리들·하동평, 포동리의 마무리·저고리골, 구방리의 당두루·읍달말, 화전리의 버덩말을 지나 부동리의 웃마을에 이르는데 이곳 일대에는 현재도 20여채의 집이 용기종기 모여있다.

웃마을 일대에서도 구석기를 몇점 발견하여 '부동리Ⅱ 구석기 유적'이라 부르게 되었다. 계천이 웃마을일대를 휘돌아 서북쪽으로 흐르다 다시 서쪽으로 곧게 흐르는 남쪽 산기슭에서 구석기 유적을 찾아 '부동리Ⅰ 구석기 유적'이라 하였다.

이곳은 북쪽으로 계천을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기는 하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지점이다.

강보다 10-20m 높은 하안단구지점에서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 찌개, 굽개, 팔매들, 찌르개, 몸돌 등 20여점의 펜석기를 채집할 수 있었다.

하상은 현재 상당히 높은 편이나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수만년 혹은 수십만년전에는 알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유 물

(1) 부동리Ⅰ 지역

① 팔매들 (그림 8, 사진 19)

차들, 91.7 × 81.4 × 80.5mm, 852g (93부동1-0-1)

차들 둥근 자갈들의 둘레에 떼기를 하여 만들었다. 표면의 여기저기에 자갈들 자연면이 남아 있어 손에 쥐기 알맞게 다듬었다. 짐승사냥할때 팔매들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팔매들 (그림 9, 사진 20)

차들, 100.4 × 88.3 × 86.3mm, 1106g (94부동1-0-12)

차들 둥근 자갈들의 둘레를 다듬어 팔매들을 만들었다. 표면의 일부에 자갈들 자연면이 남아 있다.

손에 쥘 때 안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듬었기 때문에 모난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동물사냥할 때 사용하였을 것이며 매우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주먹도끼 (그림 10, 사진 21)

개차들, 123.0 × 58.1 × 44.9mm, 275g (94부동1-0-14)

크고 긴 자갈들을 이용하여 만든 주먹도끼이다. 긴 양쪽의 한끝을 주먹도끼날로 다듬고 다른 한 끝은 손잡이로 하였다.

짧은쪽은 손에 쥐기 좋도록 날카로운 능선을 다듬었다. 등쪽의 일부에는 자갈들 자연면이 남아 있다.

동물사냥을 할 때 손에 들고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날길이는 84mm이다.

④ 짝 개 (그림 11, 사진 22)

차돌, 95.2 × 76.2 × 37.0mm, 226g (93부동1-0-2)

큰 차돌 자갈들의 한쪽 귀통이에서 격지떼기수법으로 크고 넉적한 격지를 떼내어 만들었다. 격지의 두께가 두터운 쪽을 잡이로 하고 날카로운 돌레의 한쪽을 짝개날로 다듬었다. 손바닥에 잡히는 면에는 격지의 등면이, 앞쪽에는 격지의 떼기면이 둥근 곡선을 그리면서 남아 있다.

날이 비교적 날카로운 편이며 길이는 141mm가 된다.

⑤ 짝 개 (그림 12, 사진 23)

반암, 85.7 × 60.7 × 33.5mm, 190g (93부동1-0-3)

큰 반암 자갈들의 한쪽 모서리에서 격지를 떼내어 만들었다. 두께가 두터운 쪽을 손잡이로, 날카로운 쪽을 짝개날로 다듬었다.

등면에는 자갈들 자연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반대편에는 격지 떼낸 면이 울퉁불퉁하게 있다. 날길이는 66mm이다.

⑥ 짝 개 (그림 13, 사진 24)

차돌, 97.7 × 84.9 × 70.7mm, 722g (94부동1-0-11)

큰 차돌 자갈들을 깨내어 한쪽부분으로 짝개를 만들었다. 손아귀에 잡히는 부분에는 자갈들 자연면이 남아 있어 쥐기에 편안하도록 하였으며, 날카롭게 깨진 모서리를 짝개날로 사용하였다. 날길이는 73mm이다.

⑦ 대 패 (그림 16-①, 사진 25)

사암, 78.2 × 76.0 × 52.1mm, 450g (93부동1-0-4)

큰 사암 자갈들을 넉적하게 깨내어 돌대패를 만들었다.

바닥과 윗면에는 자갈들 자연면이 평면으로 남아 있어 대패바닥이나 우뚝손잡이로 사용하기 좋도록 하였다.

대패날의 등면은 깨낼 때 생긴 둥근면이 남아 있고, 양옆에는 평면으로 깨진 면이 남아 있다. 날은 둥굴며 길이는 68mm이다.

⑧ 굵 개 (그림 14, 사진 26)

반암, 83.3 × 45.4 × 42.5mm, 254g (93부동1-0-8)

반암 자갈들을 깨내어 굵개로 만들었다. 바닥과 등면에 자갈들 자연면이 남아있다.

왼손에 잘 잡히는 것으로 보아 왼손잡이용으로 쓰였을 것이다. 날길이는 54mm, 경사

각은 80° 이다.

⑨ 굵 개 (그림 15, 사진 27)

차돌, 78.1 × 44.5 × 32.6mm, 143g (94부동1-0-13)

판자 모양의 차돌을 이용하여 굵개를 만들었다. 판판한 면을 굵개의 바닥으로 하고, 왼쪽의 둥근 모서리에 잔손질을 하여 날을 만들었다.

잡이쪽은 두툼하며 2,3째 손가락이 들어가 잡도록 오목파기를 해 놓았다.

날길이는 47mm, 경사각은 45° 이다.

⑩ 찌 르 개 (그림 16-②, 사진 28)

반암, 116.3 × 76.7 × 59.7mm, 408g (93부동1-0-9)

큰 반암들을 깨내어 한쪽 뾰족한 곳에 찌르개 날을 만들었다. 손잡이쪽은 둥글어서 잡고 쓰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찌르는 날은 단면이 세모꼴이며 능선이 3선으로 나타나 있다. 날을 세울 때 등쪽에 계단식떼기를 가한 흔적이 남아 있다.

⑪ 망 치 돌 (그림 16-③, 사진 29)

차돌, 87.7 × 76.5 × 61.9mm, 446g (93부동1-0-5)

둥근 차돌 자갈들을 돌망치로 사용하였다. 손잡이쪽에는 자갈돌 자연면이 남아 있고, 타격면에는 수많은 타격 흔적이 남아 있다. 손아귀에 꼭 알맞은 크기의 자갈들을 선택하여 석기를 만드는 공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⑫ 격 지 (그림 17-①, 사진 30)

혈암, 84.6 × 76.4 × 21.7mm, 176g (93부동1-0-10)

큰 혈암 자갈들에서 떼어낸 격지로서 비교적 넓적하고 큰 편이다.

석기를 만들기에 좋은 재료이나 다듬지는 않았다.

표면에는 수화층이 생겼다.

⑬ 격 지 (그림 17-②, 사진 31-①)

차돌, 56.7 × 38.4 × 19.4mm, 51g (93부동1-0-15)

차돌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로서 타격면과 깨진면이 잘 남아 있다. 깨진면은 타격점이 둥글게 솟아 있다.

⑭ 격 지 (그림 17-③, 사진 31-②)

차돌, 26.4 × 19.5 × 9.0mm, 4g (94부동1-0-16)

⑮ 격 지 (그림 17-④, 사진 31-④)
차돌, 41.5 × 22.2 × 13.8mm, 12g (93부동1-0-7)

⑯ 격 지 (그림 17-⑤, 사진 31-④)
차돌, 43.0 × 34.1 × 17.3mm, 26g (93부동1-0-6)

(2) 부동리Ⅱ 지역

① 찌개 (그림 18, 사진 32)

사암, 122.7 × 89.6 × 55.8mm, 477g (94부동2-0-1)

넓적한 사암 자갈들을 이용하여 만든 찌개이다. 형태는 주먹도끼와 비슷하나 쓰임새는 찌개로 쓰였다. 손잡이쪽에는 자갈들 자연면을 남겨 놓아 쥐기에 편하도록 하였으며, 엄지 손이 들어가 잡을 수 있는 홈이 자연적으로 파여져 있다. 앞쪽으로는 자갈들 겉면이 일부 남아 있으나, 뒷쪽에는 몇 차례의 때기를 한 흔적이 남아 있다. 외날찌개로서 날길이는 183mm이다.

② 찌개 (그림 19, 사진 33)

사암, 102.0 × 85.4 × 48.3mm, 665g (94부동2-0-5)

사암 자갈들의 한쪽을 다듬어 만든 찌개이다. 손잡이쪽은 자갈들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반대쪽은 등면에서 안쪽을 향하여 수차례의 때기를 하여 날을 세웠다. 짐승 사냥을 할 때 매우 유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손에 쥘 때 안정감을 많이 주는 석기였을 것이다. 날은 둥근 외날이며 길이 72mm이다.

③ 굵개 (그림 29, 사진 34)

사암, 73.4 × 57.9 × 32.7mm, 132g (94부동2-0-6)

사암제 큰 자갈들의 한쪽에 격지때기를 하여 나온 크고 넓적한 격지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자갈들 자연면을 굵개의 바닥면으로, 격지때기를 할 때 깨진면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등면에는 때린점, 홈, 파문, 터진면이 남아 있다. 격지의 얇은 끝에 잔손질을 베풀어 둥근툽니같은 날을 만들었다. 날의 길이는 70mm, 경사각은 30° 이다.

④ 격지 (그림 21-①, 사진 35)

혈암, 57.1 × 41.8 × 10.8mm, 35g (93부동2-0-2)

혈암제 몸돌에서 격지때기를 하여 나온 격지이다. 등면에는 이미 먼저때기를 할 때 생긴 타격이 전체에 남아 있고, 깨진면에는 격지때기를 할 때 생긴 때린점, 홈, 파문, 터진면이 섬세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잔손질은 하지 않았다.

3) 유적의 성격 및 대책

이곳은 횡성댐 수몰지역내에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문화유산이 남아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유적이다. 현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구석기의 양상으로 보아 중기구석기시대이거나, 그 이전 시대인 전기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볼때 10-12만 년전 이전 시기에 계천을 중심으로 인류가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발굴조사에 따라 더욱 명확한 문화성격이 밝혀질 것이다. 부동리 I, II 구석기유적의 발굴조사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5. 부동리 초기철기시대 유적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④, 사진 36)

부동리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부동리의 옷마을 일대에서 발견되었다. 앞의 부동리 II 구석기시대 유적과 이웃하고 있는 계천가의 충적토 지표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초기철기시대의 두드림무늬토기 입술부 1점과 토기 밑바닥조각 1점이 발견되었다.

2) 유물

① 두드림무늬토기 입술부조각(그림 21-②, 사진 37-①)

초기철기시대에 널리 만들어 사용되던 두드림무늬토기의 입술부조각이다. 빛깔은 짙은 회색이며, 겉면에는 두드릴 때 생긴 무늬가 남아 있다. 입술은 곧은 입술이나 안쪽으로 턱이 만들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뚜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탕흙에는 진흙과 함께 차돌장석을 섞었음을 알 수 있는 석영알 입자가 나타나 있다. 토기 두께는 5mm로 매우 얇은편이다.

② 토기바닥조각(그림 21-③, 사진 37-②)

회색빛의 초기철기시대 토기바닥이다. 상당히 단단한 점으로 보아 큰 항아리 바닥으로 생각된다. 바탕흙에는 진흙과 함께 운모를 섞었음을 알 수 있는 입자들이 들어 있다. 몸통부의 두께는 8mm, 바닥의 이음새 두께는 12mm이다.

3) 유적의 성격 및 대책

이 유적이 있으므로 계천가의 부동리 옷마을 일대에 초기철기시대인 기원전후의 시대에도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선사시대인 구·신석기유적, 유사시대인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이 함께 발견되

어 계천유역에는 수십만년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사람들의 거주도 수십만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인 2천년전 전후에도 이 지역에 사람이 생활하였으며, 그들이 바로 삼국시대인들의 직접 조상이요, 현재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부동리 초기철기시대 유적도 수몰되기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6. 화전리 뎨석기와 민무늬토기 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⑤, 사진 38·46)

화전리에는 마을을 감싸안 듯 계천이 S자로 흐르고, 주변의 얇은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뒷산의 산자락 끝부분에 경지정리된 전답과 가옥이 밀집되어 위치한다. 민무늬토기 산포지는 화전리 191번지 이재영씨댁 밭으로 강 옆의 둔덕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경작중에 상당히 많은 양의 민무늬토기조각이 발견된다고 한다.

앞쪽으로 얇은 계천이 흘러가고, 건너편에는 구석기시대 뎨석기가 발견된 부동리 마을이 있다.

강을 낀 주변에는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있으며, 하루종일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으로 당시의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둔덕에서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조각과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정교하게 만든 뎨석기가 민무늬토기 산포지 주위에서 여러점 채집되었다.

2) 유 물

(1) 뎨 석 기

① 찌개 (그림 22, 사진 39·40)

혈암, 104.9 × 92.9 × 83.1mm, 1132g (93화전-0-1)

상당히 정성들여 만든 양면찌개이다. 손잡이 부분과 옆면 일부에만 자연면을 남긴채, 대부분 양쪽 방향에서 떼기를 베풀어 찌개날을 마련 하였다.

몸체의 중심부에 곧은 찌개날이 위치하도록 계획적으로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때린점, 방사선 등 뚜렷한 떼기흔적이 오목하게 남아 있다. 날길이는 약 210mm이며, 양쪽 뎨면이 만나 이루는 날각도는 100° 내외로 고른편이다.

② 찍개 (그림 23, 사진 41)

화강암, 136.7 × 80.7 × 51.6mm (94화전-0-20)

위는 자연면, 아래는 커면으로 이루어진 판판한 자갈들을 이용하여 만든 찍개이다.

윗면에는 3-4번의 큰떼기를 하였고, 아랫면에는 한 번의 떼기를 행했다.

아랫면과 이루는 날 각도는 70° - 90° 사이에 든다.

이 석기를 길이축으로 놓고 관찰할 때 옆날찍개에 해당한다.

③ 덜된연모 (그림 24-②, 사진 42)

사암, 66.2 × 50.7 × 45.9mm, 203g (94화전-0-4)

판판한 밑면에는 자연면이 그대로 남아있고, 윗면에는 여러방향에서 4-5차례 뎨자국이 오목하게 남아있다.

때린점과 방사선은 뚜렷하다. 뎨면과 뎨면이 만나 이루는 능선의 각도는 90° - 110° 사이에 든다.

④ 새기개 (그림 24-③, 사진 43)

차돌, 44.5 × 21.7 × 11.8mm, 14g (94화전-0-14)

한면은 판판한 자연면으로 남겨져 있고, 다른 한면은 모두 뎨면으로 이루어진 차돌

조각들(debris)을 이용하여 만든 새기개이다. 윗쪽 끝부분을 양쪽방향으로 때려 뺀

한 새기개날을 만들었다. 새기개 날각도는 약 50° 이다.

(2) 갈돌공이 (그림 24-①, 사진 44)

사암, 60.8 × 56.4 × 41.7mm, 242g (94화전-0-2)

단면이 각을 죽인 사다리꼴 형태인, 길쭉한 자갈들을 갈돌공이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깨어져 한쪽 끝부분만 남았다.

판판한 밑부분에는 다른 물체와의 마찰 과정에서 생긴 줄자국이 여러 방향으로 남아

있다.

(3) 망 치 들 (그림 24-④, 사진 45)

사암, 140.1 × 56.6 × 46.7mm, 599g (94화전-0-3)

한손에 움켜 쥘 수 있는 정도 크기의 길쭉한 자갈들을 망치로 사용한 것이다. 망치

들로 사용하는 동안 다른 물체와 부딪쳐 으스러진 자국과 떼어진 자국이 남아있다.

남은 자국을 통해 볼 때, 이 망치들은 길이축을 세로방향으로 잡고 사용한 것으로 생

각된다.

(4) 민무늬토기

이 곳에서는 14점의 민무늬토기조각이 채집되었다. 입술과 밑부분은 없고 모두 몸체 부분이다.

① 몸체부분 (그림 25-①, 사진 47-①)

토기의 겉면은 갈색을 띠고, 안쪽면은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다. 고운 염토의 바탕흙에 굵은 모래를 섞었다. 겉면은 매끄럽지 않다. 두께 8.1mm

② 몸체부분 (그림 25-②, 사진 47-②)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띠며, 고운 염토에 3-4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두께 10.3mm

③ 몸체부분 (그림 25-③, 사진 47-③)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을 띠며, 바탕 흙에는 2-3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흔적이 보이고, 겉면에는 물손질하여 매끈하다. 두께 8.6mm

④ 몸체부분 (그림 25-④, 사진 47-④)

겉면은 붉은빛을 띠는 갈색이며, 안쪽면은 갈색이다. 바탕흙에 4-5mm정도의 모래가 섞여 있다. 안쪽면에는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이고, 겉면은 매끄럽지 않다. 두께 10.5mm

⑤ 몸체부분 (그림 25-⑤, 사진 48-①)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며, 속심은 검정색이다. 바탕흙에 1-2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은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두께 10.9mm

⑥ 몸체부분 (그림 25-⑥, 사진 48-②)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띠는 갈색이며, 바탕흙에 2-3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토기 겉면과 안쪽면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두께 5.6mm

⑦ 몸체부분 (그림 25-⑦, 사진 48-③)

전체적으로 연한 갈색이며, 모래알갱이는 약간 보인다. 겉면은 떨어져 나갔다. 두께 6.9mm

⑧ 몸체부분 (그림 25-⑧, 사진 48-④)

겉면은 검정색을 띠며, 안쪽면은 짙은 갈색을 띤다. 바탕흙에는 2-3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고, 안쪽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보인다. 두께 7.3mm

⑨ 몸체부분 (그림 25-⑨, 사진 48-⑤)

겉면은 붉은빛을 띠는 갈색이며, 안쪽면은 검정색이다. 바탕흙에 1-2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매끄럽지 않다. 두께 8.0mm

⑩ 몸체부분 (그림 25-⑩, 사진 49-①)

겉면은 짙은 갈색을 띠며, 안쪽면은 짙은 갈색과 검정색이 함께 나타난다. 바탕흙에 1-2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여러 방향에서 빗질정면 하였고, 안쪽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두께 6.5mm

⑪ 몸체부분 (그림 25-⑪, 사진 49-②)

겉면은 연한 갈색이며, 안쪽면은 갈색이다. 바탕흙에 2-3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이고, 안쪽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보인다. 두께 8.3mm

⑫ 몸체부분 (그림 25-⑫, 사진 49-③)

겉면은 갈색이고, 안쪽면에는 검정색이다. 바탕흙에 1-2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겉면은 매끄럽지 않다. 두께 7.0mm

⑬ 몸체부분 (그림 25-⑬, 사진 49-④)

전체적으로 검정색을 띠며, 안쪽면은 빗질정면한 모습이 보인다. 두께 9.2mm

⑭ 몸체부분 (그림 25-⑭, 사진 49-⑤)

겉면은 연한 갈색을 띠며, 안쪽면은 검정색을 띤다. 바탕흙에 2-3mm정도의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안쪽면은 빗질정면 하였다. 두께 7.0mm

3) 유적의 성격 및 대책

지금까지 이 유적에서 채집된 구석기시대 뎀석기와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를 살펴보았다. 구석기시대 뎀석기는 비록 몇 점에 불과하지만 매우 정교한 형태로 부동리에서 나오는 뎀석기와 연관성을 가지리라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조각들은 전부 몸체 부분으로, 한지역에서 여러점 발견된다는 것은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황섬댐 건설로 수몰되기전에 화전리의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상을 확실히 밝혀야 하겠다.

7. 화전리 고인돌 유적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⑥, 사진 50)

화전리 고인돌 유적은 갑천으로 가는 441번 지방도로변인 구방리에서 물 건너편 화전리의 버덩말로 가는 길 가운데 위치한다. 초현리에서 흐르는 계천이 화전리에서 S자로 휘돌아 하류로 흘러 횡성읍과 공근면 경계에서 금계천과 합류해 섬강으로 들어간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계천 강가에서 약 300여미터 떨어진 곳이다. 주민들이 '바위땀미'라고 부르는 논 한가운데에 고인돌 2기가 서로 포개져 있었는데, 1984년 경 지정리시 바로 옆 길가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 지점 주위에는 넓은 들이 있어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이었을 것이다.

2) 고인들의 형태

(1) 1호 고인돌 (그림 26-①, 사진 51)

1호 고인돌은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덮개들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성혈이나 채석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덮개들의 크기는 길이 144cm, 너비 136cm이며, 두께는 길가의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2) 2호 고인돌 (그림 26-②, 사진 52)

2호 고인돌은 1호 고인돌 바로 옆에 위치하는데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장축방향은 1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동-서이다. 덮개들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덮개들에서 성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길이 194cm, 너비 152cm이고, 두께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유적의 성격 및 대책

화전리에서 발견된 고인돌 2기는 청동기시대 화전리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의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덮개들은 모두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고인돌 주위에 농경지가 있고, 그 일대에서 민무늬토기조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문화층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몰되기 전에 2기의 고인돌은 전면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 시기의 문화상과 고인돌의 형태를 파악해야 하겠다.

8. 구방리 간돌화살촉 출토지점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지도 1-⑦, 사진 53)

구방리에서 간돌화살촉이 나온 지점은 횡성에서 갑천으로 가는 441번 지방도 우측변에 위치한다. 앞쪽으로는 태기산(1,261m)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갑천과 수리봉(960m)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유동천이 초현리에서 합류하여 서쪽으로 꺾여서 구방리 앞을 흐르는 계천이 있다.

물 건너편으로는 현재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당시에 도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좋았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 유적은 강가에서 3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1983년에 이대균씨(구방리 498번지)축사를 지으면서 도로옆 도랑을 팔 때 간돌화살촉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일을 하였던 화전리의 이재영씨가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2) 유물 (사진 54)

발견자(이재영씨)가 간돌화살촉을 다시 숫돌에 갈아서 약간 변형시켰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지표로부터 약 50cm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촉머리는 부러진 상태였다고 한다. 재질은 편암이며, 촉몸은 마름모꼴이다. 크기는 $7.8 \times 1.1 \times 0.5\text{cm}$ 이다

3) 유적의 성격 및 대책

간돌화살촉이 나온 구방리의 건너편 마을(화전리)에서 청동기시대 무덤인 고인돌과 민무늬토기조각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문화층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청동기시대 유적을 서로 비교해보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횡성댐이 건설되면 간돌화살촉이 나온 지점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사전에 전면적인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져 당시의 문화상을 확실히 밝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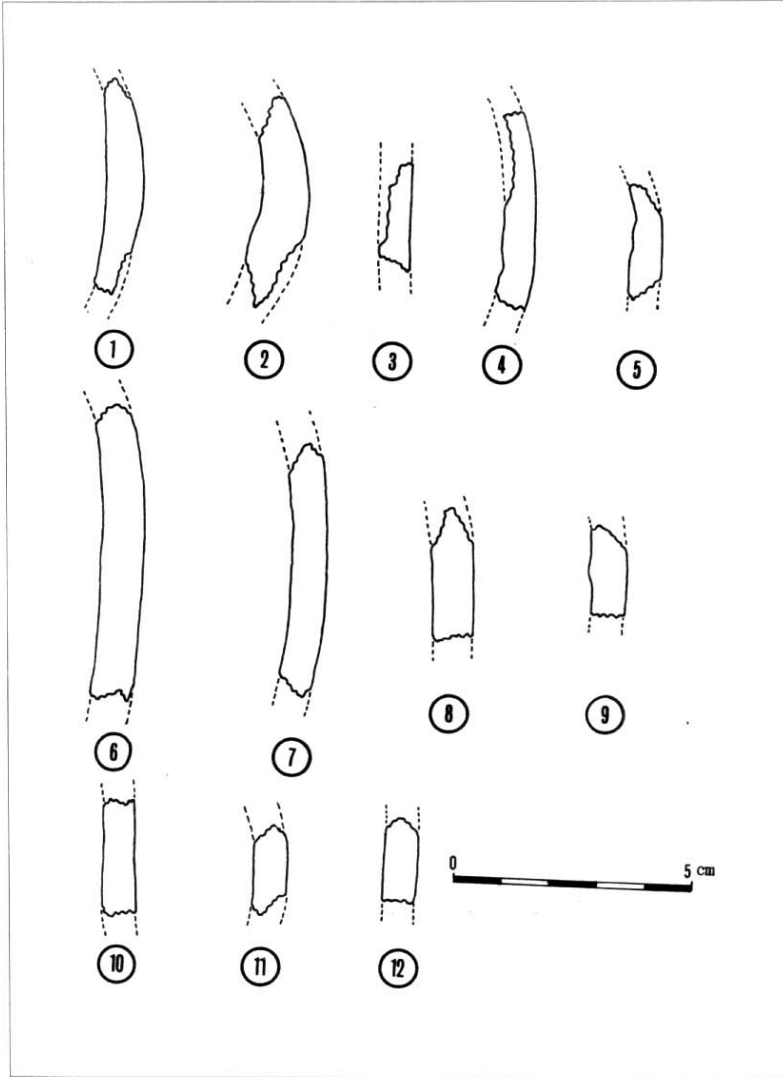


그림 1. 중금리 채집 민무늬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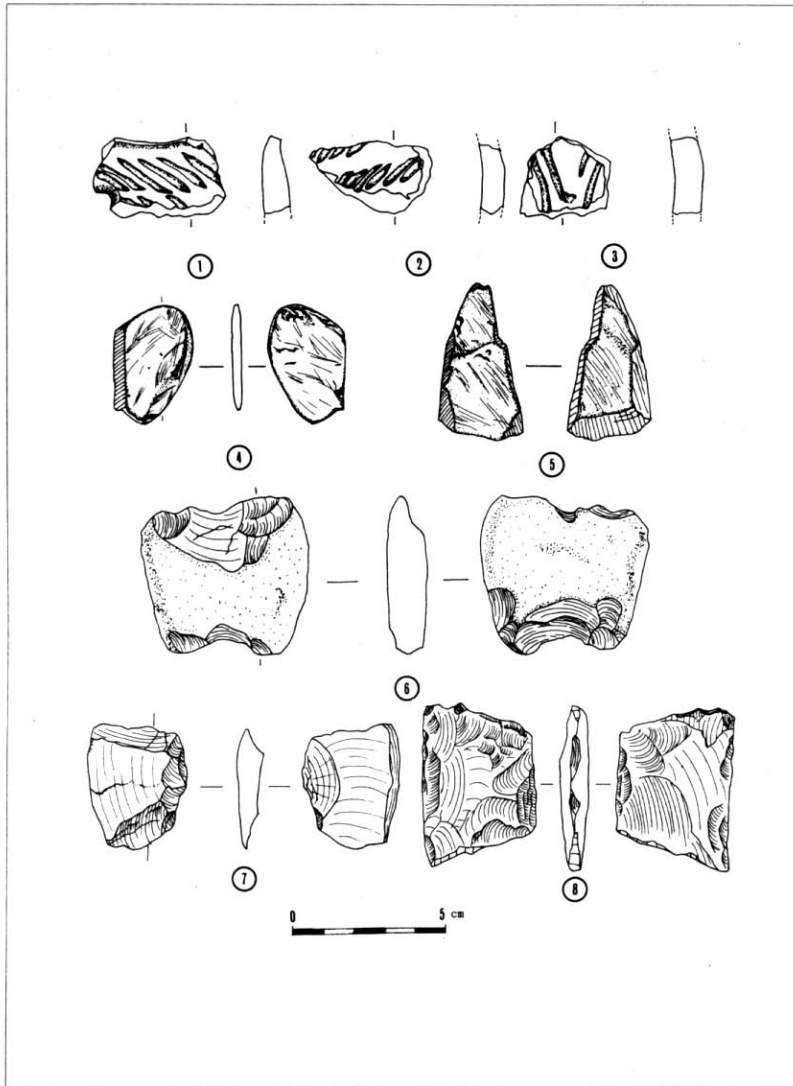


그림 2. 중금리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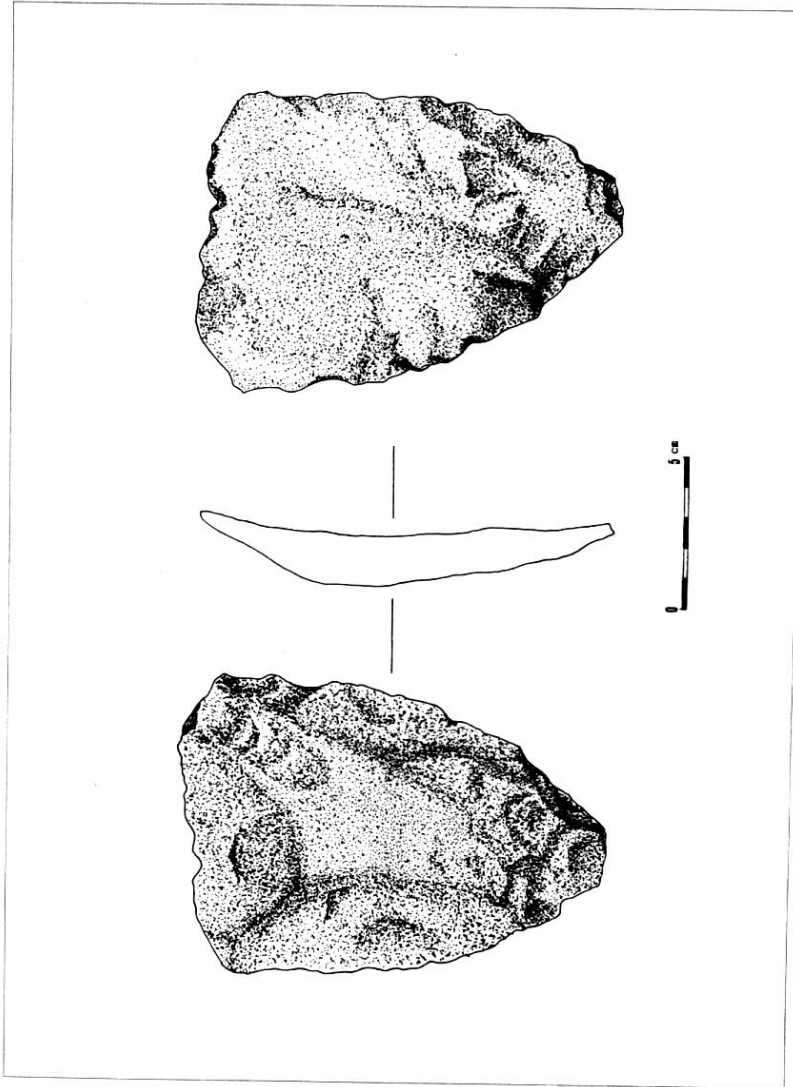


그림 3. 중금리 채집 보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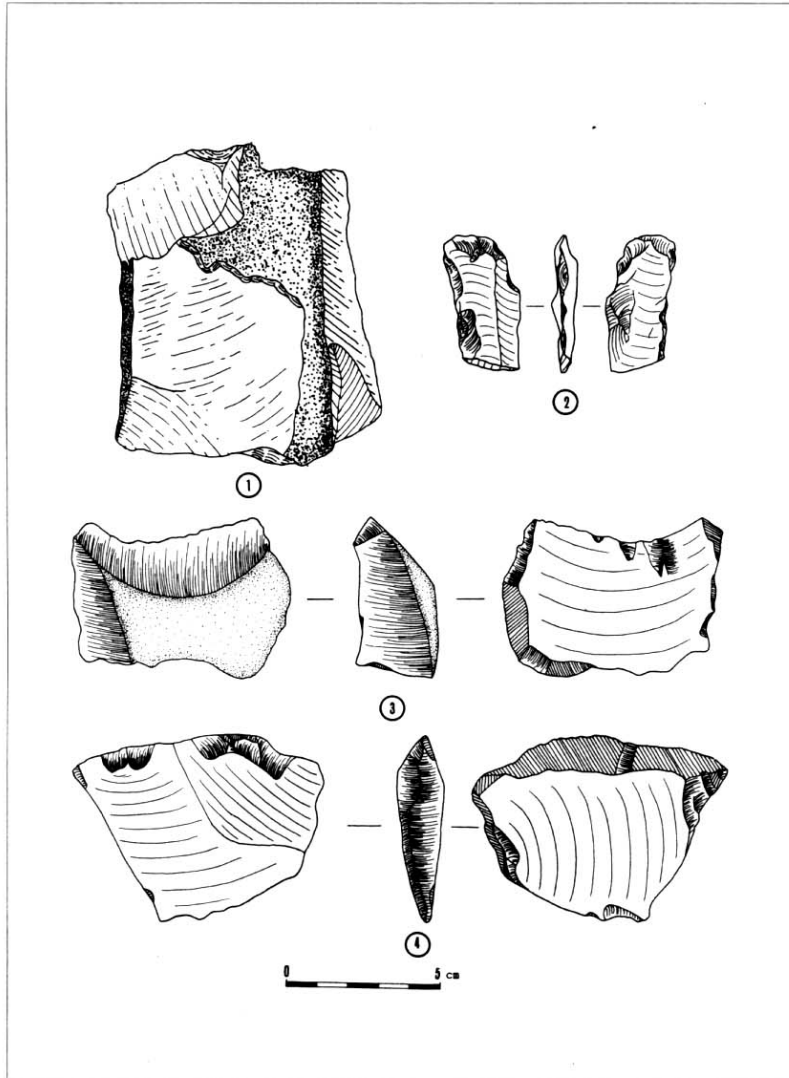


그림 4. 중금리 채집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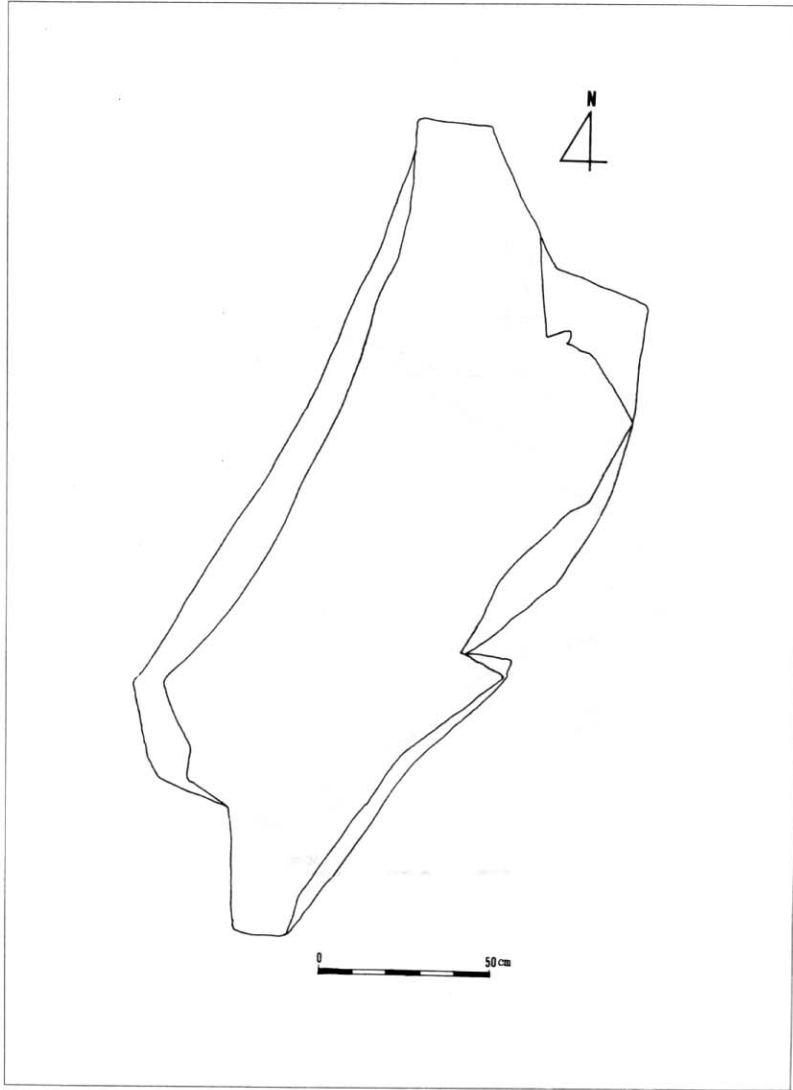


그림 5. 중금리 1호 고인돌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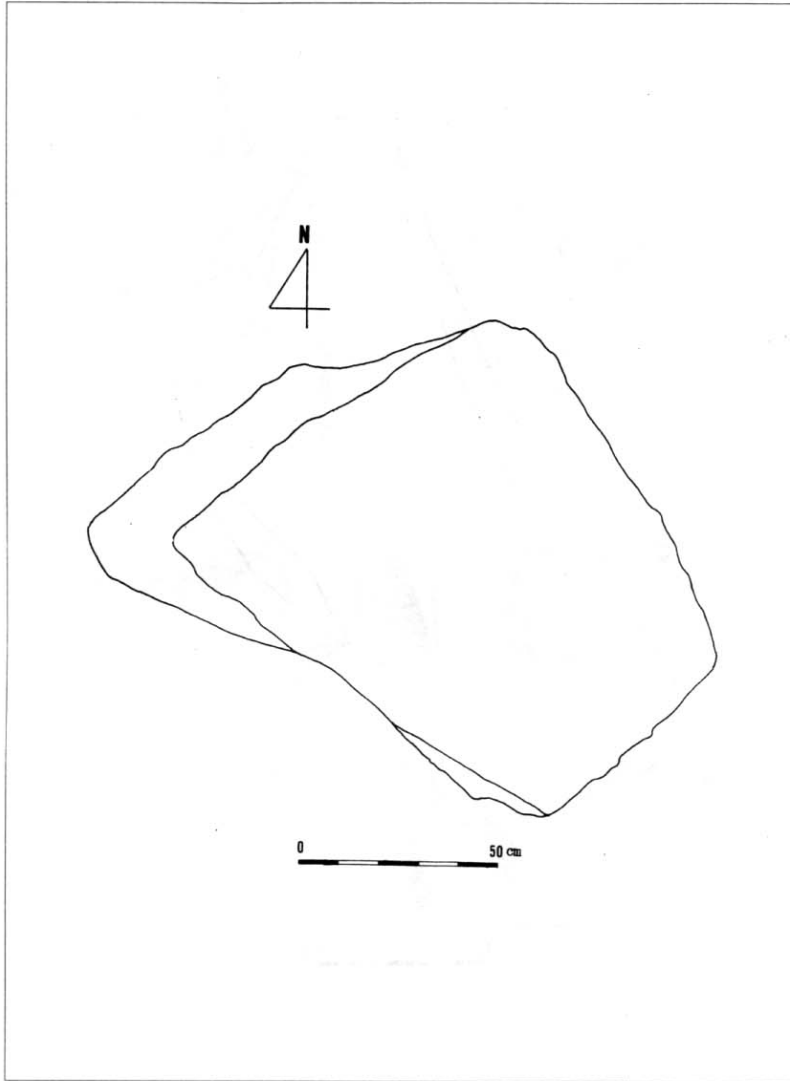


그림 6. 중금리 2호 고인돌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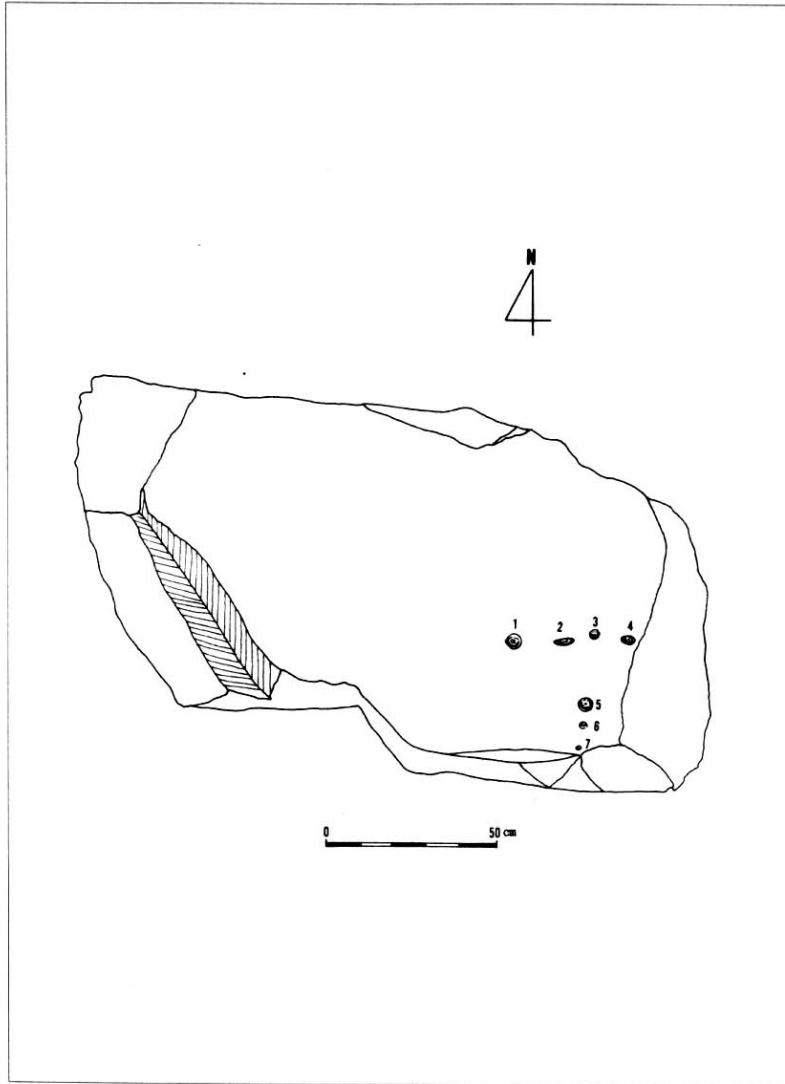


그림 7. 중금리 3호 고인돌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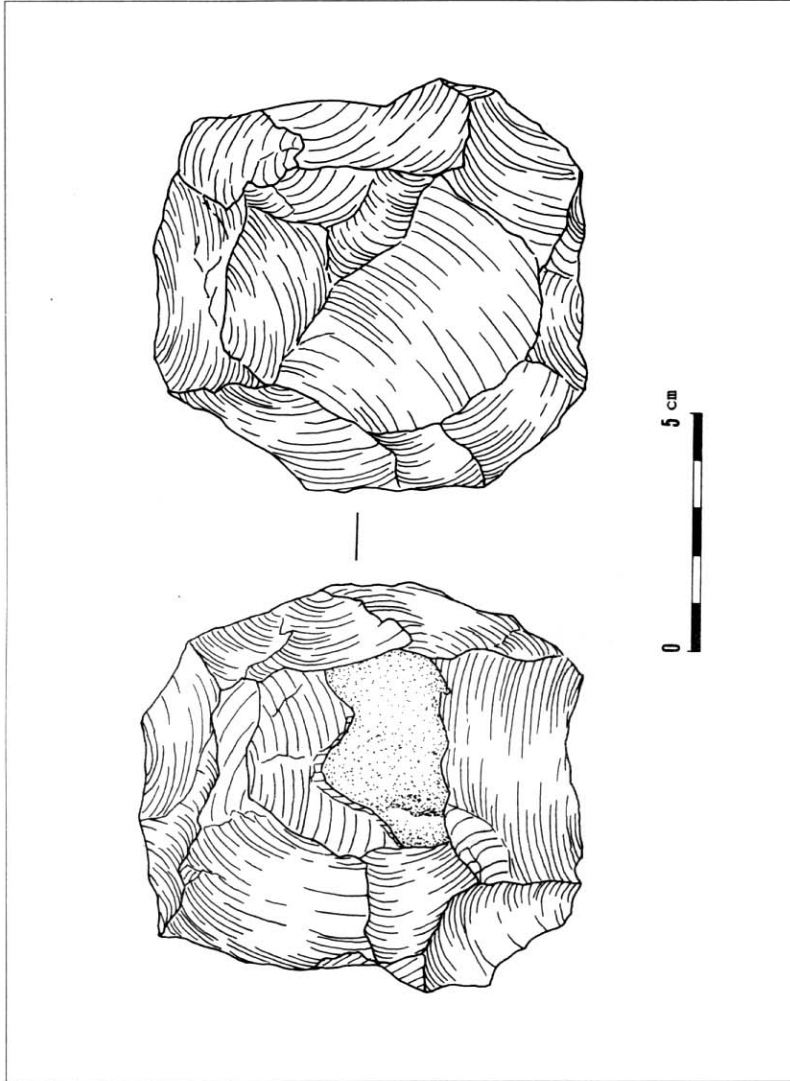


그림 8. 부동리 1 채집 팔메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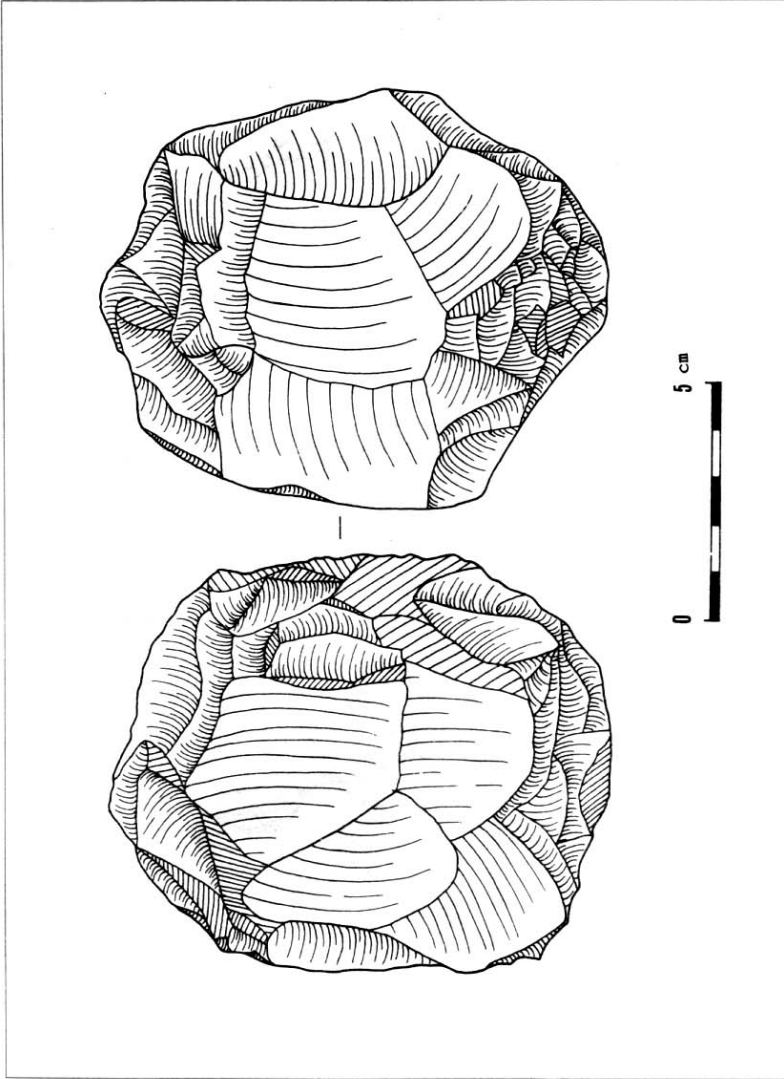


그림 9. 부동리 I 채집 팔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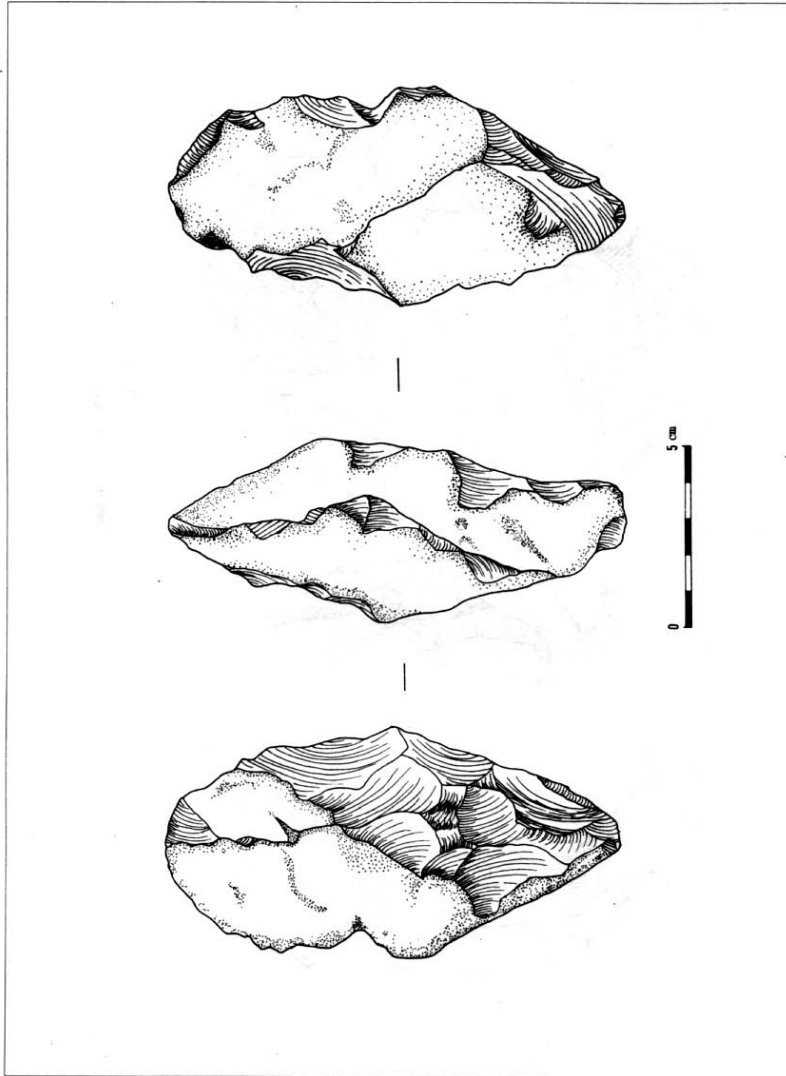


그림 10. 부동리 I 채집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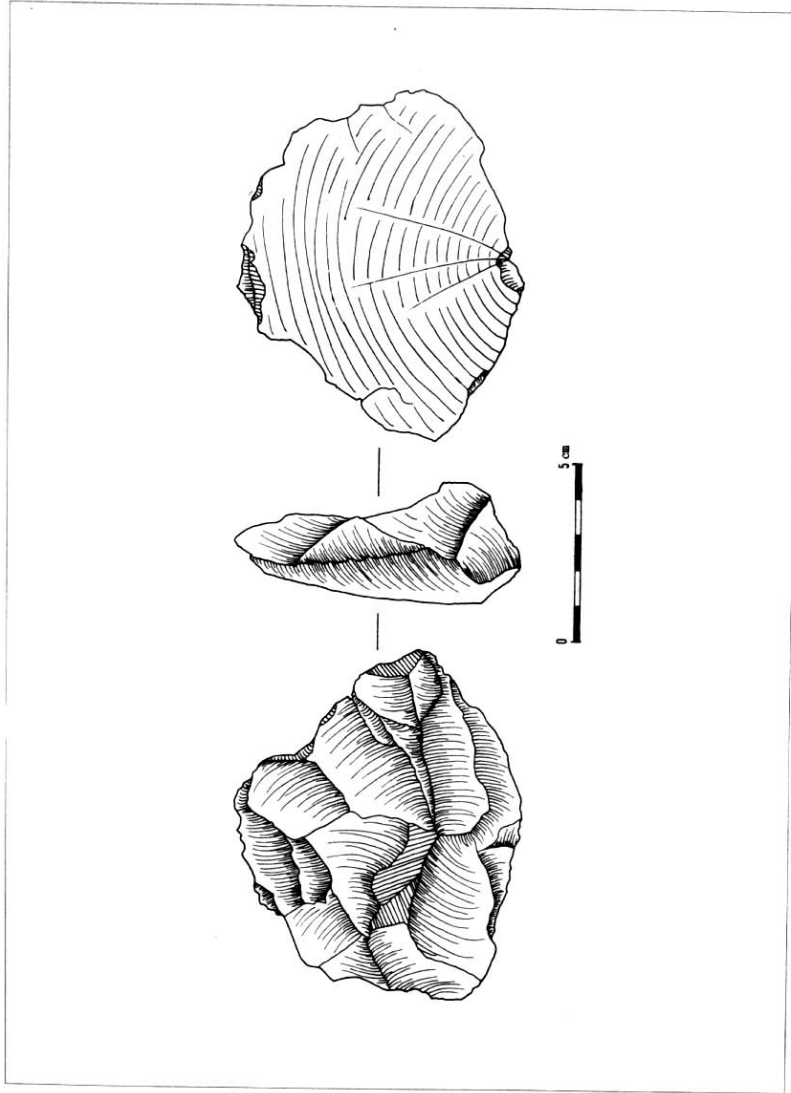


그림 11. 부동리 1 채집 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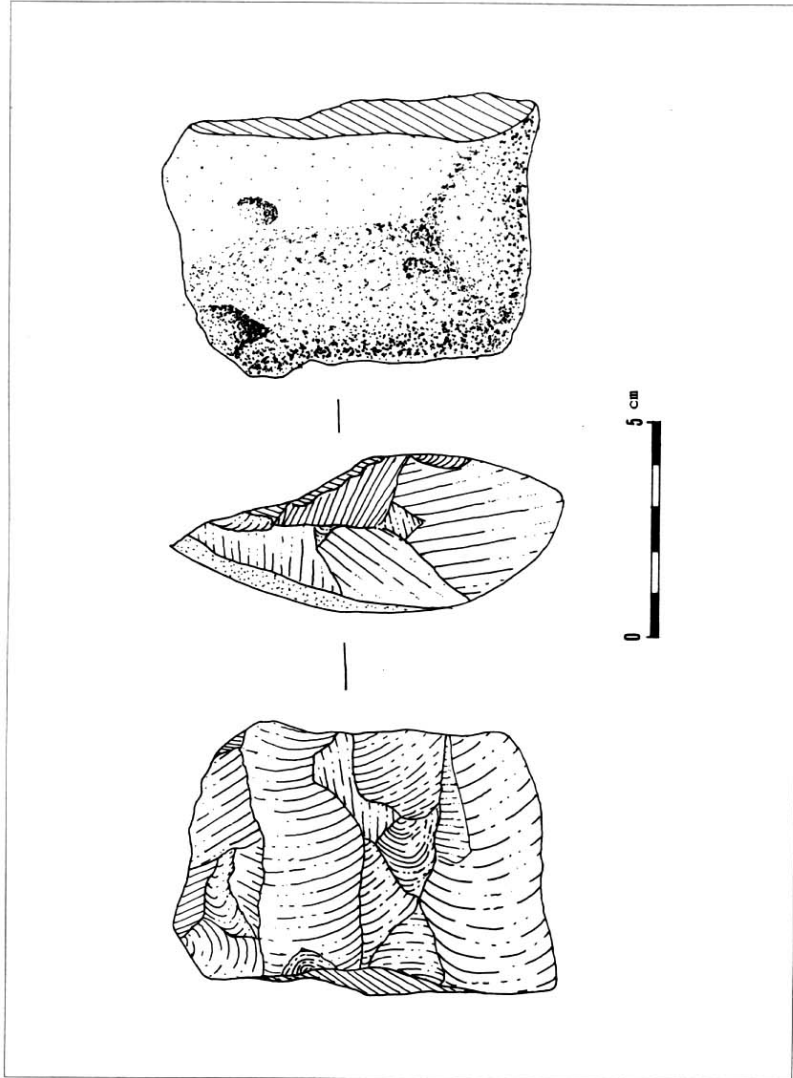


그림 12. 부동리 I 채집 찻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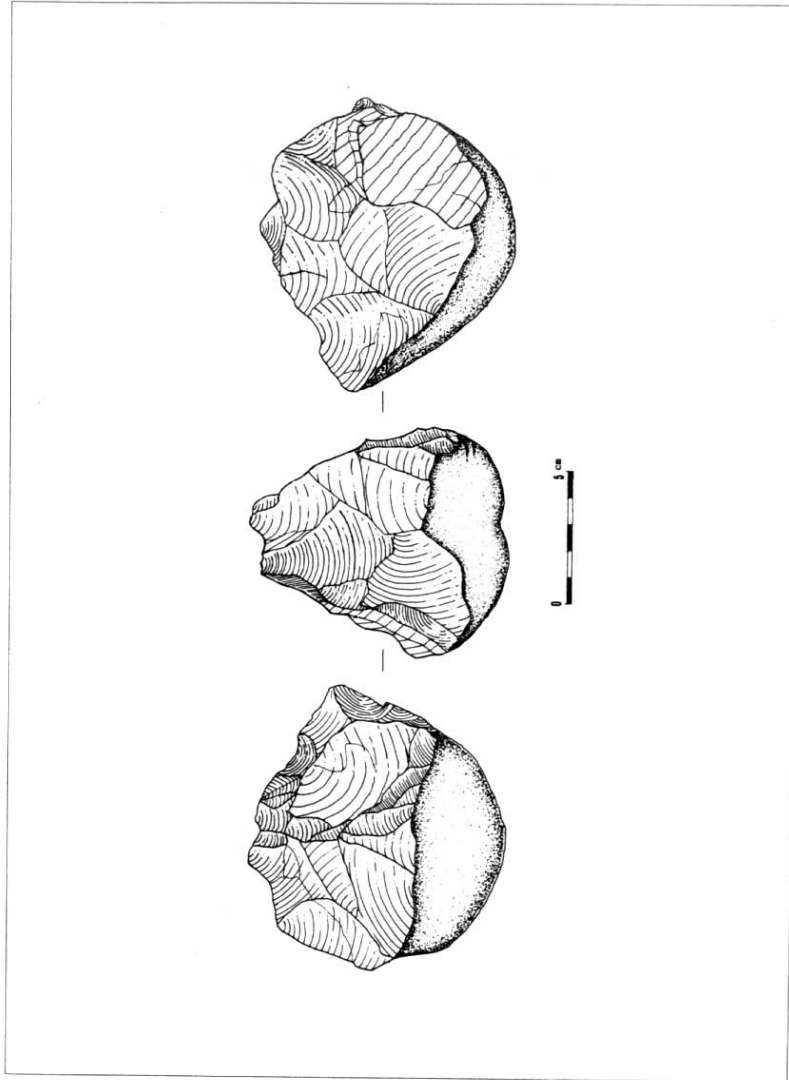


그림 13. 부동리 I 채집 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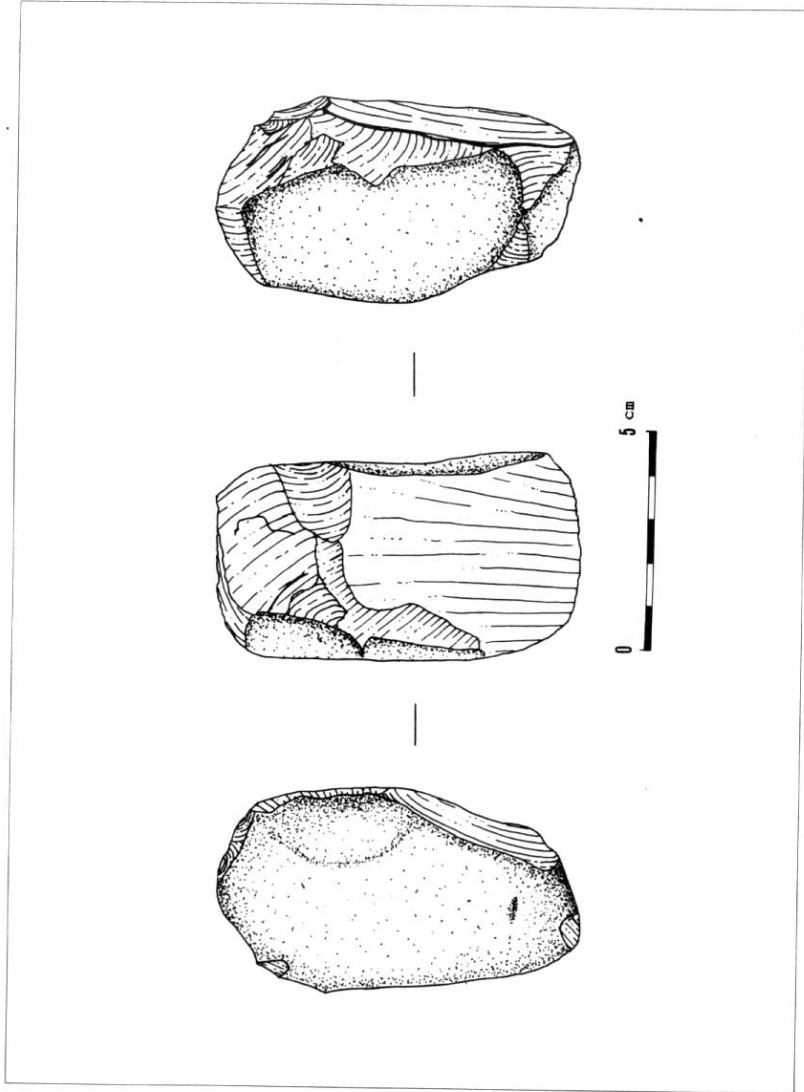


그림 14. 부동리 I 채집 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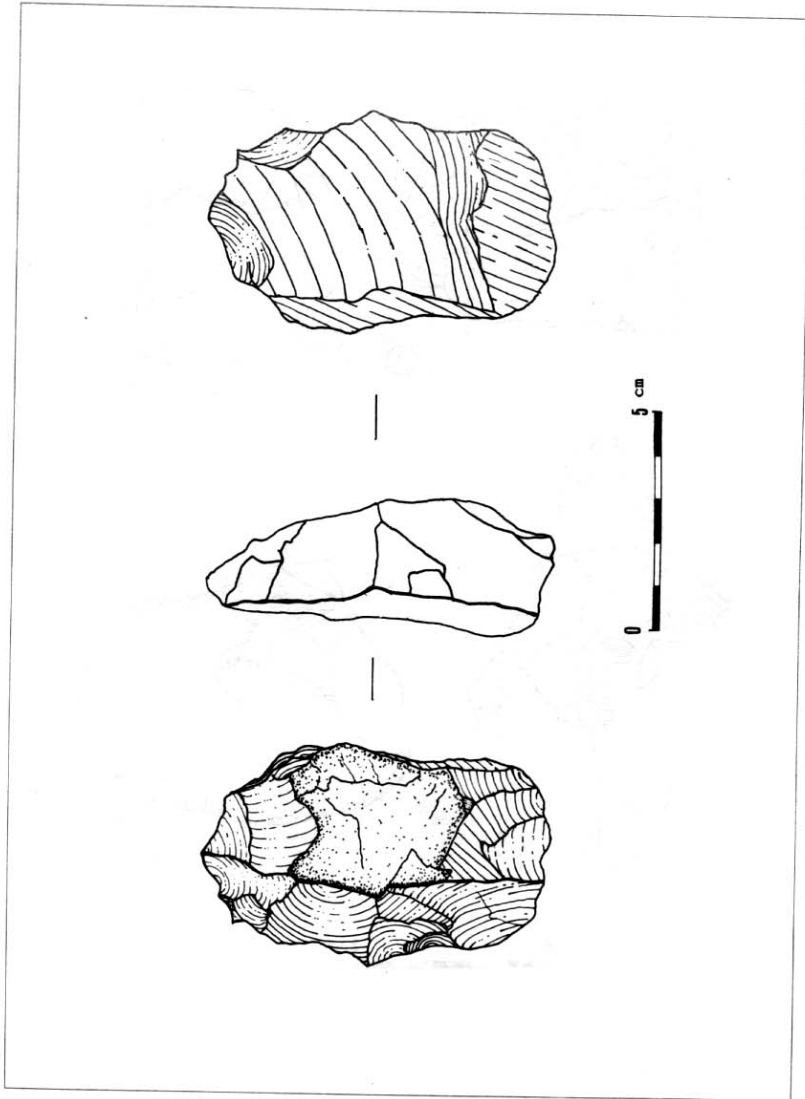


그림 15. 부동리 I 채집 굽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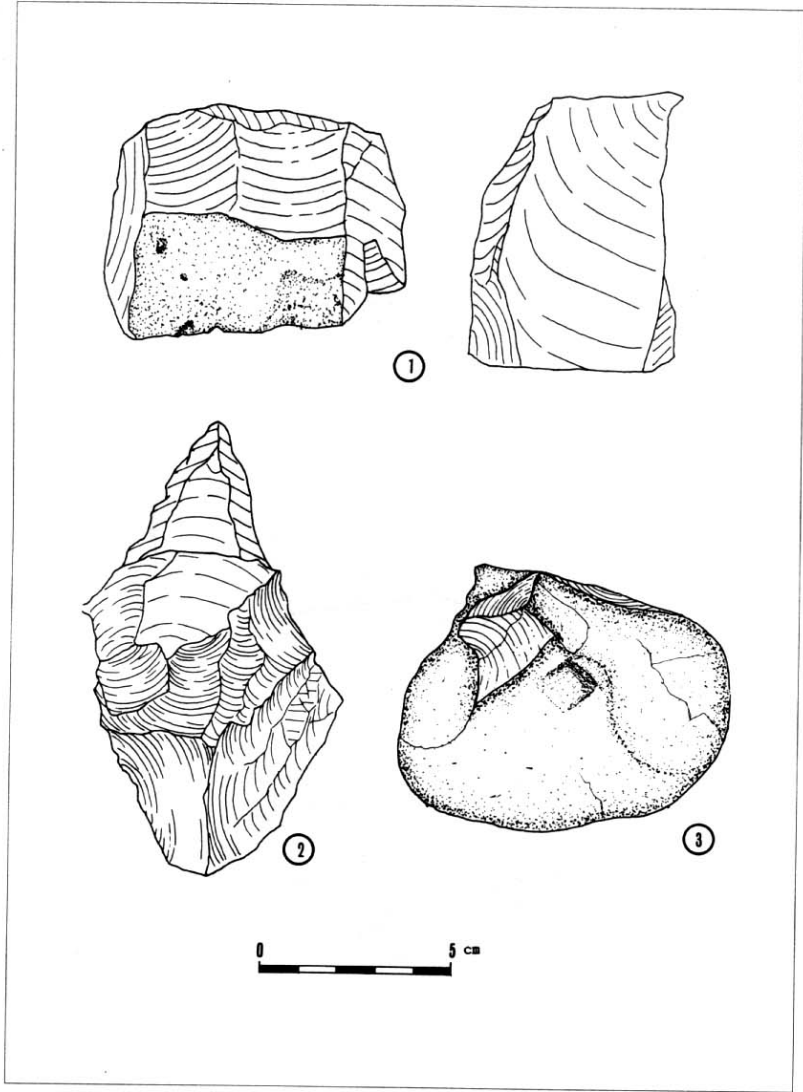


그림 16. 부동리 I 채집 석기 (①대패 · ②찌르개 · ③망치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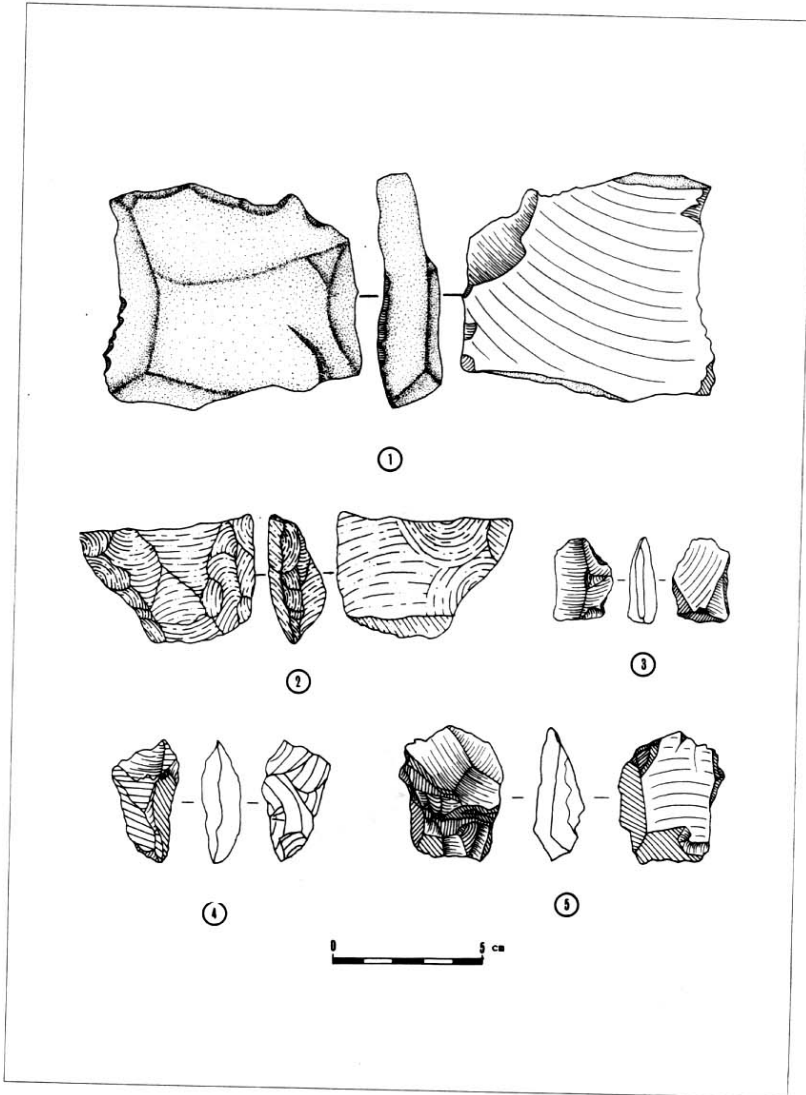


그림 17. 부동리 I 채집 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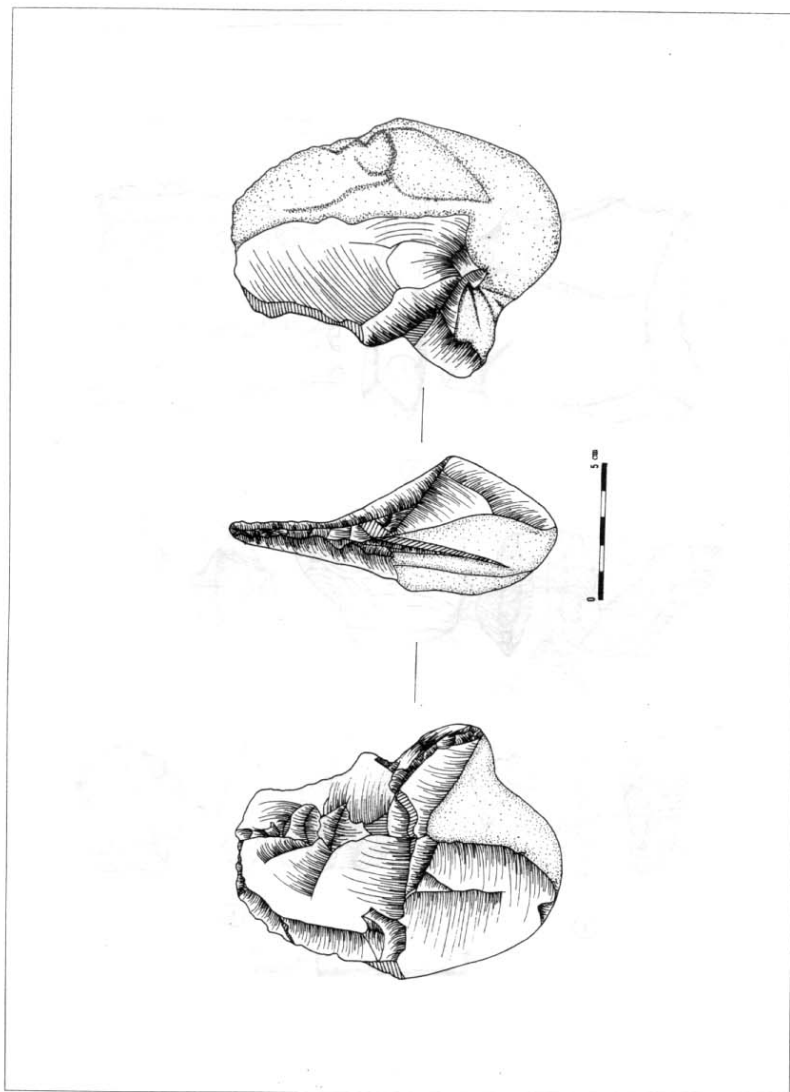


그림 18. 부동리 Ⅱ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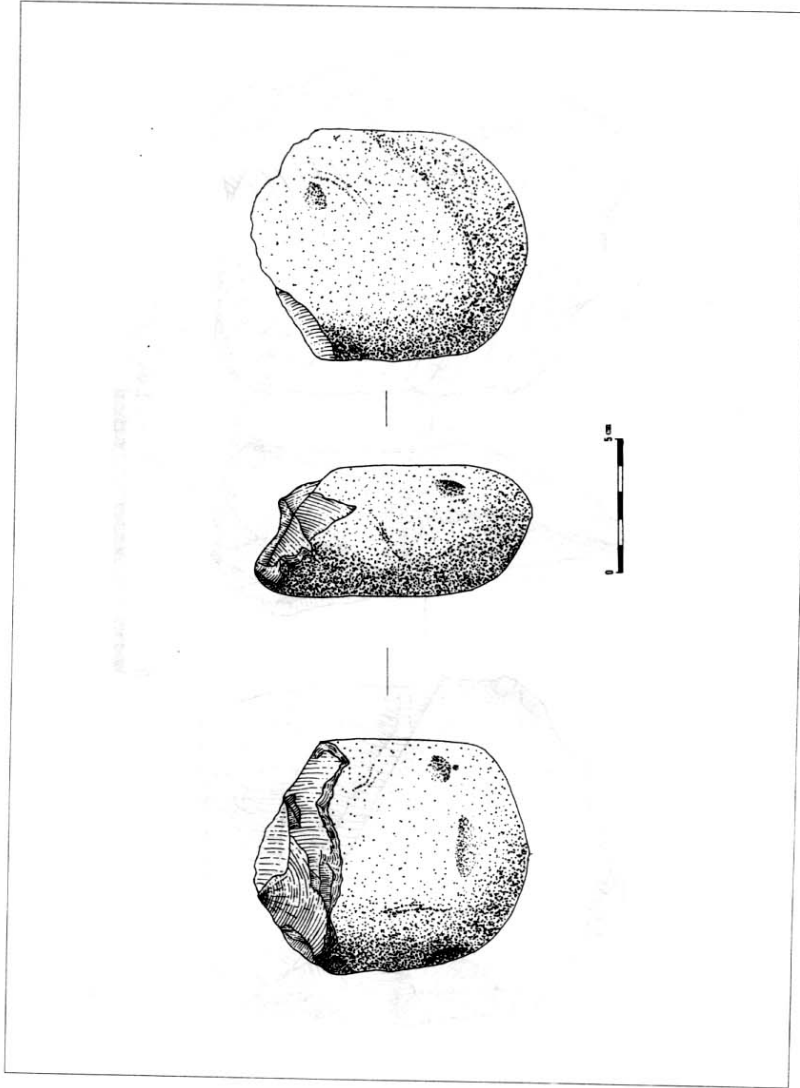


그림 19. 부동리 II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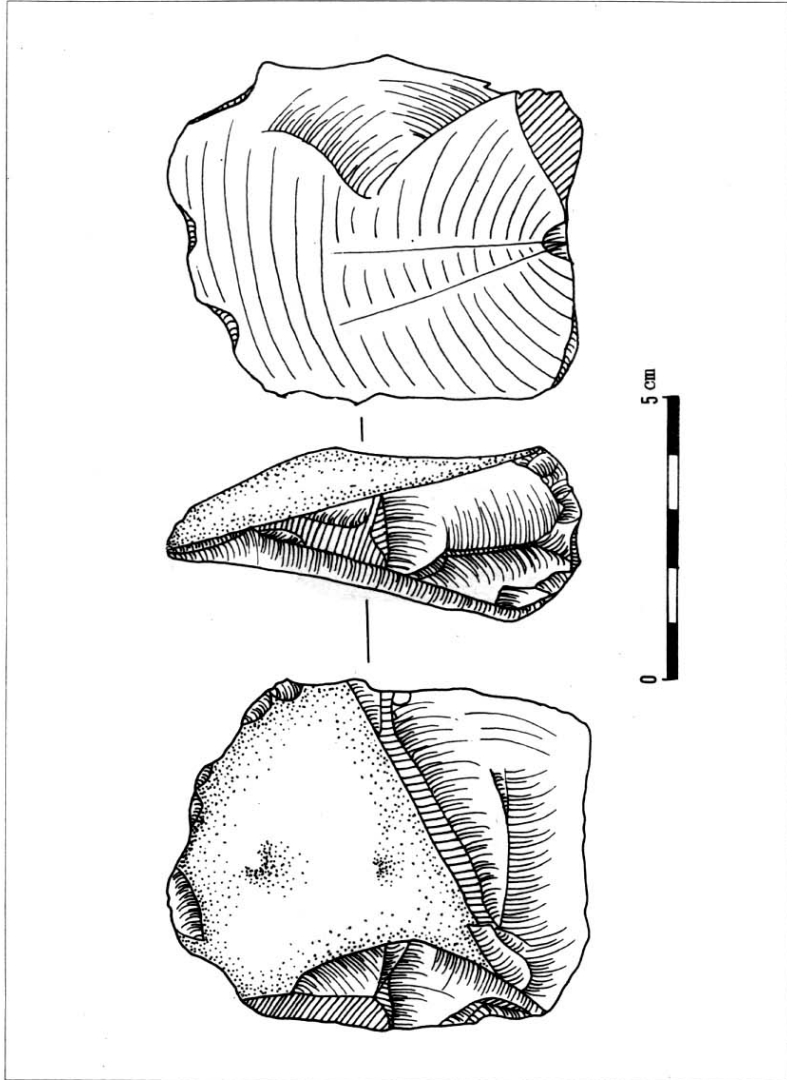


그림 20. 부동리 II 채집 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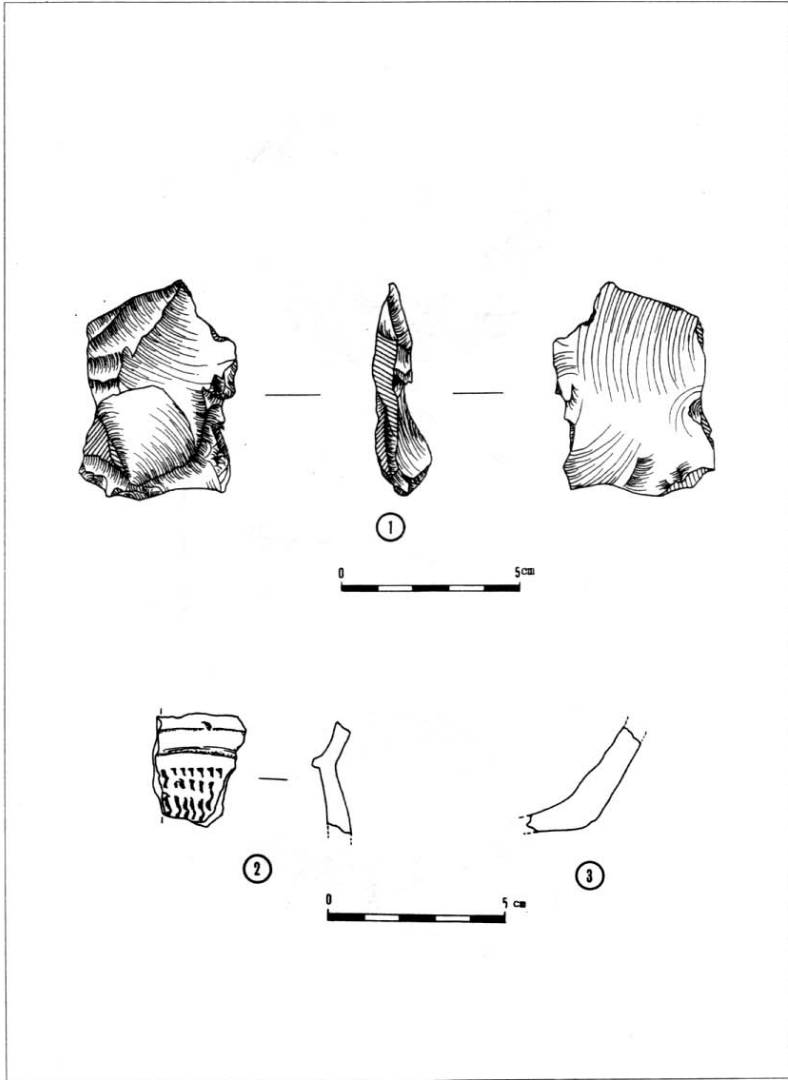


그림 21. 부동리 II 격지(①) 및 두드림무늬토기(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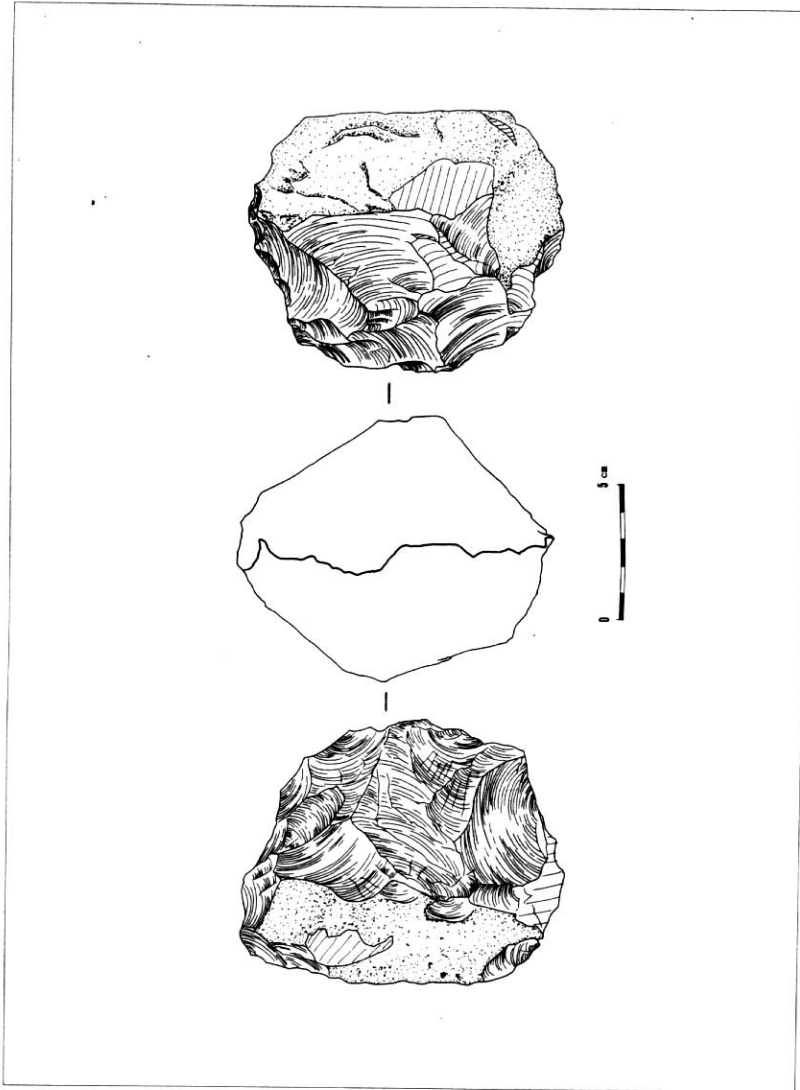


그림 22. 화전리 채집 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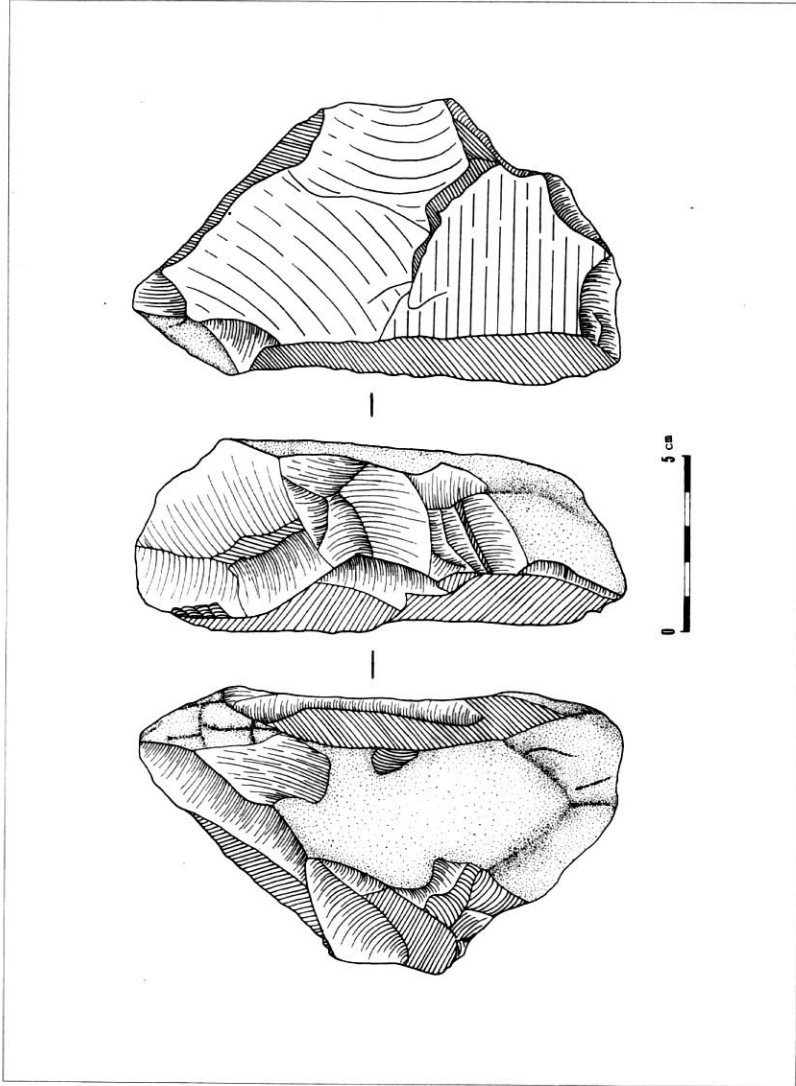


그림 23. 화전리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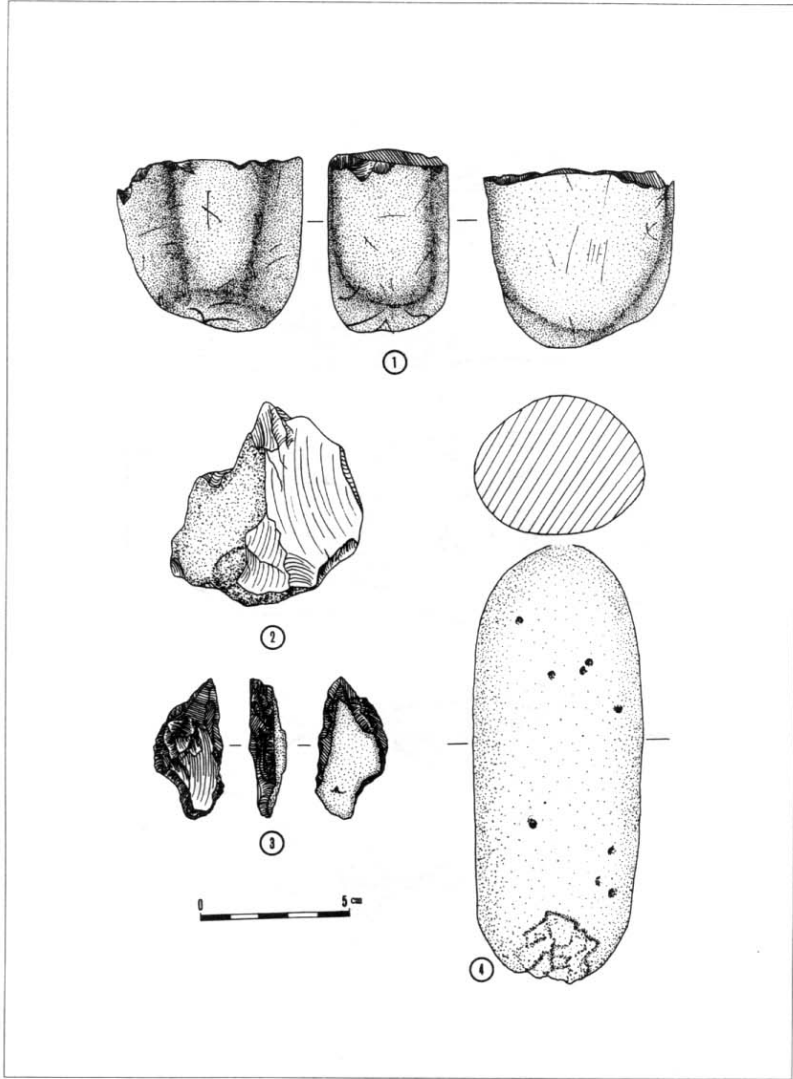


그림 24. 화전리 채집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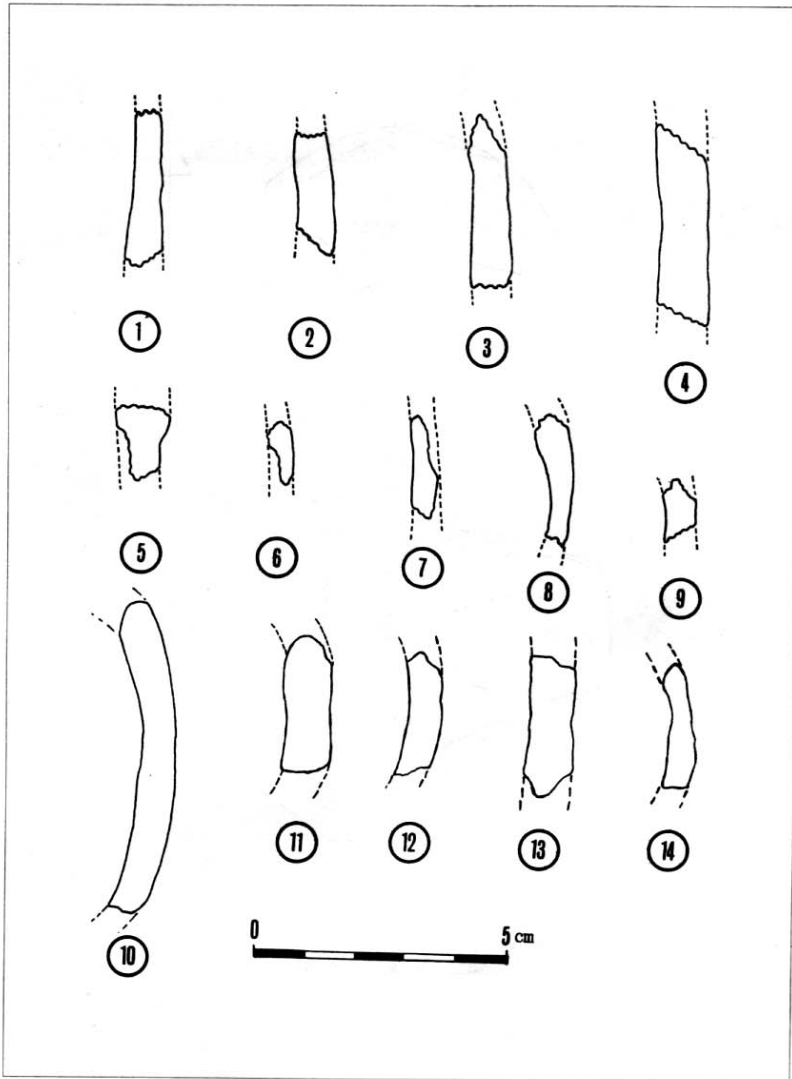


그림 25. 화전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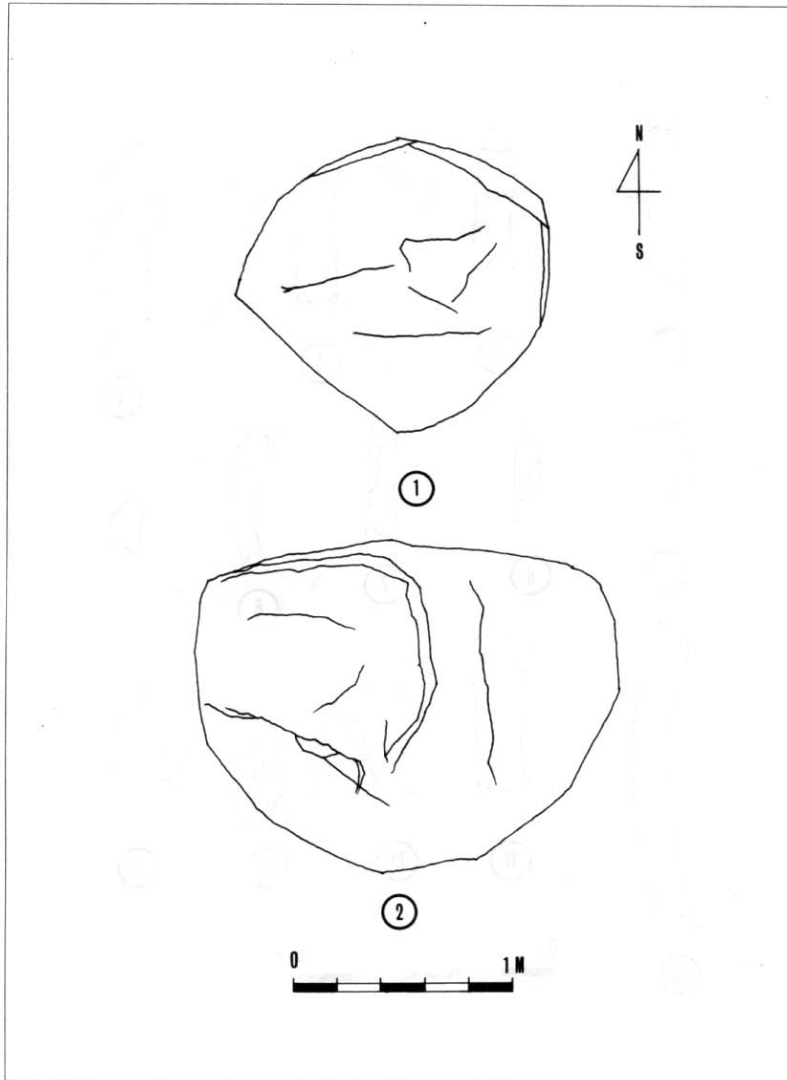


그림 26. 화전리 1호(①)·2호(②) 고인돌 평면도



사진 1. 중금리 빗살무늬·민무늬토기 산포지



사진 2. 중금리 유적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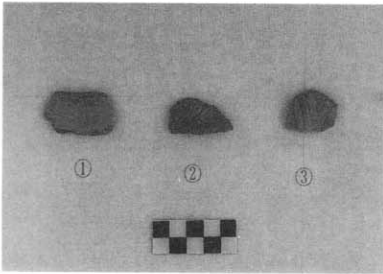


사진 3. 중금리 채집 빗살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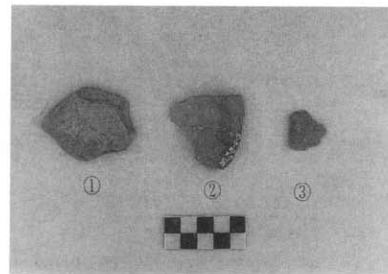


사진 4. 중금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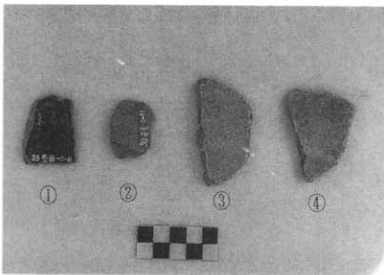


사진 5. 중금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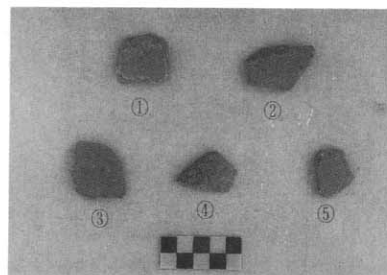


사진 6. 중금리 채집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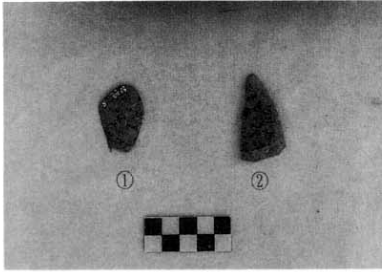


사진 7. 중금리 채집 간석기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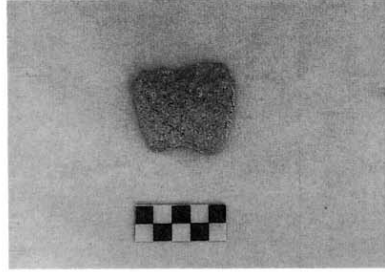


사진 8. 중금리 채집 돌그물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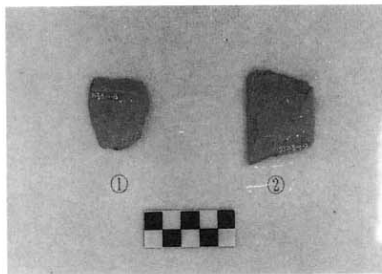


사진 9. 중금리 채집 맨석기



사진 10. 중금리 채집 보습



사진 11. 중금리 채집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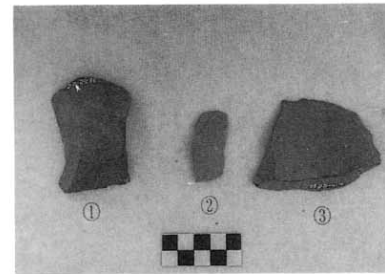


사진 12. 중금리 채집 석재(①) 및 격지(②·③)



사진 13. 중금리 1호 고인돌



사진 14. 중금리 2호 고인돌



사진 15. 중금리 3호 고인돌



사진 16. 중금리 3호 고인돌 성형 모습



사진 17. 부동리 I 구석기 유적



사진 18. 부동리 I 구석기유적 조사 모습



사진 19. 부동리 I 채집 팔매돌



사진 20. 부동리 I 채집 팔매돌



사진 21. 부동리 I 채집 주먹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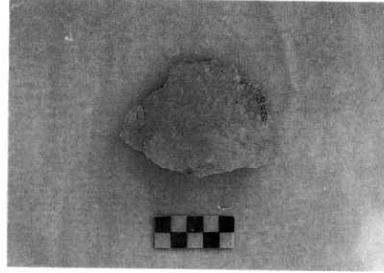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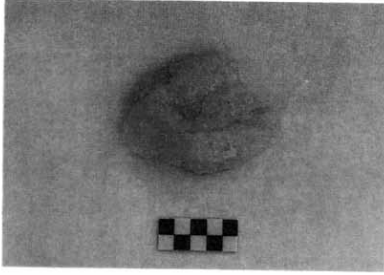


사진 22. 부동리 I 채집 찍개



사진 23. 부동리 I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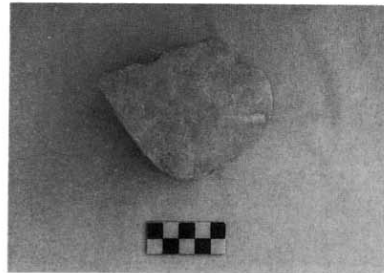


사진 24. 부동리 I 채집 찍개



사진 25. 부동리 I 채집 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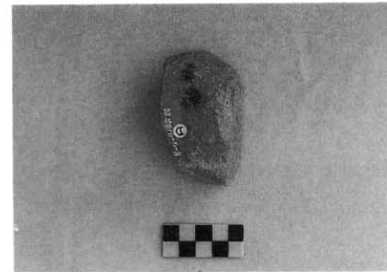


사진 26. 부동리 I 채집 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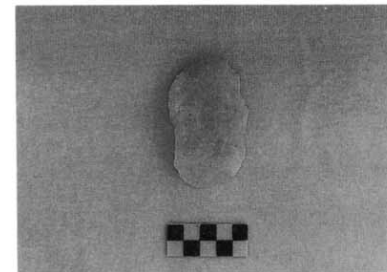


사진 27. 부동리 I 채집 금개



사진 28. 부동리 I 채집 찌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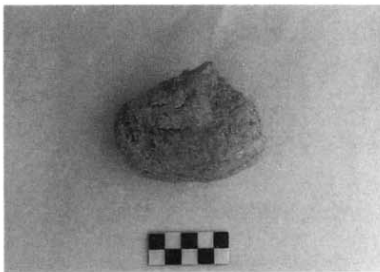


사진 29. 부동리 I 채집 망치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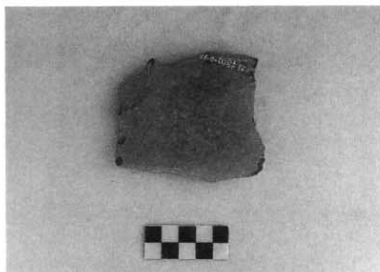


사진 30. 부동리 I 채집 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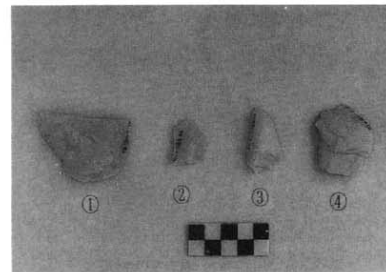


사진 31. 부동리 I 채집 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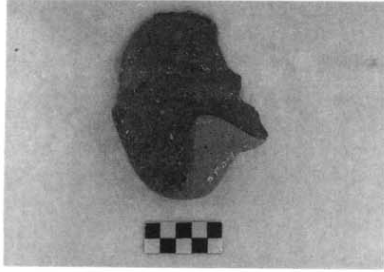


사진 32. 부동리 II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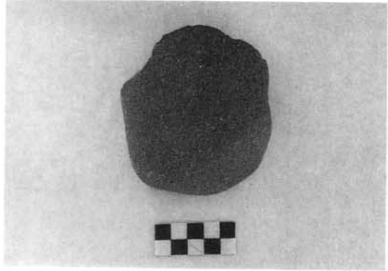


사진 33. 부동리 II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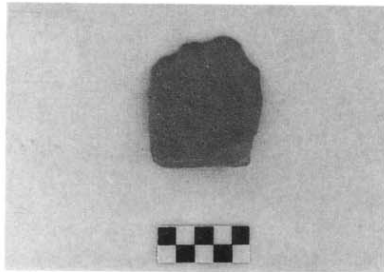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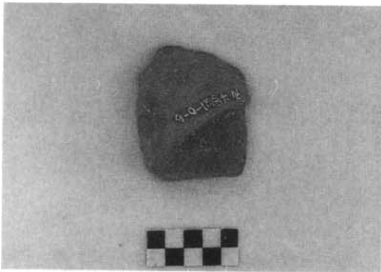


사진 34. 부동리 II 채집 굽개



사진 35. 부동리 II 채집 격지



사진 36. 부동리 초기철기시대유적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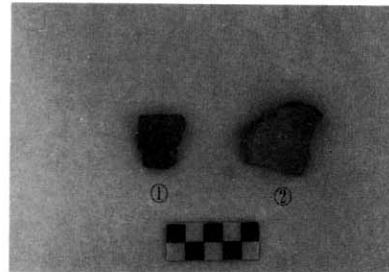


사진 37. 부동리 채집 두드림무늬토기



사진 38. 화전리 유적 전경



사진 39. 찌개가 드러난 모습(화전리)



사진 40. 화전리 채집 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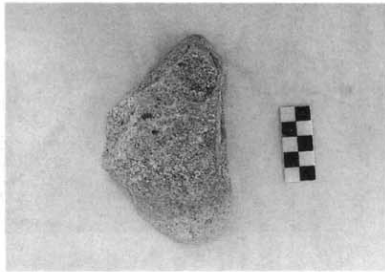


사진 41. 화전리 채집 찍개



사진 42. 화전리 채집 덜된연모



사진 43. 화전리 채집 새기개



사진 44. 화전리 채집 갈돌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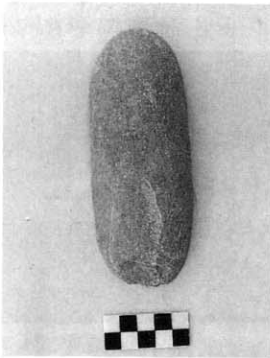


사진 45. 화전리 채집 망치들



사진 46. 화전리 민무늬토기 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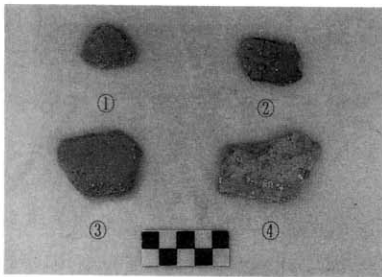


사진 47. 화전리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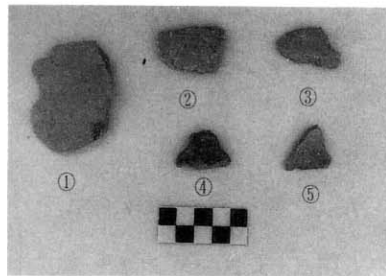


사진 48. 화전리 민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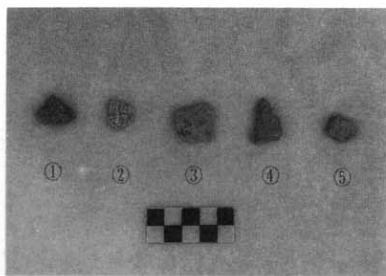


사진 49. 화전리 민무늬토기



사진 50. 화전리 1호·2호 고인돌 모습



사진 51. 화전리 1호 고인돌



사진 52. 화전리 2호 고인돌



사진 53. 구방리 간돌화살촉 출토지점



사진 54. 구방리 출토 간돌화살촉

황성댐 수몰지역의 고건축 조사

최복규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상태 (강원대학교 대학원)

1. 조사일정과 조사단 구성

황성댐 지역의 고건축분야에 대한 조사는 고고분야의 조사와 병행되었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되었다. 고건축분야의 조사단은 다음과 같다.

책임연구원: 최복규(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홍영호(강원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김상태(강원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보 조 원: 홍성학·이은희·신윤주(사학과 2학년)

안혜원(사학과 1학년)

2. 조사경위

황성댐의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은 갑천면(甲川面) 일대로서, 대관대리(大官垓里), 중금리(中金里), 구방리(舊坊里), 포동리(浦洞里), 매일리(梅日里), 화전리(花田里), 부동리(釜洞里) 등을 포함하는 계천(桂川)의 강유역이 된다.(지도 1-⑧)

수몰 예정지인 갑천면 일대의 역사는 이미 이 지역에서의 고고분야 지표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일부 소규모지만 빗살무늬토기편이 발견되었으며, 청동기시대의 고인돌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구석기시대부터 이 지역은 꾸준히 사람이 살아왔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수몰되는 지역은 주변의 험준한 산록의 계곡 사이를 흐르는 계천(桂川) 주변 일대로서, 강의 흐름으로 인해 발달한 소규모의 하안단구가 드문드문 나타나 있다.

주변의 산세는 비교적 험준한 편으로 보통 300~400m사이의 해발고도를 갖고 있는 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계천(桂川)은 그 발원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극히

적은 범위에서의 하천운동만이 가능했을 것이고, 형성된 단구지형은 비교적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왔을 것이다. 현재의 가옥들은 대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단구지형을 터로 삼아 분포되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편찬당시의 갑천면 일대는 약 350여 가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금리와 갑천리가 가장 큰 규모의 리로써 약 100여호가 살았던 곳이었다. 오늘날은 갑천면 소재지로 되어 있는 메일리가 가장 조밀한 인구밀도를 나타내며, 갑천면 일대에는 84년 현재 1,193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황성군지,1984)

이 지역 주민의 주업은 농업이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옥의 구조는 중부내륙지방의 농가구조와 크게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채 10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그나마 1960년대 이후에 진행된 근대화의 영향으로 슬레이트나 양철지붕으로 개량된 모습이다. 게다가 1981년에는 황성읍내까지 포장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주된 생활권이 급속히 황성읍으로 옮겨갔으며, 따라서 조금 오래된 건축물은 빠른 속도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가옥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예는 중금리 22번지 소재, 양태환씨 가옥이다. 약 70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한다. 전체 가옥 가운데 대문을 포함한 사랑채만이 그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그나마 지붕은 근래에 슬레이트로 교체된 것이라고 한다.(사진1)

정면 5칸, 측면 한칸집으로 땅위에 약 60cm정도의 축대를 다듬지 않은 자연석과 진흙을 이용해 쌓은 후, 기둥을 세웠다. 현재 대문의 좌측은 방으로 이용되고, 우측은 외양간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사진2)

따라서 수물지역 내에 사실상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건축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중금리 지역에 남아 있는 옛절터만이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조사대상물이 된다.

3. 조사내용

1)중금리 절터

- ① 위치:황성군 갑천면 중금리 484번지
- ② 시대:통일신라시대
- ③ 유적 현황

가. 석탑

동일한 양식과 수법으로 만들어진 2개의 석탑이 동서로 약 8미터의 거리를 두고 서 있다.(사진 3) 이 석탑에 대한 보고는 이미 일제시대 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나타나 있으며, 이후 1965년 정영호에 의해 처음으로 비교적 소상히 소개가 되었다. (考古美術 제 6권 5호 1965) 조사 당시 두 개의 석탑 가운데 동탑은 무너져 있었으며, 각 부재(部材)들은 민가의 장독대 받침이나 다리의 난간등으로 쓰여 지고 있었다고 하며, 1974년에 이들을 모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였다. 현재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9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도면 1과 2는 현재 남아 있는 석탑을 실측한 것이다.(강원도, 1990)

석탑의 양식은 2층기단에 3층석탑으로 전형적인 방형중층(方形重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일반형 석탑이다. 동탑의 현재 높이는 443.7cm(사진 4), 서탑은 427.3cm(사진 5)이다. 현재 하층기단부는 물려있는 상태이나 이전에 조사된 자료를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다. 하대중석은 얇은 두께로 중앙부에 하나의 탕주(撐柱)와 양 끝에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하대갑석(下臺甲石) 윗면은 2단의 상대중석받침이 있는데, 각형(角形)과 물딩의 받침으로 상대중석(上臺中石)을 받치고 있다.

노출되어 있는 상층기단부의 중석 또한 중앙에 하나의 탕주(撐柱)와 양 우주(隅柱)가 있으며, 탕주에 의해 나누어진 여덟면의 면석에 각각 팔부신상(八部神像)을 좌상(坐像)의 형태로 새겨 넣었다.(사진 6~13) 동탑은 복원시에 부재를 무분별하게 조립한 결과 현재 신상조각이 그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또 무너져 있을 때의 손상으로 인하여 조각이 많이 닳아있는 상태이다. 상대갑석은 부연(附緣)을 갖고 있으며 갑석 윗면에 2층의 물딩된 옥신받침이 피여져 있다.

탑신부는 기단부와 마찬가지로 한국탑과의 전형적인 체감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안정되고 중후한 느낌을 갖게 한다.

각각의 옥신부(屋身部)는 우주가 정연하며, 면석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옥개석(屋蓋石)은 모두 5층씩의 옥개받침을 갖고 있으며 그 윗면에 2층의 옥신받침이 양각되어 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으며 전각(轉角)의 반전(返轉)도 경박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처리되어 있다.

낙수면의 끝에서부터 최초 옥신받침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간격을 낙수홈으로 처리하고 있다. 옥개석의 전각 끝부분에는 풍경(風磬) 따위가 매달렸을 듯한 구멍이 뚫려 있다.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위에 북발부분으로 생각되는 화려하게 조각된 부재가 올

려져 있으며, 삼층옥개 윗부분부터 이를 관통하는 찰주공(擦柱孔)이 남아있다.

나. 기와편

탐 주위를 비롯한 주위 논밭 일대에 상당히 많은 기와편이 흩어져 있다. 수집된 기와의 문양은 다양하며 모두 평기와들이다. 크게 보아 기와는 빗금무늬(線條紋), 나뭇가지무늬(樹枝紋)기와가 대다수이며, 기하학무늬 기와가 소수 포함되어 있다. 기와의 아랫면은 거의 마포자국이 남아 있다. 기와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표 1,2>와 같다.

a. 빗금무늬 기와편

탐본 1-14(사진 14-17)는 모두 빗금무늬 기와로 2,8,12는 휘임새로 보아 수키와편이며, 나머지는 암키와편이다.

탐본 1-4는 연질의 기와로 모래가 거의 없는 태토에 색상은 회색이나 회백색으로 상당히 고식(古式)의 것들이다. 5번은 같은 태토에 색상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두께는 15cm에서 22cm까지 다양하다.

탐본 6-14까지는 경질의 기와로서 태토에 상당히 많은 모래가 혼합되어 있고, 때로는 너무 굵은 모래를 사용함으로써 구울때의 온도전달 차이로 인해 갈라터진 것들도 상당수 있다. 대부분 회색계통이며 두께는 14cm에서 23cm까지 다양하다.

이들 빗금무늬 기와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 절이 창건되던 당시의 기와들일 것이며, 태토면이나 굵기정도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두 기와군은 아마도 한번의 개와(改瓦)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b. 나뭇가지무늬 기와편

탐본 16-25(사진 17-19)까지는 나뭇가지무늬 기와들로 16,17,18은 약간 변형된 무늬이고 나머지는 전형적인 것들이다. 17과 19는 수키와편이고 나머지는 암키와편이다.

탐본 24번은 회백색의 연질기와이며 그 외에는 모두 연회색·질은 회색의 경질기와들이다. 두께는 11cm에서 24cm까지 다양하다.

탐본 15번 기와는 그 무늬가 마름모꼴인 바, 단독으로 베풀어진 무늬인지 나뭇가지무늬와 혼합된 것인지 그 조각이 작아 구별키 어렵다. 이 기와는 여말선초의 것으로 보여지며, 나머지 대다수의 나뭇가지무늬 기와는 고려시대의 것이다.

c. 기타

탐본 26(사진 19)은 나뭇가지무늬에 기하학문양이 혼합된 것으로 암키와편이다. 여말선초에 주로 나타나는 기와문양이다. 두께는 19cm이며, 모래가 많이 함유된 질은 회색의 경질기와이다. 아랫부분은 마포자국이 있다.

탐본 27,28(사진 19)은 모두 기하학적 문양이 베풀어진 암키와들로 27은 흑색, 28은

회색의 경질기와이다. 두께는 모두 21cm이며 조선시대의 기와들이다.

④ 유적의 성격과 대책

중금리의 절터유적은 초기양식의 빗금무늬 기와편들에서나 탑과의 조각수법에서 그 시기를 통일신라후기로 잡을 수 있다. 다만 석탑에서 보이는 비교적 안정된 체감율과 무게감, 낙수면의 처리에서 경박하지 않은 세련됨, 잔 기교가 많지 않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9세기 말에 나타나는 일련의 세장(細長)하고, 옥개석의 두께가 현저히 얇아지며, 무게감을 상실하여 경박스러운 느낌을 주는 탑들에 비해 그 시대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기와편들에서도 통일신라시대의 연결 빗금무늬기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석탑의 양식과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보다 최근의 조선시대 기와편들이 의외로 적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설명을 할 수 없겠으나,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의 기와까지 발견되는 것은 중금리의 절이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존속했던 것이고, 그 사이에 여러번 중축 내지는 개축이 있었고, 조선시대 전반기 어느때 쯤에 폐사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중금리 절터의 중요성은 또 다른 곳에 있는데, 쌍탑을 갖고 있는 가람배치가 그것이다. 쌍탑을 구비한 가람배치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야 나타나는 양식으로, 신라 문무왕 삼국통일 후에 지어진 사천왕사(四天王寺)절터에서 그 예가 처음 나타난다. 이러한 쌍탑양식 출현의 배경은, 최초의 탑이 예배의 대상으로 세워지던 것에서 통일신라의 불교미술 발달이 정점에 이르러 가면서 차츰 사원장엄(寺院莊嚴)의 한 방법으로 변화된 까닭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쌍탑양식을 갖는 사찰은 규모면에서나 지역의 영향력 면에서 그만큼 비중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횡성지역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삼국시대부터 이웃한 원주에 의해 늘 속현(屬縣) 정도인 작은 규모의 지역으로서 그 발전에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원도에서 조사된 바 없는 쌍탑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옛 선사(禪師)들의 기록 가운데 아직 이곳과 관련된 기록이 없으며, 기타의 지리지에서도 중금리 지역의 절터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기록이 없다. 따라서 중금리 절터를 문헌과 결부시키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장차 이루어질 발굴의 결과에 따라 소상한 전망(顛末)을 알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쌍탑은 하나의 금당과 어우러져 쌍탑일금당(雙塔一金堂)의 가람배치를 보이는 바, 중금리 절터도 시대적 맥락으로 보아 그러한 예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절터 배후의 야트막한 산지가 가람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발굴의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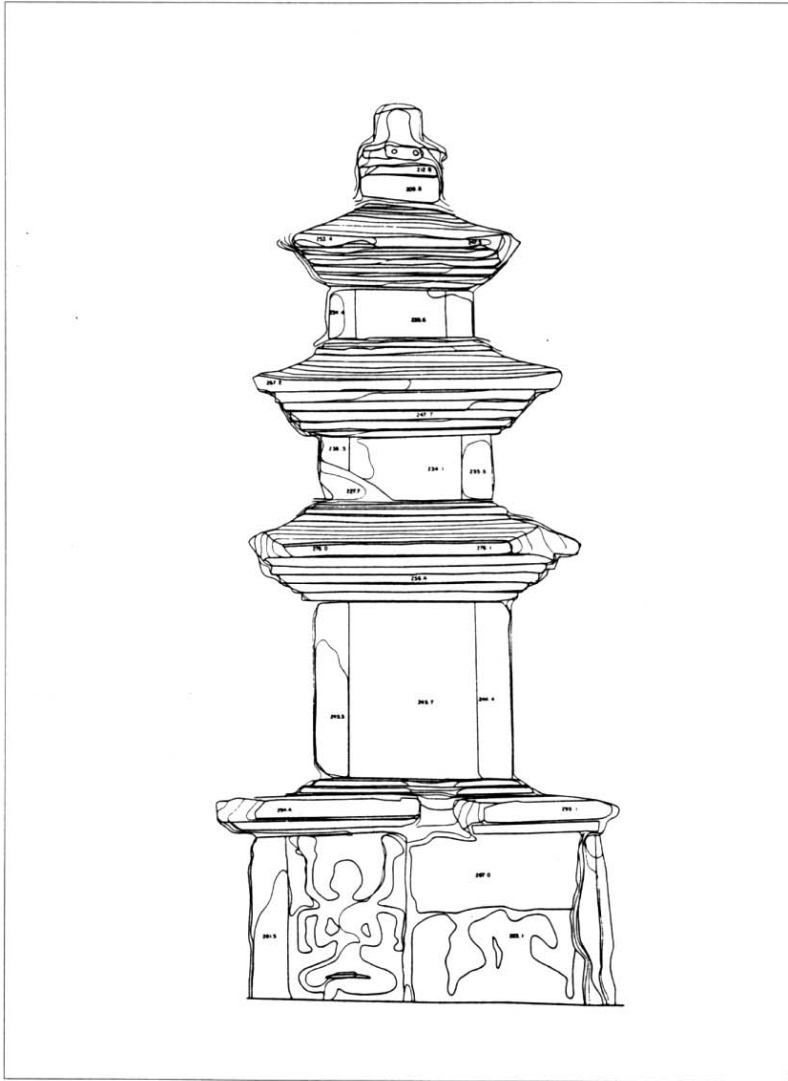
과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증금리 절터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더 진전되어야 한다. 지표조사시에 절 건축물의 일부로 보이는 일부 석재들이 아직도 마을 곳곳에 방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사진 14) 이는 여전히 절터와 관련된 유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지 못함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즉, 일단 눈에 보이는 탐만 보존한 것이고, 사실상 이 절터의 더 중요한 부분은 땅에 묻힌채로 천천히 파괴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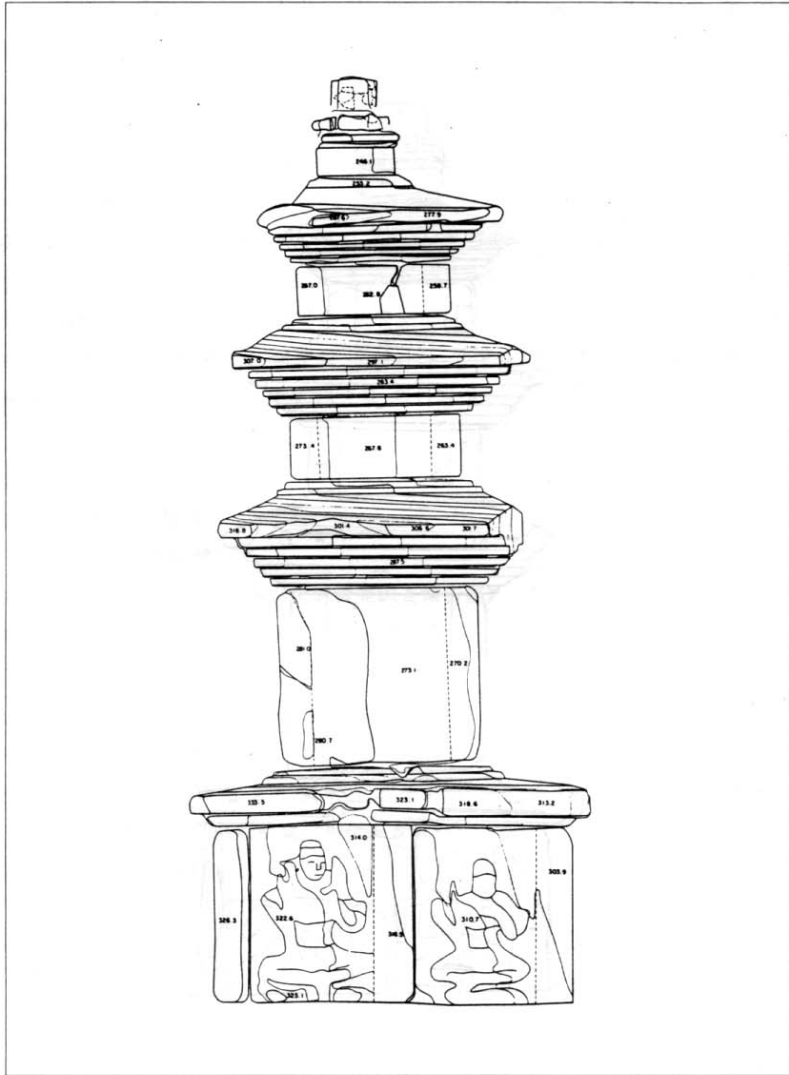
이러한 중요한 유적이 이전부터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며, 더구나 이번 댐공사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횡성댐 건설로 인해 이처럼 중요한 유적이 수몰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아까운 것이므로 이 일대의 정밀한 발굴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연구결과는 강원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대의 가람배치와 사원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평가된다.

參考文獻

1. 《輿地圖書》 卷 46
2. 《新增東國輿地勝覽》
3. 江原道, 1990. 《重要石造文化財實測調査報告書》
4. 江原道, 1993. 《江原道 郷校 書院 寺刹誌》
5. 江原道, 1993. 《江原文化財大觀》
6.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攬》
7. 辛種遠, 1983 <橫城郡內 寺址調査> 《江原文化研究》3집, 江原文化研究所
8. 鄭永鎬, 1965<橫城 中金里 雙塔과 新垈里 石塔> 《考古美術》 6-5, 통권58호.
9.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0. 橫城郡, 1984. 《橫城郡誌》



<도면 1> 중금리 동탑 정밀 실측도



<도면 2> 증금리 서탑 정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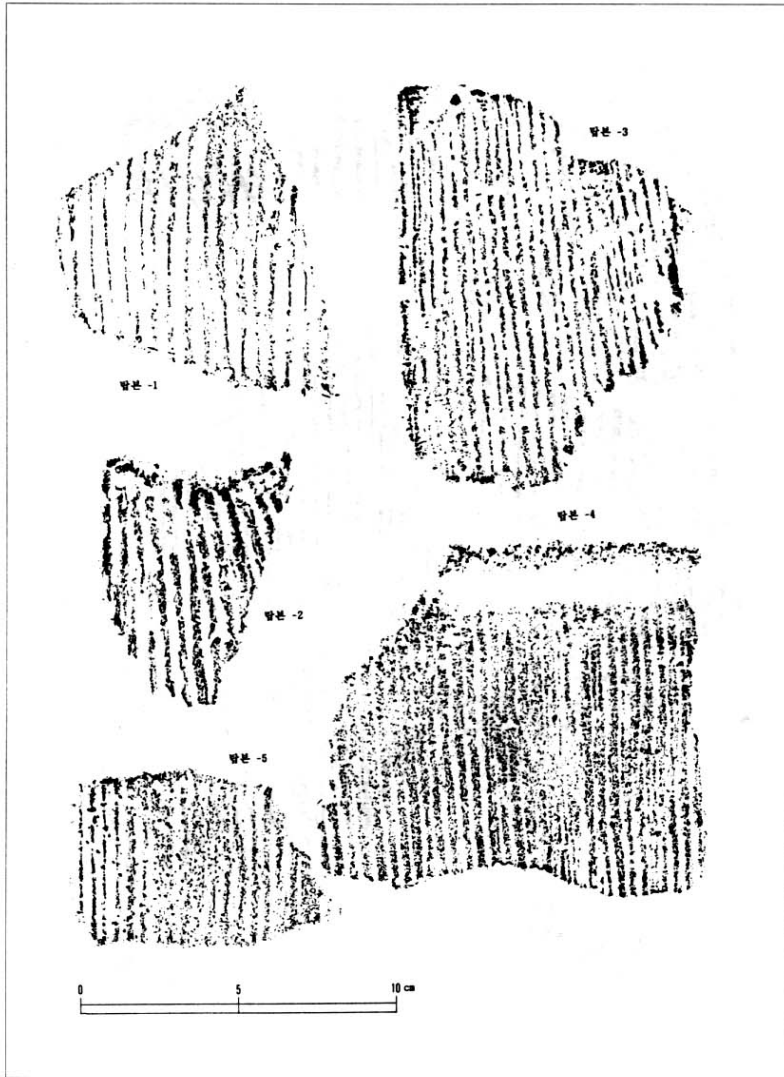
< 표 1 > 빗금무늬 기와 (번호는 답본번호)

번호	색상	두께(cm)	태도	종류	마포자국
1	회백색 연질	15	굵은모래 조금	암키와	없음
2	회색 연질	20	굵은모래 조금	수키와	있음
3	회백색 연질	22	모래 없음	암키와	있음
4	회백색 연질	22	모래 거의없음	암키와	있음
5	적갈색 연질	20	모래 많음	암키와	굵은 주름
6	회색 경질	20	모래 조금	암키와	있음
7	진회색 경질	21	모래 많음	암키와	굵은 주름
8	회색 경질	14	모래 많음	수키와	있음
9	회색 경질	23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10	회색 경질	23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11	회색 경질	24	굵은모래 조금	암키와	있음
12	회색 경질	14	모래 많음	수키와	있음
13	회색 경질	14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14	연회색 연질	20	고운모래 많음	암키와	없음

<표 2>나뭇가지무늬 기와(번호는 답본번호)

번호	색상	두께(cm)	태토	종류	마포자국
15	회색 연결	14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16	진회색경질	17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17	진회색경질	18	모래 많음	수키와	있음
18	진회색경질	20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19	진회색경질	11	모래 많음	수키와	있음
20	진회색경질	16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21	연회색경질	18	모래 많음	암키와	없음
22	연회색경질	24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23	연회색경질	14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24	회백색연질	28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25	회색 경질	24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26	진회색경질	19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27	흑색 경질	21	모래 많음	암키와	있음
28	회색 경질	21	모래 거의 없음	암키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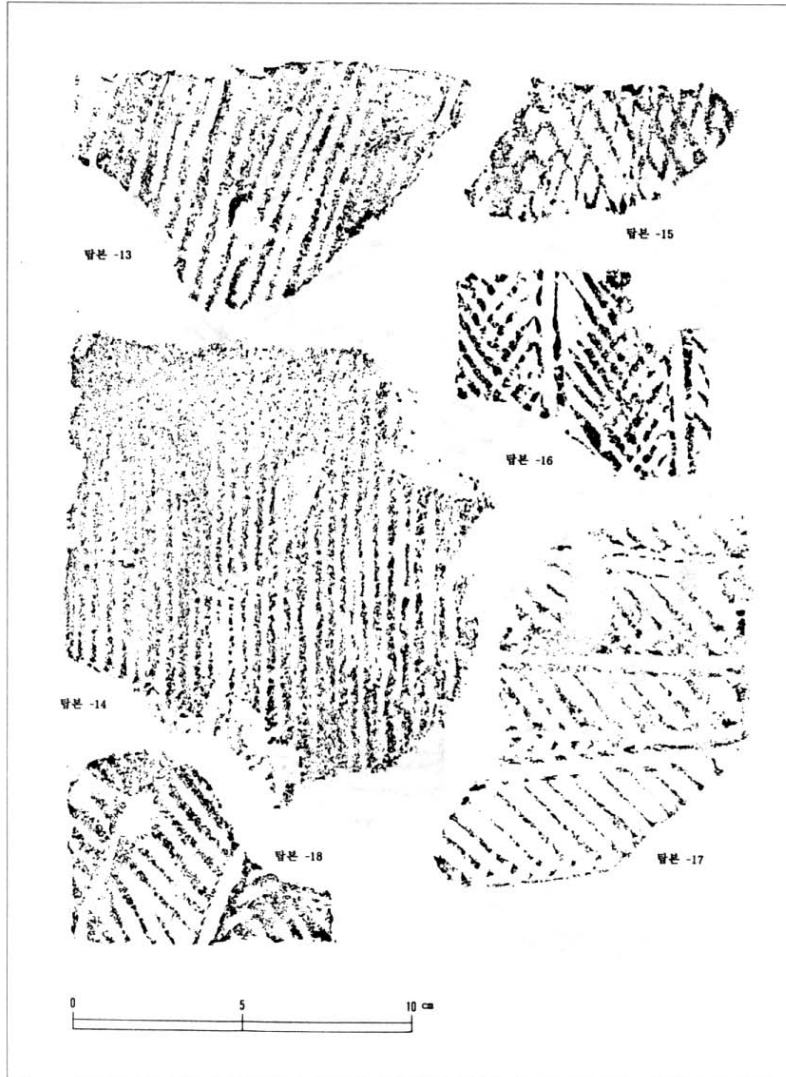
- * 15 번은 마름모꼴 무늬기와
- * 26은 나뭇가지무늬에 기하학무늬 혼합기와
- * 27,28은 기하학무늬 기와



(답본 1-5) 빗금무늬 기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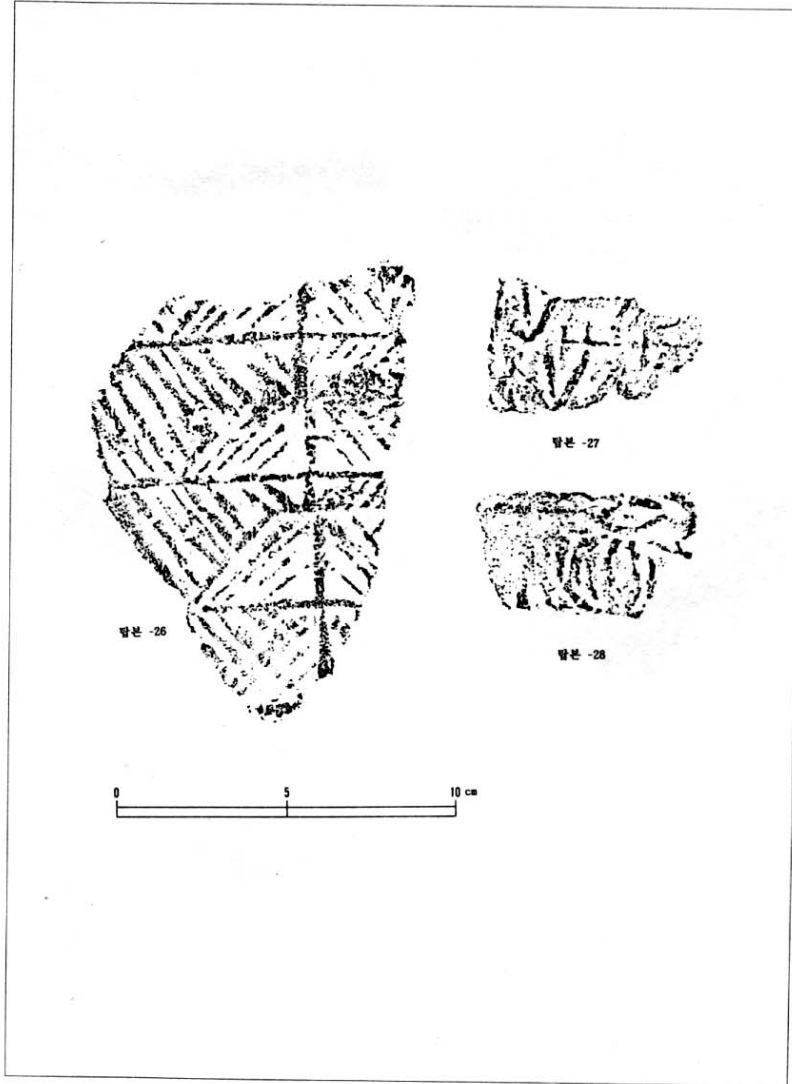
(답본 6-12) 빗금무늬 기와편



(답본 13-14) 빗금무늬 기와편
 (답본 15-18) 나뭇가지무늬 기와편



(답본 19-25) 나뭇가지무늬 기와편



(tampon 26) 나뭇가지무늬 기와편
 (tampon 27-28) 기하학무늬 기와편



사진 1. 양태환씨 가옥 사랑채 모습



사진 2. 양태환씨 가옥 사랑채 안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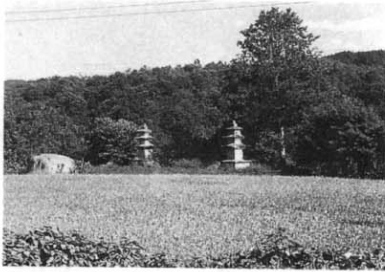


사진 3. 중금리 절터 쌍탑 전경



사진 4. 중금리 동탑



사진 5. 중금리 서탑



사진 6. 중금리 동탑 팔부신상(동편)



사진 7. 중금리 동탑 팔부신상(서편)



사진 8. 중금리 동탑 팔부신상(남편)



사진 9. 중금리 동탑 팔부신상(북편)



사진 10. 중금리 서탑 팔부신상(동편)



사진 11. 중금리 서탑 팔부신상(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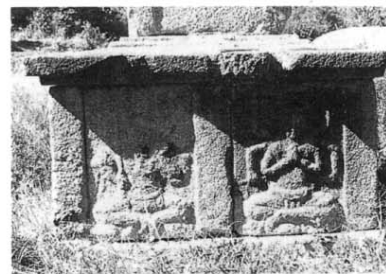


사진 12. 중금리 서탑 팔부신상(남편)



사진 13. 중금리 서탑 판부신상(북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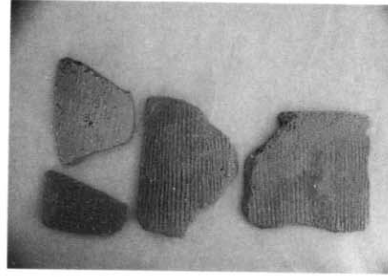


사진 14. 중금리 지표채집 기와(빗금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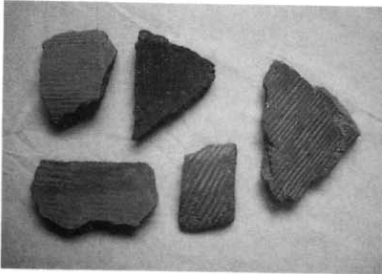


사진 15. 중금리 지표채집 기와(빗금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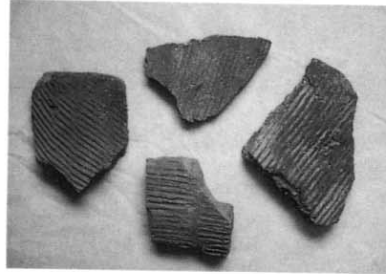


사진 16. 중금리 지표채집 기와(빗금무늬)



사진 17. 중금리 지표채집 기와
(빗금무늬, 나뭇가지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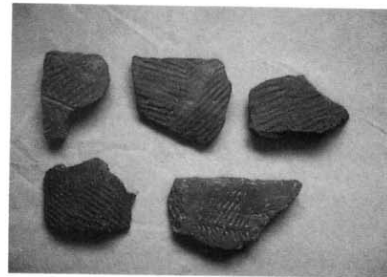


사진 18. 중금리 지표채집 기와(나뭇가지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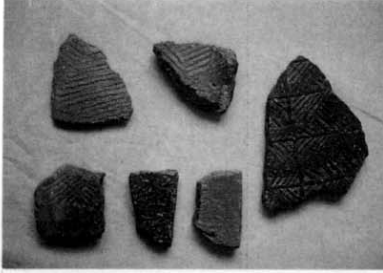


사진 19. 중금리 지표채집 기와
(나뭇가지무늬, 기하학무늬)



사진 20. 배수로에 방치된 석재

어사매 (제12호)

제4부 ---- 향토문학동호인과 제5회 횡성군 여성백일장 작품 모음

어사매 문화마당

- 詩
- 隨 筆
- 研 究 文
- 主婦文藝

내 故郷



김 병 준

비탈길, 바위아래
기울결은 샘물 사이로
나뭇잎 날아와
노래하며 춤을 추나
지나는 길손마다
별걸음을 멈추네.

냇가에 고기잡아
어둠이 짙어지면
물려오는 어낙네에
슌속으로 숨바꼭질
구름에 가린 초생달은
나을줄을 모르네.

썩연기 마셔가며
장기자랑 한대당
소쩍새 소쩍소쩍
밤 깊은줄 알리니
개울 건너 원두막엔
밤 손님이 찾아드네.

약 력

- 공근면 수백리 출생
 - 공근초등, 황성중, 춘천사범학교졸
 - 황성수백, 정금, 갑천초등학교 교사
 - 황성교육청 장학사
 - 황성 성동초등학교장
 - 현 원주시 소초초등학교장
-

고향, 친구, 도시



박 영 래

지옥철이라 불리운 지하철

봄가뭄 웅덩이속의 울창이처럼
머리내밀고 숨쉬기조차 어려울때에도
지긋이 눈을 감으면 고향이라지

시원한 산들바람 앞뜰 제방뚝을 걸어
다리목에서 남산까지 다시 선돌마올로.....
들꽃향기, 풀벌레 세소리, 송사리 노리는 황새

혼자만 느끼는 이 기쁨속에
온몸 가득이 향수가 어리면
어느새 종착역에 닿는거지

대기오염이 매일 담배한갑 피운 만큼이라는
도시 한복판

그속에서 광고일 하는 친구 녀석
머리가 답답할때는 멀리 고향하늘을 본다나

앞내개울, 뒷내개울 물고기는 모두 제거라고
반바지 하나로 여름을 지나는 계구장이기 되어
별가격 건지르는 미꾸라지, 기름종개, 모래무지
베들그늘에 겁먹은 부러지, 개리, 세리, 뚜구리

그 성성한 감촉을 손에 느끼며
한번 심긋 웃고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나

외롭고 고달픈 도시 생활
땅뻗기놀이하는 아이들처럼
한뼘이라도 더 크게 더 크게
억지배리, 야귀다툼을 하다가도
고향 까마귀 만나는 날은 푸근하지

서로 숨길것도 없고 감출수도 없는
별가슴이 예들처럼 퍼질러 앉아
웃고 떠들며 고향으로 가지

두메 산골 촌놈이라는 게
무슨 큰 유세인지
헤어질때쯤이면 늘 나오는 이야기
언젠가는 고향으로 가야지

약 력

-
- 황성읍 반곡리 출생
 - 황성초등, 황성중, 황성고졸
 -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졸
 - 현 농협중앙회 여신지원부 근무
-

4月の 山行



조 규 영

4月の 山行은

오랜 친구와의 만남과 같다.
매마른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얌은 손짓 하나에
소리 없이 그리운 친구의
모습이 되어 바람으로 일렁인다.
손 내밀면 곧 닿을 듯
산은 언제나 겹겹이 둘러 앉아
그 옛날 아버지의 선음 같은 목소리로
두런 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피곤한 다리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럭그럭 살아가는 人生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4月の 山行은

가신 님과의 만남과 같다.
침으로 고운 빛깔의
산자락 어느 한곳에 굳혀 잠든 님
슬픈 나날 어루지 못해 아픈 가슴을
차거운 꽃배렴으로 날리우면서
산은 언제나 근엄한 모습으로
다룬 땅을 적시며
시름시름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약 력

- 황성읍 읍하리 465-1
 - 현 신한국당 황성군 연락소장
-

夏蘭을 바라보며



박 정 래

봄에 시작해 여름내내 가슴에 쫓대같은 그녀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그녀의 가슴을 품어
콩닥콩닥 살아있는 파들거림에 몰을 준다.
종백 정대비를 내리던 어느 초여름 마주 본
외출하려는 듯 긴 목을 빼어든 그녀의 고운 얼굴
아무리 키스해도 그녀의 향에는 모자람이 없다.
내 온 몸으로 그녀의 자람에 기대어
바보처럼 내일을 약속하며 버텼다.
콧김이 매캐한 구월이 되자
그녀는 마른 꽃대를 남기고 말라간다.
마른 꽃대의 의미를 왜 긴 여름동안 알지 못했는지
나의 우둔함에 밤새도록 귀뚜라미와 함께 울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그녀를 모두 갖고 싶다는 말도 건네기 전에
그녀는 형광색 온밀한 눈망울로 고운 노래를 하고
내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몸을 움추려 버린다.
입술에 가늘게 남아 있는 그녀 향을 잃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숙절없이 시를 쓴다.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이 내게 돌아와
작은 떨림으로 남아있다.
슬프게 말라버린 그녀의 눈물을 모아
내용을 알 수 없는 투명한 편지를 쓴다.
'그대,안녕'
'그대의 잎,줄기,꽃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사랑했노라고

약력

- 황성중, 진광고, 고려대,
- 연세행정대학원졸
- 김달진 문학상 신인상으로 등단
- 제1회 민족문화창달 국학논문 입선
- 제2회 컴퓨터백일장 최우수상 수상
- 현, 제일기획 매체기획팀 차장

명애 (고난의 절학)

권 용 환



벌써 몇일째 소여물(소죽)을 특별히 진하게 많이 쭈어 소에게 주었다. 평소보다 다르게 등겨도 한 바가지 넣고 고구마 큰 것을 두 개나 낫으로 찍어 넣었다.

대가리 썩은 무도 몇 개 낫으로 찍어 넣었다.

진한 뜸물과 된장도 한 탕기 넣었다. 콩 깍지와 마른 고구마씩 줄거리 작두로 썰은 것을 푸짐하게 넣었다. 끓는 냄새가 구수하고 짭짤한 것이 유난히도 화사한 아침 햇살이 먼지 앉은 마루와 섬돌 뜰앞과 외양간까지 마구 진동하여 기대와 초조가 넘친다. 어제는 외양간 두엄을 싹 걷어 치우고 말끔히 청소후에 복더기 단을 네 단이나 넣어 아주 폭신하게 넣어 주었다. 신희의 새 이불과 요 같은 포근함이 있었다.

저녁이 되니 아버님께서 헌 명석으로 외양간 앞을 가리워 주고는 큰 기대감이 넘쳐 있었다. 김이 솟구치는 소죽을 두멍에 퍼서 긴 죽통에 죽--부어 주니 소는 눈가 긴 눈썹에 이슬이 맺히며 맛있게 먹는다. 아버님께서 거친 줄거리를 몇 개 끌라 내시더니 외양간으로 들어 가서 소 말을 들여다 보고 나오신다. 부엌으로 들어가시며 어머님께 말을 하신다. 소 밑에서 흐르레기가 비치는 것을 보니 오늘은 새끼를 낳을 것 같은데! 이번엔 암 송아지나 하나 낳거라! 대답대신 소원 섞인 애원 같았다. 황소를 낳으면 팔아서 좀 보태서라도 잘 생긴 암소를 사다가 잘 키워 일을 가르쳐야 해요. 그러지-. 뭐-.

그럼 소 고삐도 풀어 놓으세요. 아버님께서는 고삐를 풀어 목에 느슨이 몇번 돌린 후 뿔에다 매어 놓았다. 오후 반 나절쯤 되었는데 갑자기 소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음- 매-! 우음-- 매- 애- 고통이 뭉쳐진 소리 같았다.

아버님께서 후닥닥 문을 차고 나가신다. 암송아지다!.

어머님께서 좋아 하시며 에이! 잘 됐다 하시는 얼굴에는 저 소가 커서 일을 할 줄 알면 에미는 팔아서 논 한다랭이를 사야지-! 하시는 그림자가 지나간다.

논 밭이 그만하면 먹고 살만한데 어머님 아버님은 쌀 팔고 소,돼지 팔아 밭 한테기

는 몇 마지기는 살 수 있었다. 눈,발을 사면 그렇게 좋아 하시던 부모님!
그런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았다. 나는 송아지가 보고 싶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나에게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애야! 소 앞에 가 어른거리
지 마라 새끼난 소는 사람 오는 것을 싫어 한단다.

예! 알았어요 숨어서 볼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나가서 멍석 뚜러진 구멍으로 들여다 보았다. 물에 흠뻑 젖은 송아
지가 누워 있었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려고 빠리적 거린다. 어미소는 온 몸을 활아 준다.
귀엽고 예뻐서 활아 주는 것인가? 털에 묻은 물이 맛이 있어서 먹는 것인가? 알 수가
없다.

배꼽에서 끈 같은 것이 달려 있고 어미의 밑에서도 긴 끈이 달려 있다.

송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다가는 또 쓰러졌다. 계속 활아 주는 어미는 사랑
스러움이 넘치고 큰일을 해내고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어느 부자집 만며느리의 아들
순산한 것 같은 모습이다. 아버님께서 나오시더니 다 떨어진 고무신 한 짝을 찾아 구
멍을 뚫어 새끼로 매고는 외양간으로 들어 가신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뚫어진 멍
석 구멍으로 또 들여다 보았다.

아버님께서는 소 뒤쪽으로 가시더니 소 밑에서 나온 끈 같은 것애다 고무신을 매달아
놓았다.

왜 고무신 짝을 매달아 놓아요.

응! 태를 놓아야 되는데 옛날부터 짚신 짝을 매달아 놓으면 태를 쉽게 낳는다 그런데
요즘 짚신이 없으니까 고무신 짝을 매달아 놓는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나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방으로 들어 갔다.

그날 밤에도 한참이 멀다 여기며 등불을 들고 돌보시며 태 낳기를 기다리셨다.

초봄의 쌀쌀함이 걱정이 되어 부드러운 복더기를 더넣어 깔아 주시고 바람막이를 손
질하시며 돌보시는 것이 마치 자식을 낳아 돌보는 것과 다를것이 없었다. 태를 낳아
서 어미소가 잘못 먹으면 목이 메어 잘못 된다는 것이다.

밤새 자는등 마는등 하시다가 꿩을 치며 새벽 닭이 울자 부시시 일어나시어 밖으로
나가신다.

소죽을 쑤기 위해 가마솥에 불을 때신다.

복실이가 무릎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 앞의 따뜻함에 졸음과 평안을 만끽하는 그

를 쫓지도 않고 마냥 그냥둔다. 소는 아침죽을 다 먹은 후 태를 낳았다. 아버님께서 구박에 담아 들고 나오셨다. 검은 자색이 핏줄과 검은 피투성이의 흐물흐물하는 고기 덩어리이다. 검은 자색의 질긴 고기 덩어리를 잘드는 낫으로 잘게 잘라서 세뿔으로 나누고는 소금을 조금 뿌리어 그중 한뿔을 소물구박에 담아 소에게 준다. 또 한참 만에 나머지를 주었다. 털이 다 말라 가지런해진 송아지는 다리를 떨며 억지로 일어나서는 젖을 찾아 빨아 먹는다.

세상에 새끼치고 예쁘지 않은 짐승이 없지만 송아지만큼 귀엽고 대견스럽고 푸짐하고 사랑스러운 짐승은 없을 것 같다. 눈썹이 길어서 예쁘고 서글 서글하고 시원한 눈매 가식과 허영과 교만함이 없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늘진 호수 같은 눈동자!

목선과 허리선이 곱고 엉덩이가 귀여운 송아지!

시원한 다리의 각선이 아름답고 예쁘다. 안아주고 싶고 같이 데리고 놀고 싶는데 어미소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몇일 후 바깥 마당 옆 마당에 내다 매었다.

햇살이 좋은 날 바람도 없었다. 어미 따라 처음 문밖을 나온 송아지는 어미소의 옆을 지킨다. 마른 콩깍지를 삼태기에 담아 먹으라고 간식을 주신다. 맛있게 먹는 어미소 사타구니 젖꼭지에 입을 대고는 쿡- 쿡- 주어 박으며 젖을 빨는 송아지-

어미소는 시원한 듯 무심히 간식을 즐기고 있다. 저지레를 치며 송아지는 잘 자랐다. 밤에 돌아 다니며 오지자배기도 깨고 뒷에 세워둔 물건들을 다 쓰러뜨리고 장독위에 감주 동이도 박살을 내고 이웃집 송아지 까지 물려와 여간 귀찮은게 아니었다.

사람에 비하면 미운 일곱 살이 되었다. 아버님께서선 이젠 안되겠다고 하시며 노끈과 어저귀끈을 섞어서 짚으로 굵은 태를 만드시고 소고삐를 준비하셨다. 저녁 밥을 먹은 후 아버님은 나와 함께 외양간으로 들어갔다.

어미소 옆에서 잠을 청하던 송아지를 구석으로 몰고 송아지를 꼼짝 못하게 목과 가슴을 검어 쥐고 목테와 얼굴테를 매고는 고삐를 매서 기둥에다 매어 놓았다 몇번 부자유함을 느끼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더니 포기한 듯 가만히 서 있다.

어미소가 안타까운 듯 불쌍한 듯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는 듯 눈에 눈물이 고이며 어른거림이 보였다. 어미소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도 이젠 그만큼 컸으니까 규제도 받고 해야 할 일과 삼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 하고 싶은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다 참고 견디어야 하는거야! 나처럼 주인이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 알겠니?' 송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눈만 껌뻍 거린다. 이젠 젖도 맘대로 못먹고 부드러운 풀과 흐르는 물도 기회 있을때마다 스스로 먹어야 한다. 때로는 배고픔도 참아야 한다.

송아지는 어미소를 따라 다니며 생활하는 방법과 처세술을 습득 했다. 많은 고초와 어려움의 세월이 흘렀다.

이젠 송아지가 아니라 중소로서 몸매가 늘씬해지고 다리에 살이 붙었다. 엉덩이가 넓적해 지기 시작했다. 이젠 코뚜레가 없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올 봄에 몰오른 노가지 나무로 코뚜레를 만들어 걸어 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날 아침 이웃집 아저씨 두분과 함께 발독 튼튼한 뽕나무 밑으로 소를 끌고 갔다. 아버님께서는 날카로운 꼬챙이와 코뚜레를 뒤로 숨기고 따라 오셨다. 튼튼한 나무가지에 중송아지 고삐를 바짝매고 꼼짝 못하게 해 놓고는 이웃집 아저씨가 소 코 밑에 손을 넣어 찌를 곳을 겨냥하며 적당한 곳을 찾으니 숨기었던 꼬챙이로 힘있게 찌른다 잘 안들어 간다 몇번 비틀며 안간힘을 쓰다보니 꼬챙이가 푹 뚫렸다. 이상하게도 피가 흐르지 않았다. 생살을 뚫으면 피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피가 별로 비치지 않았다. 그리고는 코뚜레를 끼워 얼굴 테에다 느슨이 매놓았다. 이 세상에는 참 이상한 것이 있다. 소의 코밑 코뚜레 구멍을 뚫는 곳은 한 꾸덕살이 있어 핏줄도 없으며

잘 찢어 지지도 않는 살로 되어 있다. 조물주가 소를 만들 때 그것까지 계산하여 만든 것을 사람이 찾아 코를 뚫음은 놀라운 일이다. 조물주의 그 놀라운 발상을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 그렇게 이용함은 신기한 일이다. 오랜 세월 속에 인간의 지혜는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인가?

깜짝 놀라운 일들이 한없이 많다.

에이!-! 혼났다.-!

그래도 덜 굳어서 쉬운데 뭐!

고삐를 나무가지에서 풀으니 소 눈에서는 눈물 흐른 흔적과 지금도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어른이 되는 고통으로 꼭 건너야 하는 강이다. 피할수 없는 강이다. 거역할 수 없는 강이다. 분노 할 수도 신에게 호소 할 수도 없는 강이다. 뚫은 구멍이 제대로 아물어 코뚜레가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달여를 조심해야 한다. 잡균이 침입해 상처가 험기라도 하면 여간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코뚫는 것을 삼가고 이른 봄에 하는 것이다.

아버님께서 진한 소금물로 몇번 닦아 주셨다. 가끔 코뚜레의 자리를 흔들여 주셨다. 코뚜레 고삐는 작은 힘으로 그 큰 소를 다룰 수 있으며 사람과 소와의 의사전달의 가장 중요한 언어이며 전달 방법이 되는 것이다. 얼마후 아버님께서는 고삐를 코뚜레에 붙들어 매셨다. 이젠 고삐에 매여 주인의 시킴에 순응하며 자신의 고집과 고난과 화법과 신경질을 다 묻어 버리고 체념하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도둑은 선비

같이 살아 가야 하는 것이다. 암소는 성질이 온순하여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한다. 그러나 황소는 그렇지 않다. 사납고 우직한 황소는 코뚜레가 부러져 나가도록 고집이 세고 코에서 피가 나오는 과격함이 있어도 말을 안듣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여자를 무시하고 붉은 색을 싫어하며 처음 보는 사람과 아이들을 깔보는 황소가 많다. 무서운 무기 뿔때문이라!

발정하는 암소를 본 황소는 더욱 무섭다. 이성의 본능이 발작할 때는 더욱 물불을 못가리어 무섭기 그지 없다. 그래서 무서운 황소는 굶은 쇠철사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몽둥이 든 주인에게는 꿈쩍도 못하는 것이 황소이다. 그렇게 발광하다가도 주인이 고삐를 잡으면 순응 할 수밖에 없는 황소를 보면 사람의 지혜가 만물의 영장임을 자부하게 된다. 꽃도 피고 바람도 불었다. 비도 오고 천둥도 쳤다. 매미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었다. 이슬이 소스라치게 차가웠다. 집뒤 울퉁 밭을 갈아야 한다. 다 큰 한참 예뻐진 암소를 끌고 뒷밭 울퉁 뽕을 밭으로 갔다. 생전 처음 멩애를 매는 것이다. 나는 코뚜레를 바로 잡고 홀이 쟁기 앞으로 서게 했다. 암소는 '또 왜 이러나? 또 무슨 고통을 주려는 것인가?' 근심어린 얼굴과 걱정이 드리운 눈이 완연하다. 좀 커보이는 쟁기들과 멩애를 엮고 목으로 내려간 두 줄기 나뭇가지를 땀다.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코뚜레를 잡아 끌어야 한다. 주인의 쇠소리와 고삐를 툭툭치는 언어를 아직은 모르는 것이다.

또 멩애를 끄는 요령도 모른다.

나는 앞에서 잡아 땡겼다. 처음 멩애를 질머진 소는 벌벌떨며 무턱대고 비틀대며 끌어 본다. 보습(버섯)을 얹어 댄 아버님은 살살 끌으라고 하신다. 그래도 아버님은 쇠소리를 하신다.

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으리라

이러~ 이러~

에치~ 에치~

돌아 서라~ 돌아서~

어디서~ 어디어~

이러~ 어이 어이- 어이-

곡조를 넣어 쇠소리를 계속 하신다.

두 두령을 갈고나니 암소가 땀이 축축이 났다. 그 고운 털이 축축이 나긋나긋 김이 나는 것 같다. 아버님께서 멩애가 닿은 목살을 주물러 준다.

자주 쉬며 갈았다. 그래도 너무 힘겨워 한다. 씩씩 거리며 입에서는 거품침이 흐른다.

그럭저럭 만나질 같이는 같았다. 기진해 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몇시간의 훈련을 시험해 보려고 내가 앞에서 끌지 않고 그냥 같이 보려 했다.

이러~ 이러~ 이러-

어디어- 어디어디~ 어디어~

곧바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탄창을 부린다.

워어- 워어-

서라고 잡으나 집쪽으로 막 달아나려 한다.

오늘 훈련은 그만두기로 하고 멧애를 뗏다.

생전 처음 멧애를 메어 본 암소는 기가 막혔을 것이다. '아니- 내가 평생동안 이 멧애를 메고 끌어야 하나 이 일을 어찌 할꼬 걱정이고 근심이며 비참한 노릇이구나! 큰일났구나! 큰일났다.-'

멧애맨 목덜미가 툭툭 부어 있었다. 그 아픔이란 이루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목에 꾸덕살이 박히고 네다리에 힘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주인의 쇠소리에 익숙해지고 고삐를 툭툭치는 신호 언어를 익히기까지는 더 큰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야 하는 것이다. 더 숙달되면 결이도 같이도하고 산비탈 돌발 결이같이도 할 수 있는 숙련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삶의 진가를 발휘하며 주인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꿈을 안고 소 외양간으로 들어 갔다. 처음 일한 날이기에 소죽을 더 진하게 특식을 주었다 그리고는 등을 툭툭 때려 주었다. 다음날 멧애 메었던 부위가 부어 올랐다. 손을 못대게 아파했다. 열이 났으며 심한 통증을 느꼈다. 아버님께서서는 마늘밭 참진흙을 한구박 파 오셨다. 진흙을 물에 풀어 부어 오른 목에 발라 주었다. 몇차례 발라 주었다. 한달쯤 되어서야 진흙과 함께 딱지가 떨어졌다. 꾸덕살이 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다. 옛날에 판소리 명창은 목이 부어 터져서 똥물을 먹어 썩어 터져야 한다고 하는데 꾸덕살도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야 하는 것이다. 내년 봄부터는 큰 농사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하니 걱정이고 근심이다.

겨울동안 빨리 다 커서 힘을 기르고 완전히 어미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보! 다음 장날에는 어미소를 팔아야 겠어요 소 값 떨어지기 전에-

왕가래 땅값을 치뤄야 돼요-

섭섭하지만 소는 팔려 갔다. 아침에 소를 끌고 장에 가신 아버님께서 오후에 맨몸으로 그냥 오셨다. 외양간을 들여다 보니 텅빈 것 같은 느낌이다.

두 마리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 외양간은 쓸쓸한 그리움이 맴돌고 있었다.

어쩔수 없는 삶의 비애이다. 저 소도 몇 년후 늙어 힘이 없으면 도살장으로 팔려 가리라

도살장으로 끌려 가는 소! 앞 소가 끌려가고 조용해진 몇분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소-! 왜 그냥 끌려 들어 가는 것인가? 힘으로 하자면 겁날 것이 없는 그 소가 왜 죽음의 순간을 순용하는가? 앞 소를 따라하는 행위인가? 아니 자연의 섭리이니까 그러 하리라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람도 죽음의 대기실인 중환자실의 무서운 상황! 모든 피조물은 엄연한 죽음 앞에서는 별수 없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이니까 무서워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수 하는 것이 현명하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철학자도! 성인도! 다 그랬으니까?

음력 보름도 지났다. 농사 준비에 두엄더미를 파내는것부터 시작한다.

새로 산 논부터 두엄을 냈다. 두엄을 파던 아버님께서 소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먼 하늘을 바라보며 숫놈을 부르는 외침의 애원이었다. 밭을 보니 좀 부어 있고 충혈기가 있으며 습하여 흐르래기가 좀 매달렸다. 한달전 처음 발정은 미미 했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 내일쯤 종축장에 가서 생을 붙여야겠다.

다음날 콩을 한말 질머지고 소를 끌고 갔다 오셨다. 바로 조용해지고 침착해졌다. 참 신기한 일이다. 왜 조용해 하는 것인가?

사람과 비슷하게 10개월 후면 이 소가 태어날 때와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소! 소! 소!

옛날의 소의 일생은 대개 이러했다. 사람에 비유하여 배울바와 생각할바가 많다. 송아지 새끼때는 이웃집 송아지와 몰려 다니며 저지레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 곳 안 갈 곳 쏘다니며 멍 모르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했으나 젓떨때가 되면 목달개의 고삐로 행동을 통제하고 주인의 의사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도 미운 일곱 살을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생활의 통제와 3대의무 중에 하나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목달개의 고삐를 매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선생님께 벌도 받으며 하고 싶은 것을 통제받는 저지레치는 것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목달개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래도 어리다는 보호권의 특권으로 다 용서되는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가면 중학교 생활로 들어 간다.

여자는 얼굴이 예뻐지고 어깨가 드러나며 유방에 몽우리가 생기고 허리가 길어지고

엉덩이가 두터워지고 다리에 살이 붙고 곡선의 미가 나타나며 숫놈들에게 자기의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생기고 적은 일에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고 남자 앞에서는 꿀값을 떨게되며 입술과 손톱에 붉은 색을 칠하고 싶어지며 머리 손질에 신경을 쓰고 무쓰를 바르고 싶어진다. 특히나 첫 월경이 있는 후 굉장한 충격과 나도 여자임을 확인하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첫 월경이 소로 말하면 코뚜레를 뚫어야 된다는 신호의 붉은 불이 켜진 것이다.

남자는 골격이 굵어지고 목소리가 변하고 코 밑에 솟털 수염이 검게 되며 여자 없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여자의 적은 호의와 서비스에 굉장한 회열을 느끼고 첫 몽정에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여자의 첫 월경만큼 충격적인 사건으로 성장하게 된다. 조물주의 창조신비와 자연 섭리의 신비함을 발견 할때마다 어른들의 세계를 문틈으로 훑쳐 들여다 보게 된다.

사람은 그냥 놔 두면 큰일난다. 코뚜레를 코에다 꿰어야 한다. 어른들도 코뚜레를 꿰 때 고통과 피로움을 이야기해 주며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피로움을 참으라고 하며 강제로 꿰어가지고 고삐를 부모님 허리춤에 매고 다닌다 그러기에 코뚜레에 꿰어 절제하며 참고 견디며 부모가 하라는데로 그 피나는 공부로 고교 입시와 대학입시를 위해 코피를 흘리며 얼굴이 누렇게 떠서 끌려다니다가 불만족한 가운데 대학 생활의 청년 시절을 맞이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큰 멍애가 닥쳐온다. 멍애를 매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멍애 닿는 부위에 흉두께 같은 꾸덕살이 박히도록 힘든 일을 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삶이라는 멍애와 피할 수 없는 멍애가 비바람과 폭풍우를 헤치며 멍애를 끌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랑의 멍애, 자녀의 멍애, 직장의 멍애, 부모의 멍애, 친구의 멍애, 형제 자매의 멍애, 돈의 멍애, 명예의 멍애, 출세의 멍애, 건강의 멍애...

복잡한 현대 사회의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압박의 멍애들이 홍수처럼 몰려 오니 흉두께 꾸덕살로도 감당 못하는 무거운 짐을 홀로 끌다 끌다 기진하여 맥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한나절 마당에서 긴 눈썹을 아래로 깔고 시선을 한 곳에 박은채 가만히 되새김질하고 누워있는 소같은 모양이 아닌가? 다 체념하고 좋은 것도 슬플것도 기뻐할 것도 다 잊은채 먼 산 먼 하늘을 보며 세월의 흐름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인가? 소처럼 사는 인생인가?

물이 흐르는 푸른 들로 나가 보자!

색깔이 호화로운 아름다운 나비가 꽃속에서 꿀을 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둠과 암흑의 앞에서 깨어나는 환희가 있을 후 별레는 꿈틀 대며 자라간다. 자람의

단계에서 허물을 벗는다. 고통의 아픔의 허물을 벗지 않으면 벌레는 자라지 못한다. 여러번 고통중에 고난과 아픔과 애씀으로 허물을 벗는다.

사람도 무지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지이다. 무지는 짐승처럼 살게 하는 아편이다. 무지는 아름다움과 더러움을 가릴수도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좋고 나쁨을 가릴수도,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할수도, 해야할 일과 삼가야 할 것을 말할 수도, 논리와 비논리를 깨달을수도, 지혜로움과 우둔함을 찾아낼수도, 거룩함과 저속함을 판단할수도, 행복과 불행을 택할수도, 죽음의 길과 삶의 길을 거닐수도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된다. 나밖에 모르는 주관적인 폭이 좁은 허물을 벗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으며 삶의 협조자와 동행자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된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색하여 남을 위해 돈을 쓸 줄 모르며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돈으로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남을 배신하고 음모에 뛰어들며 모략과 사기에 유혹되기 쉽고 실패를 은폐로 마무리 하려 한다.

성공은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나혼자 소리치는 것이 아니다 깨끗하고 솔직하여 가식과 허식의 더러운 허물을 벗자! 마음이 깨끗하고 솔직한 사람은 얼굴이 밝고 뚝뚝하며 비굴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는지 당당하다. 깨끗한 사람은 자신 만만하며 초조해 하지 않으며 결과를 두려워 하진 않는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호화롭게 사는 허물도 벗자!

속된 쾌락의 허물을 벗자!

부모님께 효도 못하는 허물을 벗자!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허물을 벗자!

내 국토 우리의 강산을 내 살과 피같이 아끼지 못한 허물을 벗자!

장애자와 고아들을 사랑하지 못한 허물을 벗자!

인간에게 무수히 많은 허물을 벗어야 나비가 되는 것이다. 나비가 되어야 푸른 하늘을 날 수 있다. 향기와 꿀이 흐르는 꽃도 찾을 수 있다. 허물을 못 벗은 벌레는 어둠을 좋아하나 나비는 밝은 빛을 좋아하며 호화로운 꽃보다는 향기와 꿀을 찾는다. 어느날 벌레가 풀줄기에 매달려 햇빛을 받으며 마지막 허물벗는 것을 본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속에 다리가 빠져나오고 가슴이 솟아 오르며 걸걸질이 갈라지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날개를 편다.

벌레에서 날으는 나비로 환생하는 희열의 영롱한 신비함이 여물어 소리치며 그 얇은 날개가 빠져 나온다. 물렁한 껍질들이 굳어지고 날개 어깨의 힘이 생기고 깃이 튼튼

하고 강해지는 신비함이 새로운 나비를 탄생시킨다. 잔잔한 바람과 개울의 물비린내가 나비의 영혼을 여물게 한다.

투명한 눈은 꿀을 보게 하는 꽃을 찾는 신비한 거울로 변한다. 아침 이슬이 마른 후 몸이 가벼워진 나비는 허물벗은 고통을 잊은 듯 풀위로 날아 보았다. 날개 죽지에 힘이 생기고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면서 영롱한 햇살을 가르며 높이 푸른 창공을 안아 보았다 모든 것이 보인다.

휠체어를 미는 사람, 고아에게 옷을 입히고 업어 주는 사람, 마른 나무 토막 같은 노인을 목욕시키고 입에 밥을 떠 넣는 사람, 더럽고 무서운 기형아를 안고 달래가며 약과 우유를 먹이는 사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봉사자들!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천사들!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농작물을 심는 농부들!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이에게 최선을 다하며 땀흘리는 의사와 간호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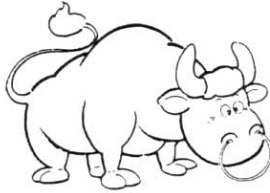
차 사고를 보고 뛰어들 용감한 청년,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밖에 없는 바람부는 모래밭에서 빈 그물을 손질 하며 침묵하는 어부, 드러난 광대뼈와 코푼 자국 완전한 광부들, 다리 가슴뼈 앙상한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승부 모습들, 머리와 수염이 긴 미의 창조자 예술가 들의 작업 모습들, 눈보라 치는 휴전선 철조망을 바라보는 입 꼭다문 젊은 군인들, 큰아이 유치원 보내고 둘째아이 잠든 사이 남편 와이샤츠 다리는 부인의 듩직한 뒷모습들, 팔십이 넘은 호호노인이 과일 나무 심은 뒤 허리 펴며 석양의 하루살이 벌레 쫓는 모습들...

나비가 본 저들은 다 고난을 딛고 일어선 이들이다. 고난과 고초를 밥먹듯한 이들이다. 고난속에서 고통의 사다리를 기어오른 이들이다. 고난의 허물을 고통으로 벗은 이들이다. 고난은 기쁨의 씨앗이다. 고난이 없는 성공은 더 큰 실패를 가져올 뿐이다. 고난과 기쁨의 무게는 똑 같다. 고난으로 요리를 하면 기쁨이 되고 기쁨으로 요리를 하면 행복이 되는 것이다. 고난을 모르는 왕자와 공주는 분쟁과 패역뿐이며 실패와 죽음 뿐이다. 고난은 삶의 동반자이다. 고난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고난을 무서워 하지 말라 고난을 거부하지 말라 고난은 부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이다.

고난의 떠남은 죽음이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속에서 기쁨을 만드는 것이며 고난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난 없는 기쁨은 없다.

고난 없는 기쁨을 원한다면 그는 우매하고 우둔한 자이다. 내가 고난중에 있다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고난을 말하는 이는 사람 뿐이다.

당연한 것이기에 짐승, 나무, 풀, 벌레, 미생물까지도 고난을 말하지 않는다 말해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가장 많이 배분하셨다. 고난과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지혜의 관건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고난의 허물을 벗는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허물을 벗지 않으면 돈과 명예의 죄 썩는 냄새가 나게 된다. 아침 햇살에 이슬을 말리며 허물을 벗는 나비가 되자! 창공을 날아 허물 벗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려다보자 고난의 허물을 벗는 인간의 모습은... 예수! 슈바이처! 헬렌켈러! 에디슨! 간디!



약 력

- 1940년생
 - 황성읍 조곡리 377번지 출생
 - 대동여중 31년 근무
 - 현 황성문학회 회장
-

금연망년회



조 상 현

아닌 밤중에 흥두깨도 유분수지. 자는 사람을 깨워 한밤중에 망년회를 하자니...
엇저녁 일이다. 겨울밤 10시면 꽤 늦은 시각인데 난데 없이 전화 벨이 울려 받아드니
지난달에 미국에 나가 사는 작은 아들네 집에 간다고 떠난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H
씨. 지금쯤 아들을 앞세우고 미국의 구석구석을 관광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가 언
제 돌아왔는지 느닷없이 망년회를 해야겠으니 빨리 자기 집으로 오라는 전화다.
하도 어이가 없어, 날씨도 차고 밤도 늦었으니 내일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해도 내 얘기는 듣는 등 마는 등 불문곡직. 막무간이다. 하기야 오늘이 12월30일이
고 보면 술꾼들의 망년회 고비이긴 하지만 말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아선 취중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순이 넘은 노인이 이 밤중에 웬 객기인가?
전화통을 붙들고 내일 만나자거나 지금 당장 오라거나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못해 전
화를 끊으려 했더니 별안간 H씨 노성대갈(怒聲大罵),“밤이 좀 늦었기로서니 망년회
좀 하자는 데 왜 이리 도도해! 퇴직해 놓고 있다니까 이러기야” 앓차. 얘기를 듣고 보
니 툼툼히 안부라도 묻고 약주 대접도 못한 자책감이 내 등줄기를 후려친다. 직장을
그만 두고 그 수많은 날을 보내기에 얼마나 무료했을까. 더구나 세모를 맞아 남들은
송년회니 망년회니 하고 야단들인데 얼마나 적적했으면 이 밤중에 민거라 술 한잔 하
자고 전화를 걸었을까. 얼른 달려가 위로해 줘야지... 폐일언하고 나는 서둘러 깊숙히
아껴 두었던 양주 한 병을 꺼내 들고 집을 나섰다.
H씨는 나와 같은 직장에서 근 30여년을 함께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내 돌도
없는 막역한 옛 직장 동료이다
나 보다 세 살 위인 그는 원래 바탕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아 남에게 뼈아픈 소리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은 호인이다. 다만 한가지
그에게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하루에 담배 네갑이 모자랄 만큼 보통 한 대 피워 물
었다 하면 그 불로 연이어 서너대를 사르고 나아 직성이 풀리는 그런 줄담배라는 점

이다. 얼마나 억세게 피워 대던지 그이 이름을 대면 몰라도 줄담배로 더 알려진 소문난 애연가이다.

그 해 간혹 직장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직원들 나무라는 일없이 한 대만 물고 나면 이내 모든 잘잘못을 혼자서 삭이고 마는, 어떻게 보면 줄담배가 그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당대의 골초였던 풍초 오상순 선생이나 자유당 시절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재학씨의 성품이 꼭 그랬던 것처럼.

어쨌거나 사람이 좋아 그런지 자식 농사도 잘 지었다. 3남매를 모두 남부럽지 않게 키워 살림은 대학교수인 큰아들에게 맡기고 지난봄엔 무슨 무역 회사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사위의 초청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더니 이번 가을엔 미국의 작은 아들네 집엔 다녀오는 등 두 양부가 오손도손 외국 나들이나 해 가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런 다복한 분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미안한 생각에 진눈깨비가 얼어 붙은 그 어두운 빙판길을 조심조심 더듬어 그의 집에 들어서니 내 생각과는 생판다른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이야. 화가 잔뜩 난 H씨는 담배를 끊겠다며 그 분풀이를 부인에게 퍼부어 대고 있으니 말이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뗏지 그 골초가 담배를 끊다니! 이거야말로 대사건이요, 해외토피감이 되고도 남을 일이 아닌가. 그런데 담배를 끊겠으면 혼자 조용히 끊을 일이지 애꿎은 부인에게 화풀이는 또 무엇인가?

웬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나를 붙들고 오늘 당한 일이 분해 못 참겠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그의 말을 듣고서야 이 밤중에 나까지 불러 낸 H씨의 아련 속을 짐작할 수 있었다. H씨, 오늘 서울에 불일이 있어 갔다가 막차로 내려오니 밤 9시가 넘었더란다. 그레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택시를 타고 들어와 집을 향해 어두운 골목길을 부지런히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앞서가던 웬 술취한 녀석이 길을 가로막고 서더라는 것이다. 졸지에 당한 일이다. 주춤하고 있자니까 이녀석 호주머니에서 풍초한 개를 꺼내 물더니 H씨가 물고 있는 담배불 좀 달라고 손을 내밀더라는 것이다.

보아하니 배꼽 자국도 아물지 않은 학생녀석 같은데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너는 에미 예비도 없는 놈이냐'고 한바탕 야단을 치고는 어찌나 쾌쩍한지 담배불을 밟아 꺼버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녀석 약이 바짝 올라 '이 영감쟁이 혼 좀 나와야 쓰겠다'며 다짜고짜 멱살을 거머쥐고 달려드는데 곧 주먹이 날라들 것 같더란다. 그레 하도 다급한 김에 망서릴 겨를도 없이 얼른 라이타를 꺼내 주었는데도 놓아 주질 않아 할 수 없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서야 겨우 풀려났다는 것이다. 얼마나 놀랐던지

미국 갔을 때 2백불이나 주고 산 그 라이타는 아예 돌려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콩지가 빠지게 집으로 달려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창피스러운 얘기를 누구에게 하겠느냐며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H씨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늙어가는 서글픔이 나까지 숙연케 했다.

자식같은 놈에게 당한 이 엄청난 수모. 그 울분을 삭이지 못해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H씨. 사실 꺾어본 사람만이 아는 일이지만 하루 아침에 내뿜개칠 수 없는게 담배이다. 언젠가 ○○○○란 글에도 쓴 일이었지만 하루에 겨우 반 갑씩 피우는 나같은 사람도 어떤때는 서너달씩 끊고 용케 버티다가도 번번히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이 담배의 물귀신 같은 매력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용고뚜리 H씨가 평생을 애지중지 즐겨온 즐담배와 마지막 결별을 하는 이 마당에 눈물인들 안나오랴.

더구나 그 망난이 같은 놈에게 당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위로는 해 주지 못할망정 '지겹게 피워 대더니 그 학생이 누군지 큰 부주했다'고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섭섭하고 노여웠으면 그 분풀이를 엉뚱한 부인에게 퍼부어댔으랴.

지금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청소년들의 흡연은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초등학교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다고 한다. 어느 고등학교에선 흡연 단속에 항의하여 교실의 유리창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다 잡혀간 학생들을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경찰서에 찾아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판국인데, 이 양반아. 어찌자고 그 후미진 골목에서 남의 에미 예비는 왜 쳐들어! 쳐들길.

그 녀석에게 두들겨 맞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 H씨, 온갖 피로웠던 일을 잊고자 하는게 망년회 아니던가.

아랫목에 앉아 큰 기침 한 번에 집안의 기강과 질서가 서던 그 옛날이 그리구나.



약력

- 황성출생
- 내무행정 공직근무
- 양구군 부군수
- 현 한국문인협회 회원

황성원의 앞뜰사랑



김 승 기

잠시 눈을 돌려 창밖을 본다.

어제보다 가슴이 더 답답해 오는 것 같다.

같은 자리에서 너무 오래 일한 탓일까! 아니면 재주가 없어 태운은 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 온 탓일까!

아주 어린 날, 자주 만나던 무성한 보리밭을 지나며 보리는 키가 꽤나 큰 작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언젠가 반가운 마음으로 보리밭을 만나고서는 그리 크지 않은키에 실망한 적이 있듯이, 지금의 눈으로야 어린 날의 눈으로 재던 크기만큼이나 너른 평야는 아닐테지만 자꾸만 좁아지는 시야가 가슴마저 답답하게 한다. 그것이 보는 세상의 크기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높아진 탓만은 아니리라.

“황성 원(元)의 앞뜰 사랑”이란 옛말처럼 어머니 품보다 더 넓고 풍요롭던 그 별판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 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 그리도 언짢을 수 없다.

어린 시절, 꽤나 즐겨 오르던 삼일공원 맨 ‘꼭대기에서 바라 보던 시가지와 그 앞에 전개된 들판과 그를 에워싼 앞내, 뒷내의 비단결 같던 물줄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서정이었다. “숲밖” 또는 “송림”이라 불리던 학교근처에서 이제는 소나무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고 거미줄 같던 논다랭이가 어느 날 바둑판처럼 되더니 이제는 집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흙먼지 날리던 신작로는 아스팔트로 치장한지 오래이다.

그 한가운데로 위세 좋게 키를 키워 가는 고층 아파트며, 크고 작은 공장들이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시야를 가리는 불편함과 못마땅함뿐이지, 사유재산의 보호와 개발의 논리 앞에서 아무런 항변이 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진정 편리하고 여유롭고 살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믿지도 않는다.

어린 시절, 집이 읍내 북쪽언저리에 있던 나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 질러 들판 사이로 난 포프라 무성한 신작로를 오가며 정반대 쪽인 남쪽 끝에 모여 있던 초,중,고 세 개의 학교를 12년간 줄곧 다녔다.

어쩌면 꽤나 지루했을 통학 길이 반복되었을 터이지만 돌이켜 보면 그리 지겹고 짜증나는 등교 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파릇한 풀이 돌아나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새 봄의 학교 길은 새 학교나 새 학년이 되는 기대와 설렘에 반갑고 신이 나기도 해서 좋았다.

푸르름이 무성한 한 여름날의 하교길- 땀에서 개구리 잡고 소나기 내리는 날에는 물 고인 웅덩이에서 물장난도 치고 그래서 십여리 학교길은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

가을날, 풍요로운 들판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넉넉함이 가득한 얼굴들이 좋았다. 아니,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터는 어쩌면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의 삭막함과 황량함을 더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겨울날, 텅빈 벌판에 부는 눈바람은 참으로 매서웠다. 제대로 입지도 못한 몸을 에이는 추위는 아이들 손발에 얼음이 배기게 했지만 얼음지치기와 눈싸움으로 마냥 즐거울 수 있었다. 또 있다. 더러는 미군트럭이 지나며 버리듯 던져 주는 껌을 횡재한 듯 주워 씹으며 “헬로우 기부 미 추잉 껌”, “땡큐”, “까뎀”을 외치기도 하고, 지나가던 농군의 달구지를 얻어 타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단짝 친구와 말씨름 끝에 코피 나도록 싸움도 하고, 해가 떨어져 귀가 쭈뼛한 늦은 하교길에는 “자유 통일을 위해서 님들은...” 하는 맹호부대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기도 했다.

그렇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일은 초등학교 6학년 가을인가 추수가 한창이던 들녘을 지나던 악동 중 하나가 “야! 땀부기다!”하며 소리쳤다. 땀부기를 처음 보는 우리는 시골 아이의 진두지휘로 흡사 중병아리처럼 보이는 그놈을 잡기 위하여 눈두렁을 마구 뛰었다. 수색대는 하교길에 가득하던 아이들로 순식간에 불어나고, 아직 가을걷이를 하지 않은 논이고 배어 놓은 벼단이고 마구 헤집고 서너 마리의 적들을 공격했다.

몇 마리를 포획했는지 기억에 없지만 아마도 나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땀부기란 놈을 볼 수 있었고, 어쨌거나 그 날의 땀부기 대소동은 여러 농가의 땀내 젖은 농사를 그르치기는 했지만, 그리 큰 야단을 맞지 않았으니 그때는 너그러운 농심이 남아 있었던가 싶다.

그렇다. 그 도심을 끼고 있는 들에는 야생동물이 있었고 어쩌다 두흙들이 빈 소주병 하나를 들고 두어시간 논둑을 헤집고 집에 돌아오면 매뚜기를 그득히 잡을 수 있어

도시락 반찬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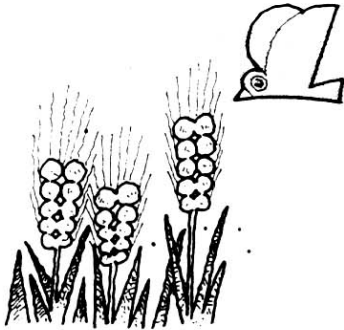
이렇듯 추억이 서려 있는 들판이 사라지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다. 더구나 그 들판이 안겨 준 먹거리의 고마움이나 식량 안보를 운운하고자 함도 아니다.

최근 들어 구획정리나 우회도로니 해서 그 들판의 잠식은 더욱 심하다. 도시 기능을 충족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 그리 탓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로마”나 “과리”처럼 몇백년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몇백년을 생각하고 개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살피고 지역, 지형적인 특성과 미래의 모습도 염두에 두는 개발이 되었으면 싶다.

“내 땅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방 한 칸을 늘려도 도시 전체의 기능과 미관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공동체 의식이 아쉽다.

적어도 이 땅에 터 잡고 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네 가슴에 남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못 그린 그림을 흰 페인트로 지워 버리듯 쉽게 몽개버리지는 말아야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횡성 앞뜰” 그 자체가 횡성의 상징이며, 역사이기 때문이리라. 나와 내 또래, 그리고 그 이전의 이 고장 사람들은 그 들판을 보며 자랐고 삶을 배우며 살아왔고, 또 뼈를 묻을 것이다. 그 소중한 땅이 격무에 시달리다 창박을 내다 볼 때 변함없이 가슴 후련하고 넓디 넓은 풍요로움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97년 봄>



약 력

- 횡성읍 읍상리 출생
 - 강원공무원 문학지로 등단
 - 현 횡성군청 문화체육과 근무
-

진정어머니



임 옥 회

어머니 다시 불러 보고 싶은 어머니

사랑의 실천의 상징인 어머니

자나깨나 자식걱정...

그 긴 인연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모든 걱정을 뒤로 한체 새처럼 바람처럼 저의
걸을 훌쩍 떠나 가신 어머니...

모든 걱정 속에서도 저는 사랑을 배우고 행복을 배우며 어머니 곁에서 지냈건만 다시
는 오시지 못하시는 멀고도 먼길을 떠나셨지요. 온몸을 불태우듯 자식에게 다바쳐 사
랑해 주셨던 어머니 그러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 깊고도 큰 사랑을 다 못 받으시
고 떠나신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가뭄과 오염을 모르는 맑은 샘물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모든 걱
정 근심을 대신해 주셨던 어머니이시기에... 그러나 저는 지금 깨끗하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 저도 자식을 키
워보니 어머니의 모든 헌신적인 사랑안에서 바르게 자란 것 같습니다. 남을 사랑한다
는 것을 배웠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절망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

깊고 넓고 포근한 사랑을 저는 자식에게 어머니가 해 오신것처럼 고요하고 인자로운
그 풍성함... 저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
다. 나의 자식이 남을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어머
니 작은 것에도 행복해 하고 성실하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자녀로 키우리라
마음 다져 먹고 삽니다.

어머니!

저는 친정 어머니란 말 한마디 못 불러 보고 살았기에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친정 어

머니란 말을 한껏 펼치며 부르고 열심히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항상 나의 머리속에 계십니다. 한 번 불러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라고….



약력

- 횡성출생
 - 서울 송파구 송파동 거주
 - 가정주부
-

겨울의 길목에서

김 홍 기

붉게 물들었던 단풍의 숲도 이제는 내년을 기약하며 앙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스쳐 지나간다. 으스스한 몸을 움추리며 내마음은 벌써 고향을 향해 달려 가고 있다. 5월 단오가 되면 동네 총각들이 동산 위 고목나무에 그네를 매주워 언니 동생 친구들과 어부랑 그네도 타고 풀잎 뜯어다 소꿉놀이도 하며 차곡차곡 추억을 담았고 달팽이 잡으러 강가에 가서는 주워 담을데가 없어 검정 스타킹 벗어 잔뜩 잡아 어깨에 둘러메고 노래 부르며 오는 발걸음 절로 신이 났지. 여름이면 밤마다 언니들과 미역 감으러가 무서워 울던 생각, 남의 집 과일 서리해다 먹던 생각 달밤에 달맞이 꽃에서 빛나는 빛은 내 마음을 사로 잡았고 지금도 달맞이 꽃의 신비를 잊을 수 없다.

나 어릴적엔 눈도 많이 오고 출기도 무척 추웠다. 손을 호호 불어가며 벼통가리 끝에 매달린 고드름을 아이스끼끼라고 열심히들 따먹었다. 엄마는 얼음 먹으면 뱃속에 벌레 생긴다고 못먹게 말리지만 친구들과 누가 더 큰 것 따먹나 내기도 하고 양지 바른 돌담에 웅기 종기 기대서서 재미있는 이야기 꽃도 피웠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진 이튿날은 눈 위가 도화지가 되어 그 위에 내 희망을 그렸고 사진 찍는다고 뒤로 벌렁 누워 양팔을 벌리고 허공을 바라보며 꿈을 마음껏 키우며 즐거워도 했다.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밭구를 오빠 몰래 훔쳐다 언덕에 가서 신나게 타다들켜 오빠랑 싸우다 오빠 매 맞힌 적이 많던 시절 난 용케도 매 한 대 안맞고 요리 조리 잘도 빠졌었지. 긴긴 겨울이 지나 봄 기운이 돌 때 냇가에 가서 버들가지 한 아름... 뒷산에 가서 진달래 나뭇가지 한 아름 꺾어다 향아리에 담아 놓고 언제 꽃이 피려나 매일 매일 들여다 보며 즐거워 했고 행복해 했던 시절 난 그 동네 그 집이 그립다. 학교 갔다 저녁때 언덕 길을 주욱 따라 올라 보면 엄마가 기다리는 푸근한 내집에서는 모락 모락 연기가 피어 올랐고 엄마의 품이 그리워 한 달음에 언덕 길을 뛰어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들어 설 때 여물 끓이시던 아버지가 "우리 콩새 이제 오니?"하며 반겨 주셨다. 동생을 제쳐 놓고 난 유독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콩새라고 불러 줄 아버지가 안계신다. 고생만 하시다 효도 한 번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언젠가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 차를 몰고 아버지의 숨결이 깃든 폐허가 된 집을 찾아 갔다. 벽은 허물어지고 방과 마루엔 먼지와 거미줄로 뒤 엉켜 있었고 마당엔 잡초들로 무성했다. 아버지께서는 가정의 등우리를 일손이 한가할 때 쫓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꼭 손을 보셨던 집, 내 꿈과 나 어릴적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고향 집이 울씨년스럽게 느껴만졌다. 인생의 모든 삶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며 쓸쓸한 모습으로 대문을 나설 때 석양의 노을도 내 마음을 눈치 챘는지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참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정신을 차렸다.

난 가끔 딸 아이에게 추억담, 경험담을 들려주곤 한다. 그러면 딸아이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 같다며 재미있어 한다. 지금 내 딸 아이는 힘든 세상을 사는 것 같아 불쌍하게 느껴 질 때가 있다. 우리 어렸을땐 그렇게 공부 공부 안해도 자기 갈 길을 간 것 같은데 지금은 공부의 노예가 된 딸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우린 여행을 자주 다닌다. 아빠와 이야기도 많이 하게 하고 요즘 유행되는 노래 흥미도 없으면서 좋아 하는척 하고 피아노에 맞추어 같이 노래도 불러준다. 명랑하고 예쁘게 자라 주길 바라면서...



약 력

- 황성출생
 - 황성읍 북천리 137-5에서 거주
-

만주의 산행

김 은 숙



10월 25일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으로 만주에 설악산 단풍놀이 산행을 떠났다. 한계령을 지나면서 모든 산들의 나무들은 마른가지에 달려 있는 색색의 나뭇잎들이 너무 무거운 듯이 '윙윙' 소리를 내면서 단풍비를 내리고 있었다. 병풍처럼 펼쳐있는 기암들은 스산한 느낌을 애써 감추면서 설악산을 찾는 손님들의 마음을 찬찬히 위로해 주었다. 버스에서 내려 하산길인 선녀탕 계곡, 오색약수를 내려올때는 손을 흔들며 반기는 단풍잎과 파아란 가을하늘, 계곡의 물소리에 나의 지쳐있는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었다. 산길을 거닐며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

그들은 분명 남이 아니오 나의 벗, 나의 이웃, 나의 자녀, 부모처럼 정겹게 여겨졌고 먼저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고 싶어서 마주치는 눈길마다 상냥하게 웃어 주었다. 특히 어린 자녀가 다칠세라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젊은 부부를 볼때마다 아! 저 아이는 분명 밝고 총명하게 자랄꺼야! 하는 느낌이 들었고 연세가 많아 지팡이에게 몸을 의지하고 천천히 자연을 만끽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늘을 보며 빌어보기도 하였다.

오색 약수터 휴게실 앞쪽에서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산다래, 산머루, 산나물 말린 것들을 팔고 계셨다. 맛보기로 먹어 본 다래가 얼마나 달던지 두 봉지를 사 들고 버스에 올라 '달지?' '달지?'하며 일행들과 나누어 먹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넉넉해졌을까? 아마도 그건 순진무구한 대자연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마음 가득 선한 것만을 생각해서 그러리라.

대포항에서 횡거리를 구경하며 회를 먹고 몇가지 해산물을 사 가지고 어두워지는 밤공기의 싸늘함을 느끼며 귀가길에 올랐다. 밀리는 차들로 인해 평상시보다 2배 정도 더 걸리는 시간의 버스안에서는 자욱한 담배연기와 반주기에 맞춰서 부르는 구성진 노래들을 들으며 마지막을 장식해가고 있었다. 산에서 느끼던 신선함과는 대조적인

광경이었으리라.

나는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 동행한 분들께 “오늘 하루 참 즐거웠습니다.”하고 인사를
마치고 내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걱정하면서 바쁜 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약 력

- 횡성 읍상리 392번지 출생
- 횡성 종합고 상과졸
- 상지전문대 유아교육과 재학
- 영상속셈학원장
- 현 용진종합학원장

전 세 살 이

곽 영 기



전세살이란 남의 집을 세로 빌어서 일정기간 살다가 이사가는 것을 말한다. 전세의 역사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아는바 없지만 내가 체험으로 아는 것은 우리 나라가 6·25사변후 경제의 발전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널리 보급된 주거방식으로 생각된다. 자연계에서도 섭생(攝生)이라하여 나름대로의 전세살이를 하는 동식물들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의 한 현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섭리에 의한 본능적인 생활방식일 뿐이나 인간들의 전세살이는 주택의 부족에서 오는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계약행위다. 즉 문명의 부산물이며 “부득이한 편리”의 독특한 생활 방식인 것이다. 요즘과 같이 급속한 도시화로 주택이 부족하고 직장의 이동이 빈번한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전세나 월세살이를 경험하게 되며, 심지어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매매시의 절차 및 세금 등으로 셋집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임대주택이 보편화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 셋방살이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사정은 아닌가 싶다.

나는 공직 생활 30년동안에 22번을 이사했는데 그중 집을 사서 이사한 것이 6번, 전세가 16번이었다. 물론 하숙생활 5번은 뻔 수다. 평생 받은 월급에서 5%정도는 이사비용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지금도 퇴직후 2년째 전세살이를 하면서 불원한 시일의 환갑 때는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나 잘 될런지는 두고 볼 일이다

좁은 국토에 태어나고 격동기를 살다보니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전세살이를 하였으며, 이러한 전전의 생활속에서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당연히 나도 나의 고향 개나리(황성군 갑천면 대관대리)를 평생동안 성지처럼 생각하고 일년중 최소한 6번, 신년-설-한식-벌초-추석-제삿날 등에는 정기적으로 성묘를 꼭꼭 다녔다. 내가 우리 조상님의 묘소에서 바라보는 어담산과 삼거리-전촌-추동-대관대리의 전경은 “천하제일강산”이다. 내가 다녀본 어느곳보다도 산수가 수려하고 다정다감함은 아마도 나만의 느낌일지 모른다. 내가 태어나서 자랐고 또한 언젠가는 내가 돌

아와야 할 곳이라는 잠재의식 때문에 그렇게 좋게만 보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요즘은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시는 묘소에 가면 전과는 달리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다. 요즘은 어데를 가나 평평한 산이 도로변에 있으면 거의 개발의 손길이 뻗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 조상님들의 묘소만한 자리가 인근에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집안들의 조상님에 대한 효심이 남달리 크기 때문에 미래에도 근심 할 바 없어 저이기 안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몇일전 신문에 정부에서는 묘지법을 개정하여, 묘지 면적의 축소, 묘지 보전 기간의 한정, 납골당의 설치등을 연구 검토한다는 기사를 읽고 조상님의 묘역과 고향에 대한 애착이 전과 달리 식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심지어는 사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평생동안 지켜온 정신적 지주를 잃은 기분이 들었다.

먼저, 이 신문기사의 “묘지면적 축소”(4~5페이지 정도)에 대하여는 나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심지어 나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면적도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모든 인작(人作)은 쓰레기로 남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묘지 보존기간(17년~20년정도) 한정”에 대하여는 나는 반대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모든 생물체는 죽으면 흙으로 되돌아 갔다가 다시 흙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특히 사람은 신이 창조할 때 “흙에 혼을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셨다.” 기록하였으니 사람의 육신에서 혼이 떠나면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한부(17년?)로 하고 그후에는 땅속에 남은 뼈들은 다시 파내서 납골당으로 옮겨 보존한다 하니, 다시 말해서 유골이 인간의 쓰레기로 되돌아와야 한다니 이는 자연의 섭리에 역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납골당 설치 자체도 또한 인작의 산물이므로 결국은 쓰레기의 축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묘지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부의 축적으로 묘지의 호화판 요새는 급격히 증가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게 되는 판국에 정부로서도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또한 각국의 장례 풍속이 각기 다른 것을 보면 현재 우리의 장례식 풍속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 또한 피할 필요도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족의 정서가 갖든 풍속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쓰레기를 남기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묘지나 납골당 대신 “가족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여 묘지의 봉분을 국군묘지처럼 평평하게 하고 잘 조경하면 국토관리의 효율과 조상대대로 이어온 장례식 풍습의 보존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에 정권당국의 신중한 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나는 요즘 쓰레기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다. 몇일전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이 마치 잘 정리해 놓은 500년 후의 쓰레기더미로 보이더라 말이다. 아직 발효(發酵)되지도 않은 쓰레기 더미에서 벌써부터 굴뚝으로 가스가 분출되고 침출수가 하수구로 흘러 나온다고 가정해 보니, 인작(人作)이란 결국 기간의 장단이 있을 뿐, 종국에는 모두 쓰레기로 남는다는 기우 아닌 기우가 생기더라 말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연의 순환 이치를 잘 따라서 청정자연을 온전히 보존해야만 인류가 영원히 이 푸른 별에서 번성할 것이며 우리도 죽어서 전세살이 즉, 납골당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명이란 이름으로 반문명의 길을 가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자연재앙이 있을까 두렵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동산을 떠날 때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부터 영경귀가 나는 땅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는 산고를 치뤄야 한다.”고 하셨다. 즉, 이는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극히 사랑하신 탓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건강과 모정을 심어주기 위한 깊은 뜻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땀과 산고의 뜻을 모르고 한갓 문명의 혜택이라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천시하며 아이 낳는 고통은 경영과 합작하여 수술이란 편리한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다. 결국 하느님이 주신 사람의 특권 “선택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우를 범하면서도 자기만이 잘난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 주변은 단 하나뿐인 이 초록별에 정신적인 쓰레기와 물질적인 쓰레기를 양산하고 그 쓰레기에 스스로가 묻혀 버리고 말 일들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묘지법이 전번 신문기사대로 줄속히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흙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서 못다 한 전세살이를 죽어서도 계속하다가 결국은 쓰레기로 되돌아와서 후손들의 골칫거리가 될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섭리의 길이 편안치 못할 시대에 살아갈 처지가 되고 말 것 같다.

개나리에서 바라보는 어답산은 언제나 웅장하고 푸르르며 다정다감했는데, 평생 전세살이의 피곤한 신세도 저 산만 바라보면 말끔히 씻겨지곤 했었는데, 오늘은 웬지 저산이 검고 무겁게만 보이며, 물질문명의 단견과 이기주의의 편협이 그 빛을 찾기 위해 서서히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
- 시조문학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직분, 자리, 제몫을 다할 때

이 광 수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두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부모가 지어 준 호적에 이름이요, 또 하나는 각자 직분에 따라 붙혀진 이름이다. 학생, 선생, 농부, 기업인. 공무원이 직분 명이다. 직분 이름 중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같은 이름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요. 얻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 다수의 뜻과 의사가 합쳐서 귀하게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듯 제각기 붙혀진 이름이 행여 욕 되지 않고 손상을 입지 않도록 법과 질서 속에 생존경쟁에 어울려 열심히 살아 가고 있다.

이름은 근사한데 이름 값을 못하고 스스로 제 이름에 먹 칠을 하고 패가망신하는 존재도 많다. 이름 값을 못하는 존재를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 유명무실한 사람이 많다면 배 고프고 힘 없는 나약한 가정, 빈곤과 무질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구제 불능의 사회, 이것이 전부 일 것이다. 그 반대로 유명유실(有名有實)한 사람이 많다면 행복한 가정 명랑한 이웃, 보기 좋고 삶의 가치를 느끼는 태평성대의 복지 국가를 이룩한 것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가정으로부터 형제, 친척간 우애와 인성 예절을 배우며 사회로부터는 조상의 빛나는 전통 문화를 터득 계승하면서 국가로부터 양질의 교육 환경 속에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때 받는 자와 주는 자 각기 이름 값을 해 내고 있다고 한 것이다. 선생이란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에 손색없는 알찬 덕식과 품위를 갖췄다고 할 것이다. 무책임한 언행, 불신의 성격, 편협과 저질의 식견을 가졌다면 스승으로서의 실(實)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이름은 있으되 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사회 발전의 귀감이 돼야 할 공무원이라면 투철한 사명감 부단한 창의와 실천, 공과 사를 분별하며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밑알이 되겠다는 살신성인의 품성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으로 부터 인정과 신뢰, 덕망과 존경을 기대 할 수 있

을 것이다. 무사안일 불평 불만으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자신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 지탄과 원성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다수 국민의 선출에 의해 지어진 이름을 가진 사람은 행여 이름 값을 못할까? 받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항상 반성하면서 명경같은 관찰, 불의를 타파하는 정도인(正道人), 공공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공복으로서의 짙어진 책무를 이탈없이 수행한다면 그 이름은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 속의 유명인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이 만들어 준 직분의 이름은 나 한사람이 경영하는 자영업이 아니다. 망해도 그만 쓰러져도 그만인 개인업이 아니다. 왜! 망하면 우리 모두라는 큰 공동체가 공멸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에게 부하(負荷)된 하중(荷重)에 상을 하는 대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름 값을 못 한다면 국고를 축내는 도둑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저마다 주어진 이름을 돋보이게 하고 후한 평가를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산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많다. 이름에 버금가는 알맹이를 생산해 내지 못한다. 유명무실한 가정, 유명무실한 자식, 유명무실한 부모, 유명무실한 정치인, 유명무실한 법, 유명무실한 공무원, 이 모두가 사회 기강을 허물어 놓고 허탈과 실망만 안겨다 줄 뿐이다.

국민이 지어 준 힘과 권력을 국가 민족의 영광된 앞날을 위해 쓰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을 한다면 국민에겐 배신자요 국가에는 적이 된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저마다 자리가 있다.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학생과 선생님, 직원과 상사자리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요 해서는 안될 금기 사항은 무엇인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처신해야 한다. 직분과 주제를 잘 알고 저마다 제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제 몫을 다 할때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 세상에서 가장 적격자고 인정받을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낙인이 찍힌다면 삶의 보람과 가치를 잃을 것이다. 따스한 가슴에 자식을 안고 젖을 물린 고귀하고 품위있는 어머니 사랑. 모름지기 진리 탐구를 위해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하고 기록하는 학생. 경제 선진 이전에 정신과 문화가 같이하는 질 높은 선진국을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노심초사하는 위정자 이 모두가 제자리를 알고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파수꾼이라 할 것이다.

눈, 코, 입, 귀 모두 제 자리에 있을 때 보기 좋고 제 구실을 할 수 있듯이 부모, 학생, 선생,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 모두가 숙성된 기능을 발휘하여 제 자리를 제대로 지켜

나아갈 때 건강한 사회 복지 국가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밥알도 밥그릇에 담겨 있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지만 만약 이 밥알이 사람 불이나, 옷깃에 묻어 있다면 흉한 것이다. 우리 삶의 진리와도 일맥 상통한다.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는 구실 즉 몫이 있다.

즉 기능이다. 모두가 제 몫과 기능을 발휘할 때 능률과 진보가 있을 것이요 반대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퇴보와 낭비만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주어진 이름과 자리를 알고 몫을 다하는 계기능을 해 낸다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낄 것이요 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범(犯)자 이름 택하는 불쌍한 존재도 많다. 절도, 강간, 살인, 도세(盜稅), 불량식품 제조판매, 마약 밀수, 권력형 공갈범, 존속 살해 패륜범 이들이 바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여러 사람의 공해 존재인 것이다.

염록소가 없어질 때 흑갈색으로 변한 초라한 낙엽들이 스산한 초겨울 냉기 어린 찬바람에 짓대없이 뒹 굴러 후미진 곳에 쌓여 모이는데, 신문 방송 사람 모인 곳마다 가련하고 미련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설로 시, 청각 모두 어둡게 한다. 급기야 가서 안 될 곳 3.5평 철창속 냉방에 목침대를 전부로 세끼 보리밥 세가지 반찬으로 배를 채우고 지옥문을 넘나들고 있을 배신자에게서는 무슨 생각을 하며 긴 밤을 지새울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인성을 지닌 사람에게 그 엄청난 이름을 붙여준 우리 모두의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자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치를 만드는 공범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 겨우살이 걱정으로 밤잠을 지새울 소년소녀가장, 무후독지 노인, 불우시설의 천사님들 한 많은 이 세상을 무어라 닦을까?

버려진 불우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질 높은 보호를 해 줄 수 있을까. 태산같은 근심 일 터인데 5천억이 아니라 단돈 기십만원만 있어도 우선 허기는 면하게 해줄터인데 하는 근심을 하지 않는지. 우리 다 같이 주어진 이름밑에 맡겨진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최선을 다 해 발휘한다면 이들 아픔에 다소나마 도움되는 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어느 대법원장이 뇌물을 받느니 차라리 굶어라 했다는 성언이 생각난다.



약 력

- 횡성출생
- 횡성, 평창, 원주시청과장
- 국회의원 보좌관

강원도의 도자 문화

장 승 모
강원무형문화재 6호



우리 강원도에는 고려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도내에 많은 도자기 가마와 좋은 백토로서 도자 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러나 그 후 도자기 제작이 단절되어 맥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나의 도자를 굽는 일은 8·15광복후까지 한 두 군데서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사라진지가 오래된 도자기 예술의 맥을 다시 계승 발전시켜야겠다는 사명감 속에서 도자기 재현에 보람을 찾고 있다. 「世宗實錄地理誌」,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등에 기록된 바, 양구백토가 御器燔造所인 分院里官窯로 발달되었는데 당시의 교통 수단인 배와 뗏목으로 牛川江을 거쳐 상송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英祖 3년(1727년)부터 춘천, 량천(지금의 화천), 양구, 인제, 홍천 등지의 柴木(시목)이 남종명분 원리고 조선조 말까지 상송되었다고 한다. 또한 仁祖 14년(1636년) 9월 원주의 백토가 굴취, 상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기번조용으로 우선 이용한다는 기록도 있어서, 원주 백토가 섬강을 이용하여 상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의 요지로는 횡성 서원면 石花里와 원주 부른면 손곡리, 단강리가 있고 조선분청으로는 철원 어운면 이길리가 있고 상감분청(象嵌粉靑)은 횡성 석화리에서 제작 되었다. 조선 백자의 중심지로는 원주 지정면 판대리의 2개요지와 단강리의 요지, 횡성 서원면 석화리, 풍수리, 분이리, 이십일리, 춘성서북 고성리, 양구 상무용리, 방산면 金里, 칠곡리, 장평리와 금화 성암리 요지 등이 있었다.

이 외에 기록되지 못한 가마터들도 많이 있다. 본 陶瓷研究院이 위치한 공근 창봉리를 살펴 본 바로는 오음산 깊은 계곡에서 밭으로 개간되어 버린 자기 가마터를 발견 답사하였는데 지명도 사기점골로 이름 지어졌으며 상창봉 지경골에도 이와 같은 자기 가마터를 발견하였다. 예전에 이러한 깊은 산중에서 가마를 묻어 도자기를 굽던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조선 시대 말기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짐작케 된다.

횡성군내 다른 지역에도 요지를 살펴보면 횡성읍 마옥리 정말에는 10개의 가마터가 있고 粘土 또한 생산되며 현재 인접한 가마니 골에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용기 가마도 많이 발견된다. 공근 도곡리에도 천주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보았다는 가마터도 있다. 또한 둔내면 둔방내리에서는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無文土器와 金海式토기가 발굴되어 횡성군민의 옛 문화를 엿볼수 있다. 서원면 석화리, 옷스무나리와 아래스무나리에서도 조선 후기까지 가마터가 있었으며 기록되지 못한 가마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강원 도내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문혀 있는 문화를 본 연구원의 과제로서 시간과 노력을 더하여 요지 답사와 요지 보존에 애쓰면서 강원도자문화를 재조명코자 한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1884년 민영화되기까지 중앙의 사용원에 속한 관요도공이 324명이었는데 자기공 139명, 도기공 185명으로 기록되었고 경국대전에는 세종7년에서 세조까지의 도공이 380명이고 奉足이 760명이 활약해 모두 1,140명의 도공이 활동했음을 전하고 있다. 그중에 우리 강원 도내에서는 횡성, 양구, 원주등지의 자기가 유명하였다. 양구군내에서도 지금도 7~8군데의 요지가 있어서 주변에 파편이 많이 쌓여 있고 군부대내에도 파편더미가 있다. 당시의 좋은 백토로는 광주백토, 원주백토, 서산백토, 양구백토, 봉산백토, 곤양수울토, 이천백토, 하동백토등이 있었다.

이 백토를 굴취하기 위해서 먼저 당청의 역원(役員)이나 장인(匠人)을 파견하여 간심(看審)하거나 각도에서 차사원(差使員)을 別定하여 굴취 상송하게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가마는 전통적인 나무 가마와 현대 가마를 합하여 약 800~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자기 제작의 발달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경기도 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백토와 시목이 양수리유역(관영변조소인 분원리)에 상송된 것은 수로를 이용한 지형적인 여건상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의 分院里는 楊根郡으로 한때 강원도에 속하였고 1914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해져서 양평군이 됨에 따라 양평군 남종면이 되었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군에 이속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토기, 청자, 분청, 백자 네가지 중 강원도에서는 백자와 분청의 요지가 더 많이 발견된다. 精良한 백자를 만드는 요체는 우수한 질의 白土를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양구, 원주의 백토와 횡성의 점토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대부에서 어전에 이르기까지 도자기에 관심이 높았던 것은 숙정 28년(1702)에 “꽃

그림의 자기는 견치한 그릇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치에 빠져 단지 아름다운 것에만 끌려 재화를 낭비한다. 쾌שמ함이 지극하니 사대부와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을 금단시켜라”하는 어명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광해군 일기에는 “大殿에서는 백자기를 사용하고 東官에서는 청자기를 사용하고 내자, 내담, 예빈時에는 구례에 따라서 청홍아리화를 사용하고 사대부는 상백자를 사용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英祖는 심지어 “진사문을 쓰거나 회청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치스러운 풍도이니 왕과 관계되는 外에는 일체 금하라”하였으며 正祖代에는 자기에 기교를 부린 그림을 일체 금하였다. 이것은 왕실에서 순백자를 귀중하게 여긴 好尙의 一面이다.

현종조에 편찬한 「오주연문장판산고」에서는 우리나라 백자는 결백한 순백자에서 그 고결함과 운치를 찾아 볼 수 있다는 예찬을 한 바 있다. 세조말이나 성종때에는 회화적인 성격을 띤 梅花, 梅鳥, 詩銘山水의 문양이 주문양으로 등장하기도 하였고 연판, 당초, 절지문, 여의두 등이 부수되기도 하였다. 白磁에 운치를 더욱 더해 주는 용의 그림은 고려 시대에는 거의 파도 속에 있는 용의 그림이고 또한 몸이 길고 네 발, 긴 꼬리, 긴 수염, 큰 눈, 큰 이빨, 갈기 비늘이 있으며 사슴 모양의 두 뿔을 갖은 일반적인 용이 많았다. 이 외에도 漁龍이 많이 보이는데 어룡은 오리나 수초와 함께 표현되고 있어 물과 관계 있는 용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모든 용의 그림이 구름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용은 여의주를 얻어 승천하여 하늘 위에서 갖은 조화와 재주를 자유자재로 부릴 줄 아는 신통력을 가진 존재이며 득의와 성공의 상징인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우리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때 번성했던 강원 도내의 요지를 살펴 볼 때, 조선후기에 와서 맥이 단절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어서 이에 張松模陶瓷研究員을 공근 창봉리에 개설하여 누구나 직접 도자기를 빚어 보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상의 얼을 심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도자사의 강의, 전시설 견학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써 제공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발굴 유물 및 현대에 제작된 작품을 진열하였고 100명의 강의와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육실과 전통가마와 현대가마를 함께 설치하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곳은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특히 부녀 단체와 학생, 일반 및 가족들에게 직접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견학, 실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에서 전공한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전수생으로 추천, 지정하여 도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농업, 농촌에 사랑을

허 남 렬



우리 나라는 옛부터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여 농경 문화를 형성하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다. 반만년 역사속에서 농업을 근본으로하여 국가가 탄생하였고, 농업을 기반으로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흉과 더불어 살아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격이 온순하여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18C 영국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급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급기야는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농업을 주축으로 형성되어 왔던 우리의 산업 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서구의 물질 문명이 물밀 듯이 밀려 오면서 전 산업의 주축을 이루었던 농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상공업이 그 중심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물질 문명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급기야는 최근에 U·R 협상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의 중심 산업이었던 농업도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등으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 왔으며 지금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비교 우위를 내세우는 경제학자의 논리에 맞서 우리 농업을 지키자고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보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 무한정 의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농촌을 보존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농업을 왜 보호 해야하고 농촌을 왜 지켜야 하는지는 물어 보지 않아도 그 해답이 저절로 나온다. 여기서 다시 농업, 농촌, 농산물을 거론하는 것은 농협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 누구도 피부에 와 닿게 느끼고 있고 농촌의 농산물 문제에 관여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농업이 주는 효과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이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농업은 공기를 맑게 정화하여 환경을 보존시키고, 눈은 장마철에 저수지 역할을 하여 몇 개

의 댐을 건설하는 것 보다 홍수를 방지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체질에 맞는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은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늑한 마음의 고향과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최근 몇 년사이에 입에도 담기 싫은 끔찍한 인간성 상실의 사건들을 많이 보아 왔다. 이것은 농업 국가에서 상공업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식생활의 패턴도 많이 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성격도 많이 변하여 왔기 때문에 일어난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황성은 옛부터 애국의 고장이요, 충절의 고장이라 일컬어 왔다. 이러한 선조들의 영예를 후대에까지 이어가는데 황성군민 모두가 조상들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타지역 주민보다도 더욱 우리 농촌을 사랑하고 우리 농업을 보호하며 우리 농산물 애용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민족의 뿌리이며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보호하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여 농민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때 우리 고장은 더욱 발전하고 우리의 건강은 지켜지며 우리의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 력

- 황성읍 모평리 출생
- 건국대학교 농속개발대학원,
상지대학원 지방자치 고위과정,
미국 유콘주립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황성JC특우회 회장역임
- 현 황성농협조합장
황성군 새마을지회장
황성라이온스회원

하늘이 내려준 벌레

(天·虫→蚕)



최 지 형

양잠의 발상지는 中國이며 양잠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中國의 고서(古書)인 회남왕의 잠경(蚕經)에서 「黃帝元妃西陵氏始蚕 衣裳因此」 (中華民國出版 蠶業史話 1976. 6.1)라고하여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원비(元妃) 서릉씨(西陵氏)가 養蚕을 처음 시작 옷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養蚕 기원 통설(通說)의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양잠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중국의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인 한서(漢書)에 의하면 기자가 (기자 조선 자체가 부정되고 있으나) 조선에 건너와 백성에게 예의와 농사짓기와 누에치기 및 베짜기를 가르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양잠 기원은 약 3천여년전에 시작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여기에 蠶의 文德(누에의 여섯가지 지덕)이 있으니

- ◎ 天下의 생명(生靈)을 의피(衣被)함은 仁(仁)이요.
(하늘 아래 온 인류에게 옷을 입히니 자애와 미덕을 주었고)
- ◎ 식상순직(食桑殉職)하야 주은(主恩)에 보답(報答)함은 의(義)요.
(뽕잎을 먹고 고치 짓고 순직하니 주인의 은덕을 보답함이 정당한 도리라 하고)
- ◎ 탕화(湯火)의 액(厄)을 불사(不辭)함은 충(忠)이요.
(끓는 물과 뜨거운 데에서 모질고 사나운 운수라 하여도 사양하지 않고 충성을 다함이요)
- ◎ 필(必)히 사면사기(四眠四起)함은 신(信)이요.
(반드시 네 번 자고 네 번 깨어나니 이것이 믿음이요)
- ◎ 물상(物象)에 따라 성견함은 지(知)요.
(생명이 없는 물체로 황금같은 고치를 주니 슬기롭도다)
- ◎ 말의 화룡(化蠶), 화아(火蛾), 산란(産卵)함은 신(神)이라 하였으니
(알에서 깨어나 누에가 되고 번데기로 화하고 나방이 되어서 후대를 이어 갈 알을 낳

으니 신과 같다 하였으니 이것이 하늘이 내려준 벌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였다.)

또한 우리의 옛조상들은 누에를 치면서 터득되는 조심성과 세심성, 그리고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하여 머느리감을 고를 때 누에를 몇번 쳐 보았는가로 자질을 가늠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아홉번이면 업어 가고 다섯 번이면 손 잡고 가며 세 번이면 그냥 두고 돌아 간다는 말까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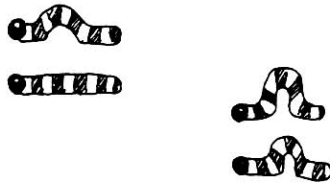
부자집 처녀도 시집갈 나이가 되면 일부러 누에를 치게하여 결혼 조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한다. 누에를 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누에를 다루기를 갓난 아이나 아침 굶은 시어머니 다루기 보다 더 조심스럽다.
- 누에는 냄새에 민감하니 제사지낼 때 향도 피우지 말라.
- 이웃 방에서 고기나 생선을 구워도 안된다.
- 서남풍이 불면 밭에서 일하다가도 달려와 그 바람을 누에로부터 막아주어야 한다.
- 이슬 맞은 뽕을 먹인 누에고치는 실이 잘 끊어지며, 비 맞은 직후의 뽕은 고치실에서 누런 기운이 돈다.
- 누에 옆에서 방아를 쥘어도 안되고 집안에서 곡성(哭聲)을 내도 안된다.
- 상(喪)중인 집안에서는 삭망(朔望), 상식(上食)을 올릴때면 곡(哭)을 생각하라
- 월경중의 여인이 잠실을 드나들거나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던가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잠실을 드나들면 흉잠(凶蠶)의 원인(原因)이 된다.
- 이웃간에 쟁기도 빌려 주지 말고 빌려 오지도 말라
- 이웃 양잠 농가와 왕래도 금하고 외부인도 출입을 금하라 하였으니 이는 누에를 기르는데 있어 인내심과 조심성 그리고 세심성의 교훈을 얻음이요 누에를 기르는 도중에 병으로부터의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서 백옥같은 누에고치를 얻고자 함이니 옛조상들의 지혜가 어떠 했는가를 짐작케 한다.

회고하건데 황성 지방은 태기산 줄기를 이어 반야 앞에는 앞 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뒷강이 유유히 흐르는 사이에 둘러 쌓여 있으므로 해서 수려한 환경조건과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사계절이 뚜렷한 온난한 계절풍이 불어 양잠을 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선택된 지형인 것 같다.

일제때부터 양잠의 고장으로 손꼽히고 있었으며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잠업증산 1~3차 5개년 계획중 누에고치 생산량이 강원도내에서 제1의 증산체제를 갖추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잠업주산단지인 입석리, 청룡리, 목계리 통합단지를 시찰 격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방으로서는 큰 영광이며 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황성군민의 끈기와 단결과 화합된 의지의 결실이요 자랑이었다. 끝으로 하늘이 내려준 벌레(누에)를 농가소득원으로 다시 한 번 봄이 조성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무상할 따름이다.



약력

- 황성중, 황성농업고 졸업
- 청일면, 황성군청 근무
- 강원도청 농산과
- 강원도 농민교육원 근무
- 강원도 잠종장
- 1996년 정년퇴임
- 현 춘천시 옥천동 37-9거주

회 상

공근면 신촌리 박 상 회

꽃밭의 맨드라미
붉게 선 어린 날,
구절초, 쑥대꽃을 머리에 꽂고
흙을 추면
두등실 마주 서면 푸른 하늘속으로
양갈래 머리 꼭꼭 땅아 묶어주던
고운 눈매의 어머니가 보인다.
바람 서걱이는
옥수수밭 너머에는
때를 넘긴 싹들이 월없이 솟아나고
하얀 수건 곱게 머리에 쓰시고
바람 속에 이어지면 어머니의 손짓은
이제는 스쳐간 꿈처럼 아득한데
눈물 없는 세상을 살라 살라
기도하던 그 목소리
메아리되어 하늘 가득
잠자리 따라 맴돈다.
마지막 기차는 기적을 나부끼고
토담냄새 고향집 열려진 문 밖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검둥이가 짓고 있다.

회 상

황성음 음상리 권 언 회

나 어릴적 살던 정금(양지마을)은 병풍을 두른 듯 두메산골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이 안방끝까지 비춰지고
원구름 넘어가는 저산 밑으로는
돌돌돌 흐르는 실개천 있고
웅기종기 인심좋은 초가집뒤엔
몽글몽글 조롱박들이 매달려 있었다네

초가집 뒷동산 푸른 언덕엔
한가한 어미소 풀잎을 뜯고
어미답은 송아지는 신이 났는지
놀래 날아가는 풀벌레따라
이리저리 뛰어노는 모습도 있었다네

하늘향해 푸르른 청솔 소나무엔
울때미 큰눈을 검벅거리고
찌꼬리 휘파람새 노래를 하면
느티나무 왕매미 맴맴 소리 높혀
노래하던 풍경도 있었다네

골짜기 따라온 실개천들이
오붓이 손을 잡은 웅덩이에는
옥같은 물결따라 고기 노닐고
장마 끝에 쌓여있는 모래 둔덕에
개구장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네

몰러가는 뭉게 구름을 지붕삼아
쟁쟁한 햇볕을 머리에 이고
물속에 노니는 피래미 한 마리
잡으려고 투다닥 뛰어들다 넘어지고
꿀꺽꿀꺽 냇물만 들이키고
꽤액 꽤 소리 높여 기침을 하고
손에손에 검정 고무신 들고
피래미 송사리 잡으려다
방개 한 마리 소금쟁이 한 마리 잡고
신바람나 광충광충 뛰던 시절이 있었다네

한아이는 콩만한 젖몽을 때문에
빛바랜 런닝을 입었고
다른 아이들은 훌딱벗고 물장구 치다 지치면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 공기들 던지며
고추잠자리 공지를 매어 시집 보낸다고
갈갈웃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네

뉘엿뉘엿 석산에 해가 기울면
하루종일 춤을 추던 고추잠자리도
목이 쉬라 노래하던 매미도
지치고 지친 어린 악동들도
뒷동산에 올라가 어미소 끌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송아지 물며
저녁 내음 구수한 눈독길을 따라
휘이 휘이 휘파람 불며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었다네

딸

황성음 청용리 박 주 현

깊숙한 눈 오뚝한 코
선홍 입술 하얀피부
눈에 넣어 가슴에 묻고

오색빛 비누방울
유리관 속에 부풀리고
너기름을 갖는 날
난 슬픔에 포로

춧불밝힌 공간속에
너와 나는 깊고 넓은
바다를 마주하고
그리움에 노래를 부른다



우 리 고 장

공근면 학담리 정혜경

강원도
아.....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이 네 작은 가슴에 그대의 모습이
석류알처럼 영글었구려
이 가을에
그대가 뿜어내는 체취는
내 영혼을 사로잡고.....
그대 곁에와 뿌리를 내린지
언 8년
누군가
당신 사는 곳이 어디야 물으면
나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이라는
고장에 살어
“살만해”
“하고” 물으면
어디서 그런 정열이 솟는지
그대 사랑을 몸으로 전한다.

우리고장

우천면 우항리 정란화

너도 한술 나도 한술
막걸리 한사발에
동네 인심 푸근한메
우리 고장 등을 지고
도심지로 가는네들

너나없이 신이나네
아버님의 목청소리
민속경연 우승일세
방방곡곡 모여들어
아지매들 신이나서 덩머쿵 덩머쿵
우리고장 신토불이
우리고장 자랑이라네.....



회 상

황성음 음상리 이 효 자

초 가을인가 했는데 벌써 10월 상달이 생일처럼 돌아와 눈 앞에 자리를 잡고 걸렸다. 한 여름 양지쪽에서 뒤척이던 바람이 약속처럼 일어나 햇 나뭇잎을 데리고 달음질 친다. 해마다 이맘때 쫓으면, 씨를 토하는 식물처럼 가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진다.

문득 아득한 기억 한 권이 젖은 목소리로 다가온다. 15년 전 그해 10월! 꼭 오늘 같은 가을이었다. 내 눈에선 까닭모를 눈물이 땀처럼 흘렀다. 달빛에 흠뻑 젖은 한지창을 바라보며 난 아무도 모르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화장대 거울앞에 스미는 어둠을 닦아 내면서도 슬픔을 지우려 애썼다. 긴 베개 키 만한 두 남매도, 아버지의 늦은 귀가를 습관처럼 기다리다 지쳐 잠속으로 쓰러진지 오래다.

기다림은 나의 모든 것을 정지시킨다. 내가 아끼는 시간들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초조한 가슴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일자로 누워 잠을 청해보지만, 온갖 방정맞은 생각들이 우후죽순으로 가지를 치는 까닭에 마음만 상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 들어찬 밤!

나무 대문이 우당당탕!!!

쥘어박은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시계 바늘이 새벽 1시를 알리고 있었다. “문열어 좀 늦었다구 문 안열어?” 거세게 대문을 밀치고 들어온 남편은 곱지 않은 눈길로 나를 무시한채 오히려 당당해 지고 있었다.

“○○엄마 하늘 天자 보다 더 키를 높인 지아비 夫자를 보면 모르겠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왜 그래?” 말까지 놓고 내게 도전해 왔다. 나도 그날 만큼은 사생 결단을 내리라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내 목소리의 톤은 나도 모르게 수직선으로 튀어 올랐다. 분노에 찬 얼굴로 헤어질 것을 선언하고 나선 순간이었다.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화장대 거울에 V자 금이 짱 그

어지고 말았다. 친정 아버지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송아지를 팔아 마련해 주신 화장대 앞에 꿇어 앉은 나는 초상집 상제처럼 울고 또 울었다.

한풀격인 남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술을 타하며 실수를 후회했다. 고의든 과실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납할 수 없었다. 음주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없던 스물여덟의 여린 새댁은 냉정이 마음을 굳히고 주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두 아이 옷가지를 챙기고, 남편의 소지품을 따로 분리해 내며 많이도 울었다.

마지막으로 앨범을 정리하면서 헤어져야 할 얼굴들을 아쉬운 듯 들여다 보았다.

천리 먼길 달려와 행복을 빌어주던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따스한 손, 청실홍실 묶인 끝에 매달린 크고 작은 인연들이 나를 부둥켜 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결혼 사진에 박힌 얼굴 하나 하나에도 나처럼 뜨거운 눈물이 서린 것을 보았다.

난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다시는 일어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채 그냥 주저앉은 자세로 오늘까지 왔다.

오늘로 그와 내가 부부인연을 맺은지 꼭 스무한해 반이 된다.

연약했던 우리의 동지에 자리 한켠 크게 차지한 그는 이제 새벽 안개를 헤치고 동구 밖을 나서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달빛에 젖어 육신이 상해 오는 일은 거의 없다. 이제와서 강산이 두 번 변한 세월을 회상해 보니 아득히 멀기도 하고, 잠깐 스쳐간 소낙비 같기도 하다.

나는 내 특유의 끈기를 보듬어 안고 오래 참고 버티어 온 셈이다.

결코 적지 않은 희생으로 가정을 지켜왔다. 어디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울퉁은 가정을

나는 오늘도 비바람 새는 기와집 뒷마루를 정성껏 닦는다.

창호지 문 환하게 바르며, 나 보다 옷자란 두 남매를 호령하는 한석봉 모친 님은 어머니가 되었다.



우리고장 “기다리기 힘들어도”

공근면 도곡리 이 정 예

가을이 문을 닫으려 한다.

어젯밤 저리로 창너머 노랗던 들깨밭이 까매졌다. 미처 깎았을 따 놓지 못한 일이 후회된다.

해가 지는 시간은 자꾸 앞당겨지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내 마음도 바깥 기운을 따라서 자꾸만 조급해진다. 작년까지만해도 버스 시간 놓치는 일 없이 두 아이들이 잘 들어오더니 요즘은 노는 일에 눈을 땀는지 해가 넘어서 들어오기 일쑤다.

주시간만에 한번씩 밖에 없는 버스 시간 놓치지 말라며 아침마다 시계 채워주며 기다리는 엄마 마음 헤아려 달라고 사정해 보지만 두 녀석은 다 마이동풍이다. 서너시간 지나면 내 시선은 자꾸만 언덕배기로 가 쫓힌다. 아이들이 학교 문 앞에 나왔을까 버스에서 내렸을까 어디만치 왔겠지 지금쯤은 언덕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야 할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안보이면 난 다시 학교문턱으로 생각을 옮겨간다. 고추밭에서, 화단 앞에서,

밖이 어두워지면 내 눈은 연실 창문으로 향하고 온갖 방정맞은 생각들로 마음을 졸인다. 두 아이의 머리가 아주 작은 점으로 시작되어 점점 모습을 언덕위로 보일때면 내마음은 걱정에서 노여움으로 안도감으로 흘러가고 가라앉는다. 오기만 해보라며 연실 혼내줄 방법을 모색하다가도 아이들의 그림자만 보면 나도 모르게 웅그라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만다.

도로에서보면 첩첩산중이라 도저히 동네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작은 마을이 돌아앉아 있다. 그런 지리적조건 때문인지 우리 동네 도곡리는 천주교 박해를 피했던 곳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가슴 속 같기도 하고 여인의 자궁과도 같은 형상이다. 그래 그런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선량하다. 모나지 않은 둥글둥글한 심성들을 가졌다.

버스에서 내려 우리집까지는 오리가 좀 넘는다. 어른걸음으로는 사십여분이 걸리지만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종잡을 수 없다. 그들의 온갖 호기심을 채우다 보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해가 질때까지 안오는 수도 있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무한정이다. 봄이면 올챙이알을 건져오기도 하고 밭둑에 앉아 발가는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기도 한다. 여름이면 개울에서 다슬기를 잡는 일로 해저무는 줄도 모르고 가을이면 마른풀 대궁에 옮겨 앉은 잠자리를 쫓느라 시간 가는줄도 모른다.

어쩌다 시내 아이들 서너명이 모여 올때면 의기투합하여 산골짜기로 가재를 잡으러 가기는 하는데 신발과 바지를 흠뻑 젖어 돌아온다. 도시의 아이들은 상상으로만 책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장난거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천으로 널려 있다.

아이들의 기상천외한 놀이방법에 나는 놀란 얼굴을 하고 엄하게 꾸짖기는 하지만 내심 난 기쁘고 행복하다. 대자연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시골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은 도시 생활에서도 티가 난다고 한다.

‘촌놈’ 들은 무언가 한가지를 맡겨 놓으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확실히 해내고 마는 근성이 있다고 한다.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며 자라나는 아이는 좋은 심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사회는 건전하고 희망찬 맥락이 끊이지 않는 가능성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흔히들 모든 엄마들은 새로운 운명과 문화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려 한다. 그래서 문화의 이방인 취급받는 농촌사람들이 자꾸만 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난 확신한다. 적어도 유년기는 대자연속에서 보내야 한다고.

비록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백화점도 없고 무슨 무슨 ‘랜드’ 도 없고 오락실도 없지만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많은 생물들과 교감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고장은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자연을 통해 삶을 개척해 나갈 촌놈 두너석을 오늘도 창가에 서서 기다린다.



회 상

공근면 행정리 김 정 옥

그 곳에 가면 훌쩍 커버린 잣나무와 은행나무 사이로 빛바랜 지붕이 보인다.

멀리서 보아도 가슴 저미게 하는 나의 고향집!

달맞이꽃 망초대를 해집고 조그만 도랑을 건너 마당에 들어서면 참으로 미묘한 기분이 나를 감싸며 반겨준다. 사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곳, 문패도 없고 뼈거덕거리는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이것이 폐가인가?

마당에 아름답던 화단은 간곳없고 모양 없이 커 버린 향나무와 라일락은 지붕을 훌쩍 넘어버렸다.

부엌에는 술은 간 곳 없고 시커먼 검댕이를 칠한채 입을 벌리고 있고 뒷뜰 우물은 풀속에 갇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장독대는 깨진 커다란 항아리만 덩그마니 남겨져 있고…….

나는 다시 돌아와 먼지진 마루에 걸터 앉아 옛날을 생각 안할 수가 없었다.

이토록 허망할 수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나의 머리속에서 그리자 우리 가족이 있었던 곳을 행복과 불행이 있었던 곳으로…….

키 작은 해바라기를 길가에 가득 심고 비 온 뒤에 노란색과 무지개를 함께 보았고 천천히 대문을 들어서면 아버지의 문패서부터 언젠가 오빠의 문패가 달렸지 그 때 8월에 파란색 지붕에 흰옷 하나 던져지고 통곡이 울릴 때 이 대문을 떠나셨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얼마후 마당 한 가운데 커다란 화단을 만든 오빠는 귀엽고 조그마한 향나무를 가운데 심고 라일락 수국 들장미를 심더니 최고의 꽃은 나리라고 기뻐하고 일만큼 세월이 흐른 뒤 그 향나무가 다 크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지. 한을 가슴에 심어놓고 그런데 지금 이 향나무는 모양도 없이 산발인채 이렇게 크게 자라더니 따스한 온기와 음식 냄새가 나던 부엌에 다시 술을 걸자 그릇 몇 개와 접시도 몇장 깨끗이 빨은 행주도 술위에 퍼서 말리자. 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새벽산을 엄마랑 서럽게 올라다녔지 나무하다 걸릴까봐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솔가지를 한 지게 지고 헉헉대며 어린 어깨에 둘러오는 무게 만큼 난 울었다. 많이도……
 우물가에 가서 한 양동이 물을 길어 오자 솔에 가득 채우려면 바지옆이 다 젖어 가는데 두레박을 풍덩 고요한 샘에 던지면 파장과 함께 햇살도 가득 담아 올린다. 우물터에 웅기종기 머리 둘러매고 우물속에 얼굴 비쳐보던 동생들 일식 관찰한다고 먹물 한 대야 담아 놓고 해를 관찰하던 우물가의 추억이 모두 사라질 때 마루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본다. 먼지가 아닌 흙과 함께 찌든 송판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이제는 다 떠나버린 언니와 동생 서울이란 곳에 가정을 두고 어머님마저 그 곳에 계시고 나 홀로 고향집을 찾아 이렇게 가슴 아파할 때 툭툭 털고 저녁 햇살이 고요히 비출때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빼걱 열고 미련없이 나의 집으로 돌아온다. 내년엔 아니 먼 훗날에 다시와 예쁘게 꾸며보자. 지난 일을 회상하며…….



회 상 (어머니)

청일면 청일우체국 관사 백 영 호

어머니와 딸이라는 인연의 고리가 끊기던 날도 하늘은 저렇게 어머님의 비취반지 빛 같이 고운 하늘이었다.

고목의 껍질갈던 두손으로 딸의 두손을 잡으시며 그 생전에 지으시던 은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혼곤한 꿈속으로 나래를 펼쳐 가실 때 못한 딸은 어머님의 가시는 길을 막지 못했다.

봄이면 진달래 같이 화사했던 목련같이 고우셨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가을날 타는 것 같은 붉은 단풍이셨던 어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제일 값진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진저리 처지는 고통속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머니 떠나신 후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포박줄에 묶여 불효했던 시간들을 마음 아파하지만 뒤늦게 후회란 아무 소용 없는 것... 욕심은 풍선과 같아 불면 불수록 커지지만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 흔적도 없이 터지게 마련이라며 과욕을 늘 말씀해 주시던 어머니

독신을 고집하던 딸이 고우면 고울수록 사랑스러우면 사랑할수록 가슴 애잔했던 어머니

5살까지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안스러움에 마음 조이셨다. 6살에 첫걸음마했을때는 세상이 모두 내것 같으셨다던 어머니 못한 딸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고운딸이셨다며 자상하시던 어머니

딸이 기분 좋으면 그날은 어머님 기분도 쌍무지개 뜨는 날이시라던 어머니

그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데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양 45세 노처녀인 딸이 54세의 할아비와 결혼한다는 말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음악 같으셨다던 어머니

아들 넷, 며느리 넷, 손주가 5명(지금은 8명이지만) 할머니 노릇이 쉽지 않으리란 결
더 잘 알으셨으련만 그래도 혼자 보다는 둘 그자체가 좋으셨던 어머니

때 늦은 45세 노처녀인 딸이 시집 가던 날

부드러운 하프톤의 은빛머리에 분홍빛 고운 한복 차림의 어머니는 18세 처녀 그 분신
같으셨다.

어머님의 향기를 멀리 한채 독신자의 너울로 벗던 날

어머님의 얼굴은 평화 그 자체였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듯한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홀가분한 가벼운 행복이 가득하였다. 결혼 전 날 명신보감 익지서에 여자가 지켜야
할 부덕 부용 부언 부공을 말씀하시며 남의 가문으로 가는 막내딸의 행복을 빌어 주
던 어머니는 뒤늦게 맞이한 사위가 늙은 홀아비가 아닌 20대 초반의 미남으로 보이셨
는지……

결혼 생활 6년만에 어머니는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한 딸을 남겨 두시고 훌훌 치마자
락 내려치시며 20년 동안 헤어지셨던 아버님 곁으로 떠나셨다.

딸이란 이름만 붙여 놓고 살아 생전 애물단지였던 딸 가슴에 구비 구비 한서린 마음
만 남겨 놓으신 어머니 마지막 내가 눈을 감을때까지 가슴속에 한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연보라빛 코스모스 같던 어머니의 생각에

이 가을

풍성한 들녘을 쳐다 본다.

들녘은 넉넉한 어머니의 가슴 같다.

가을 바람은 어머니의 손길 같다.

귀뚜라미 우는 밤

귀뚜라미 울음과 같이 이 딸도 꿈속에서 어머니와 만나 영혼의 교감을 가지리라.



딸

공근면 도곡리 이 옥 순

어머니!

엄마!

여자아이로 태어나 소녀로 자라서 이제는 한 여인이 되어 또 한 여자아이의 엄마로 되어 있는 지금도 당신을 떠 올릴때면 이유모를 서러움에 가슴까지 메워움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내 엄마이기 전 하나의 인간체로서 더구나 여자라는 굴레를 타고 난 그 엄마의 삶의 무게를 어리기만 했던 딸은 전혀 헤아릴수가 없었지요.

아버지가 오랜동안을 병석에 누워 계셨기에 그 아버지의 몫까지 어머니인 당신이 맡아야 했던 그 때 아직도 철이 들으려면 까마득하기만 했던 딸들과 막내아들 그리고 큰딸 큰아들 그 누구도 엄마에게 의지가 되지 못했었죠. 남편을 잃은 슬픔따윈 곱씹을 여유도 없었고 고만고만한 자식들 하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아마도 그 때 엄마의 눈물까지도 묻어버렸나 봅니다.

다섯 남매 가운데 셋째딸인 나를 아버진 제일 예뻐하셨고 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도 가장 많았었죠. 그러한 아버지의 情을 빼앗겨 버린 이후로 난 엄마에게 아버지의 대신함을 기대했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엄마에겐 나를 비롯해 모든 것이 생활이고 버거운 삶 자체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엄마들처럼 딸아이 곱게 치장시키며 살뜰한 情주지 못하는 엄마에게 서운하기만 했더랬지요.

지금 저는 제 딸아이 학교 행사에 놓치지 않고 참석하지요. 내 초등학교 시절 어찌다 있는 행사에도 엄마는 오시지 못했기에 그 때 느껴야 했던 그 기분을 지금 내 딸에겐 남겨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엄마 대신으로 언니나 오빠가 할 수 없는 엄마로부터만의 받음을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딸 아이의 긴 머리를 빗어 묶어주며 내 어릴적 엄마도 이렇게 내 머리를 곱

게 빗어 묶어주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오랜 세월전 엄마에게 머리를 맡겼던 그 딸이 이제 제 딸의 머리를 빗어주며 가지게 되는 상념을 어머니 공감하실 수 있는지

내가 내 딸에게 가지고 있는 바램처럼 내 엄마 역시 내게 대한 바램이 있었을텐데 나는 엄마에게 어떠한 딸로서 남아 있는지 되돌아 봅니다. 아직도 철부지 딸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엄마

조금 더 일찍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그 힘겨움을 덜어줄릴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의 이 양금은 덜 할지도 모르겠군요.

엄마

당신의 고통과 인내의 세월들에 지금의 이 딸이 남게 되었나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엄마에게 훌륭한 딸이 되지 못한 것처럼 내딸에게 역시 훌륭한 딸이 되어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지금의 제가 엄마에게 지니고 있는 마음처럼 제딸도 그만큼만 제 엄마에 대한 마음을 지녀만 준다면 좋겠지요.

다 표현하지 못한 글이지만 엄마에 대한 딸의 마음을 써 보았어요. 이제 조금이나마 엄마에 대한 마음의 빔을 내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회 상

황성음 교항리 김 순 성

오늘밤도 깊은 잠을 못자고 괜실히 뒤척이고 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귀여운 나의 두 아이들, 조금의 부스럭거림도 못견뎌하는 남편, 세상사람, 아무도 모르게 살며 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고요한 정적속에 12:00시를 알리는 시계의 패종소리 “삐” 주전자에 수돗물을 받아 “달각” 가스불에 올려 놓고 멍하니 파란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웬지 처량한 여인 평소에도 한스푼으로도 될만한 커피를 한밤중에 웬 청승으로 두스푼이나 넣고 진하고도 쓴커피를 훌쩍 훌쩍 마셔본다. 팔을 피고 앉아 흔들리는 커피잔의 잔여물을 보며 무엇인가 문득 스쳐가는 기억들 칠월의 역수같은 장마비를 맞으며 오이밭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어린 여자 아이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질않지만 오이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던 기억이난다. 그 소녀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을 아니 관심을 무척이나 필요로 했던 것 같다.

식구는 12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3, 고모 한명, 엄마, 아빠, 언니, 나 동생2이 많은 식구들중에 어느 누구하나 작고도 까마잡잡한 나에게 관심을 둘만한 사람이 없었다. 나의 엉덩이에는 아직도 덴 자국이 남아 있다. 어려서는 그것이 왜 있는지 관심도 없었지만 점점 자라면서 엄마 난 왜 이런 자국이 있어 하고 물을때면 태어나서 며칠동안 그냥 눕혀놔더니 며칠안에 씻기려고 보니까 그 어린 애기살이 다 익었드라는 것이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럴수가 있을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도 관심을 못갖고 태어나서 항상 넌 왜 이렇게 극성맞니?

못됐니? 영악하기로 일축해서 나란 아이를 결혼 지어 준 식구들

학교 다닐때도 별다른 재주 없이 아침이면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으니 까 공부하고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와선 밥먹고 TV보고 잠자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그냥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엘 나가게 되었다.

그동안 별로 못 느꼈던 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남하고는 타협할줄도 모르고 나의 고집만 내세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람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다.

난 왜 이럴까 우리집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들이 없을까 걱정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만났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물어봐 주고 얘기해주고 여태까지의 내삶이 내집이 싫어지면서 그와의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정말 그이의 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를 데려다가 키워준 셈이다.

22살에 첫 아이를 낳고 24살에 둘째아이를 낳았다. 첫아이때도 모르던 정이란 것을 알면서 그로부터 지금은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두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어엿한 한가정의 안주인인 아내가 되었다. 별로 밝지 못했던 어릴적의 우울한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작은 감정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몰랐던 엄마의 고마움 세상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학교다닐 수 있게 키워주는 부모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이제와서는 많이 느껴본다. 하지만 조금의 불만이 있다면 감정에 인색하셨던 나의 부모님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예쁘면 안아주고 잘못하면 혼내줄줄 아는 그런분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오늘밤은 웬지 이런 부모님이 더욱 더 그리운 것은 왜 일까 너무도 말씀이 없으셨기에 한 번쯤은 엄마하고 품안에 꼭 안기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나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

또 다시 시계의 쾌종소리가 울린다. “땡땡” 새벽 2시 이제 그만 잠자리로 돌아가야겠다.



회 상

황성읍 북천리 원 영 순

가을 하늘 드높고 청정함속에서 “딸”을 생각한다. 많은 상념이 나를 스쳐 지나간다. 항상 딸로써 살고 있음에 왠지 낯설지 않음은 피부에 와 닿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일까?

딸을 다섯 두고 끝으로 아들을 둘 두신 부모님을 모신 장녀인 나는 딸이란 단어 그 자체에서 한스러움과 서러움의 감정을 빼 놓을 수가 없었다. 나의 유아기와 소녀기에 항상 아들없는 집의 그늘을 가슴에 담고 있었기에 아들, 아니 남자란 단어에 대해 심한 적개심을 품어 왔었나보다 반면 남자들의 특권이나 장점을 동경하면서도 겉으로는 무시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런 비뚤어진 사고 속에서 나의 20대가 갔고 그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생활을 하며 불공평하다는 감정에서 빠져 나올수가 없었다. 그런 웅어리진 마음은 남편에게 상처로 남겨졌고 남편의 상처를 보며 나는 더 큰 상처를 끌어 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어찌면 어릴때부터 쌓아온 한이 밖으로 표출된것에 불과 했으리라. 나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문제는 해결하고 싶었다. 빠듯한 결혼 생활 속에서 며느리는 있고 딸은 없어야 하는 순간 순간이 참 싫었다. 결국 능력이 있으면 딸로 찌든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 맞벌이 주부로 나서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쳤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모두 나에게서 파생되는 것들이었다.

세상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세상을 빼놓이지게만 보는 나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주변을 바로 보게 되었다.

결혼생활 8년을 지나 보내면서 나 자신 많이 성숙해 있음을 느낀다.

딸이라는 굴레를 나쁘게만 보았던 시각을 이제는 따스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딸인 것

자체를 사랑한다.

그러기에 어머니, 아버지 칠남매 키우시느라 고생한 삶을 지켜 보아오면서 가슴 절절이 흘러나오는 그 무엇을…….

삶이 고달파 등이 휘어가시는 부모님을 뵈며 이제는 기대도 될 만큼 마음이 넉넉해진 딸을 확인시키며 나 자신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낀다. 억울하고 천덕꾸러기인 딸이 아닌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감사한 마음의 딸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시부모님께도 의무나 형식이 아닌 머느리 노릇이 아닌 서로의 정과 울타리를 느끼는 가족의 훈훈함을 느낀다.

또한 나에게 딸이 둘이 있다. 어른들께서는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가끔 잊을 만 하면 말씀하신다.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은 선택과 특권과 힘이 주어지는 세상이라는 하나, 나를 위해 자식을 낳지 말자고 맹세한다. 자식의 커가는 모습속에서 나의 회노애락이 펼쳐진다고 생각한다. 아들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잊기로 하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게 주어진 두 딸을 세상에 나가 나처럼 뺨뚫어진 사고로 다시 세상을 살게 할 수는 없다. 당당한 세상 구조의 한 부분인 딸로써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에 인간으로서 갖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싶고 세상에 나가 많은 것과 부딪히며 살 수 있게 자긍심과 존재의 필연성도 심어 주고 싶다.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딸이기 때문에 더 큰 마음의 사랑을 느낀다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줄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또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 생을 마칠때까지 딸로서 살 나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은 딸이기도 하다. 가을 햇살 맑고 따사로운 잔디밭에서 오후 한 나절을 딸로 꼭 빠져보며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다. 세상이 밝고 진보하는 가운데 있음을 의심하지 않음을 의심하지 않음에 있어야 할 곳에서의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평등을 바라는 내 마음은 밝다.



신 규 회 원 명 단

성 명	주 소	직 업	자 택	직 장
안 병 화	황성읍 읍상리 원흥A102-505		43-0641	43-6975
장 태 준	서원면 석화3리		42-0577	
함 기 준	원주시 태장2동 2210 우성1차A102-405		731-2544	
신 구 선	황성읍 북천리 115-37		43-1350	
변 선 자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6번	가사	42-1577	
이 상 옥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동산A b-403	가사	43-6937	
이 영 진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공무원	42-6925	43-2400
김 순 남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아이세상	42-6925	
남 진 향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 409	유미양품점	42-2205	42-2205
이 종 빈	황성군 둔내면 화동리 631	농업	43-3399	
박 영 자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7번	가사	42-1161	
장 찬 복	황성군 둔내면 둔방1리 84-1 남서울A502	가사	42-2120	
임 은 순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홍용체육사	43-8584	
조 영 환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 295	농업	43-7814	
박 재 향	황성군 둔내면 마암2리	가사		43-6584
김 영 미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05	둔내농협	42-2077	42-1611 ~ 3
최 종 호	황성군 둔내면 둔내고등학교	교사		42-1197
박 정 애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 295	가사	43-7814	
양 희 자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태양미용	42-1884	42-1884
이 명 애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가사	43-1197	
이 대 선	황성군 둔내면 화동리 280-1	농업	42-2405	
김 제 환	황성군 둔내면 두원리	공무원	40-3246	40-3246
원 종 훈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67-1	자영업	43-7920	
김 천 수	황성군 황성읍 마산리 493	농업	43-3434	
조 규 선	홍천군 남면 유치리 575	농업	32-4802	
박 인 평	황성군 갑천면 삼거리 57	한정식당 운영	714-0088	42-2526
양 기 호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107	화차 운영		43-2811
이 병 오	황성군 우천면 두곡리 467-2	우천농협	43-6789	42-6055

어사대 제 12호

발행일 : 1997. 9. 25

발행처 : 횡성문화원

발행인 : 원장 심진황

편집 : 누리기획

인쇄 : 누리기획

(비매품)